

11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11호

(루계 제805호)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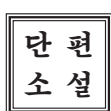
불후의 교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3)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4)
태양의 추북속에 쇠물이 끓는 땅(시)	전 승 일	(4)
붉은 동그라미(시)	류 명 호	(5)
그날은 4월 15일이였다(시)	허 수 산	(5)
주체문학의 대강		(12)
단편소설 지 름 길	김 대 성	(6)
원수님과 원아들(시 묶음)	장 혜 명	(13)
태양의 미소속에 이 땅은 밝다(평론)	김 용 부	(18)
북받은 청춘(가사)	량 룰	(27)
늦어진 영결식(혁명일화)		(65)

태양의 추북받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삶과 투쟁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7)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시)	원 영 옥	(17)
평론 감동깊은 세부를 통한 위인적 품모형상	박 현 희	(21)
어머니로국에 드리는 원근시대 여성들의 노래	김 려 숙	(24)
어머니는 자랑스란다(시초)	김 선 화	(28)
군관의 안해(시)	렴 정 실	(42)
단편소설 어머니의 손	홍 남 수	(31)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명작폭포를 안아오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고요한 호수 김 삼 열(44)

갓을 팔아 마신 술 (매립음주) (고전소설) 김 재 국 작 (71)
최 흥 록 윤색

필요한 사람 (실화문학) 리 성 식(57)

◇ 평 론 ◇

승리와 패배의 두 권통에 대한 철학적해명 박 정 봉(66)

붉은 오각별의 형상을 통해 본

탐정, 추리수법의 활용 (단평) 전 윤 희(69)

류다른 느낌, 새로운 모습 (단평) 방 호 성(74)

가사창작에서 외부형상과 형식적표상 (연단) 차 명 철(78)

☆ 시 ☆

아들의 이름 박 성 일(43)

받아다오 처녀병사들아 한 동 선(20)

그네타기 즐거워라 (가사) 최 성 근(43)

남흥의 하늘은 왜 붉은가 (시초) 박 상 민(55)

나는 이 땅의 광부다 (시 묶음) 리영명, 손강춘, 윤금영, 조만국(76)

유 제 (30), (54) 상 식 (3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도 바뀔 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혈통,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생명선이라는 뜻이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민족의 뱃이며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 주는 명맥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며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이고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겠다는 자주정신이

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는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함없이 백두의 혈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나감으로써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태양의 축복속에 쇠물이 끓는 땅

전 승 일

철의 도시에 거연히 서계시는
아, 수령님
아, 장군님
목메여 찾으며 우러르니
금시라도 대돌에서 내리시여
용해공 이 몸을 품어주실것만 같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한평생
쇠물이 우리 수령님께 기쁨이었기에
야전복을 벗지 못하고 사신 선군의 한평생
강철이 우리 장군님께 힘이였기에
아름아름 꽃다발속에
오늘 뿜어낸 만출강의 강철일지를 함께 안고
김철의 이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용해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
우리 아버지세대가 출신의 모습 보아달라고
철없이 말씀드린 출신시간을 기다려
중대사도 다 미루시고
귀중한 시간을 용해장의 쇠의자에 앉아
기다려주신 우리 수령님

열풍이 몰아치는 강피앞에서
잘라져흐르는 강편의 길로도 물어주시며
장하다고 대견하다고
북관사투리대장부가 제일이라고
땀젖은 잔등을 두드려주시며 호탕히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

불별이 쏟아져내리는 삼복철에도
눈보라 지동치는 엄동의 대소한철에도

아스라한 용광로 주상의 철계단을
우리 용해공들보다 마음속에
더 많이 밝고오르신 수령님 아니십니까

철령과 오성산의 굽이굽이 내리시는 길로
수룩만리 대륙을 횡단해오시는 길로
김철이, 김철이 보고싶었다고
그리고 때없이 철의 기지 구내길로
소문없이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그날의 그 거세찬 동음을 듣고싶으시여
그날의 그 아들딸들을 품어안아주고싶으시여
천리북변의 이 광장에 높이 서계시는것 아닙니까
장쾌한 철의 기지 불노을위에
태양의 축복을 엮어주시는것 아닙니까

수령님마음속에 안고사신 대형용광로는
어제도 오늘도 불덩어리로 지동칩니다
장군님야전복의 성애가 녹아내리던 압연장엔
쉬임없이 불강판이 파도쳐흐르고
압연기마다 현대화의 동음이 노래처럼 울립니다

심장의 뜨거운 맹세를 아뢰이나니
어제도 오늘도 수령님과 장군님 받들어
나라의 강철전선을 억척으로 지켜왔듯이
김철은 천만년 대를 이어 영원히
김정은원수님의 가장 강한 맏아들로 살립니다
아, 수령님!
아, 장군님!

붉은 동그라미

류 명 호

너무도 멋있고 황홀해
오가는 사람들도 그냥은 못 가
보고 또 보는 교육자살림집
이 집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아, 붉은 동그라미!

오늘도 못 잊어
우리 원수님 하시던 그 말씀
나는 장군님의 그 수첩을 잊을수 없다고
그 수첩엔 붉은색으로 여러번 덧그은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그 붉은 동그라미안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문제가 있었다고

교원들은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애국자라고
세상이 보란듯이
교육자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그 음성 메아리로 울리거니

수백수천권의 책으로

다 쓸수 있으라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
뜨겁게 새겨진 그 붉은 동그라미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장군님 가슴에 품고계신
그 수첩의 붉은색동그라미
우리 원수님 가슴에 안고계시는
잊지 못할 그 붉은색동그라미

사람들이여, 보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사는 살림집
그 지붕우에 펼쳐진 책은
교육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그런 상징만이 아니다

그 책은 세상이 다 보라고
우리 원수님 푸른 하늘에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수첩이다
그 수첩의 붉은 동그라미우에
아아, 태양이 빛나고있어라!

그날은 4월 15일이였다

허 수 산

오! 그날은
4월 15일이였다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의
뜻깊은 명절
위대한 수령님 탄생하신 경사스러운 날

인류최대의 명절
4월의 봄날
산과 들과 거리엔 꽃들이 만발하고
온 세상 사람들 영생축원의 노래와 춤을
극장과 광장에 펼친 날

조선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
그리움의 노래 울려 끝없는 수도의 하늘가엔
풍선과 함께 비둘기떼 날으는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열리였다

그날
조국의 하늘은 비여있었다
그러나 조국의 하늘은 짙 차넘치였다
원수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
원수님 우리러 더친 환희의 격정

그날 우리의 원수님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사들을 평양에 불러
축하해주자고 하시던 그 소원을
오늘에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하늘의 방패로 위훈떨친 비행사들을 알아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여 표창도 해주시고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한 녀성비행사의 어제날 소청도 헤아리시여
기쁨에 넘쳐 이름도 지어주신 원수님

남편이 전사한 비행사안해의 토론도 들으시며
그와 함께 눈물도 지으시고
길영조영웅의 아들의 토론도 들어주시며
그의 앞길에 위훈의 만리대공을 안겨주신
뜻깊은 태양절 4월 15일이여

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그날은
하늘의 방패 붉은매들의 은빛날개우에
영원히 우리의 태양이 빛나는 날이였다
은빛날개아래 영원한 평양을 안겨주신 날이였다



김 대 성

《지름길로 갑시다.》

몸소 운전대를 잡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용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뒤좌석에 앉아있는 두 일군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넓고 곧게 뻗은 아스팔트도로를 타고 전속으로 달리던 승용차는 속도를 늦추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자동차 한대가 통과할수 있을 정도로 좁고 우불구불한 토사도로였다. 주변의 야산들과 공지엔 눈이 깔려있었다. 토사도로의 눈은 죄다 바람에 날려가 승용차의 바퀴밑에서 흩먼지가 뿔양게 일었다. 길은 험해도 이쪽으로 질러가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신 경치 좋은 호수가가 인차 나타날것이다. 과학자들에게 더 좋은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어제 밤도 집무실에서 꼬박 밝히시고 오늘 이른아침엔 몸소 과학원에 나오시여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자애로운 원수님, 그이를 모시고 이제는 경치 좋은 호수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과학원의 책임일군인 주학민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지금은 겨울철 그것도 제일 추운 대소한이다.

기우뚱거리며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는 승용차의 주변에선 잎이 떨어진 나무들이 차거운 바람에 앙상한 가지들을 애처롭게 흔들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주학민은 살구꽃, 개나리꽃이 구름같이 피어나고 벌나비가 춤추며 날아에는 봄날을 맞이한것만 같았다.

봄날의 환희와 약동하는 젊음과 솟구치는 기상이 승용차안에 차넘친다.

주학민은 70나이인 자기가 지금 신기하게도 급작

스레 젊어지고있음을 놀라움속에 의식했다.

이건 분명 문자 그대로 갱소년이다.

갱소년이라?!

그는 더더욱 놀라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런게 있을수 있나? 피차 늙는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생의 법칙이다. 그런데 늙은것이 어떻게 젊어질수 있는가? 하기에 나는 지금껏 갱소년이라는걸 믿지 않았다. 헌데 지금 나의 정신과 육체에서는 분명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어제 밤 번거롭고 무거운 사색과 고민속에 모대기였지. 내가 확실히 늙고 기력이 진했으며 그래서 더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중임을 감당할수 없게 되었다고 뼈아프게 자인하면서 안타깝게 몸부림을 쳤지.

그랬다.

신임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해방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되어왔다. 그 중요성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당과 국가, 전체 인민들의 관심사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시었다.

오늘에 와서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되었다. 그런즉 그 전초선을 책임진 일군의 어깨가 가벼울수 있는가.

주학민은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나라의 과학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것이고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것인가? 과학자들의 수준을 높이며 발전된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연구소들을 새로 더 내오고 과학기술연구와 생산을 결합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뒤엉키는 속에 하나의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정구역을 내오도록 하시고 그것을 평양시에 소속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은정구역을 과학도시로 전망성있게 꾸리기 위해 수령님사랑이 깃든 도시형 성안을 몸소 보아주시고 나라에서 해마다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기에 과학자들은 좋은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한 수도의 과학연구자료기지들과 교육기관들에 오가며 과학연구사업을 하고있었다.

지난해 어느 한 과학지구에 그림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은하과학자거리가 일떠서 새집들이를 했다.

그것은 은정구역에서 사는 과학자들의 찬란과 부러움을 자아냈다.

주학민은 새해건설계획을 의논하러 과학원에 온 라은철부부장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놓고 욕심을 부려보았다.

라은철은 몹시 나무라는 기색으로 한마디 했다.

《그건 좀... 너무하구만요.》

이런 나무람을 처음 받는 주학민은 노여웠다.

라은철은 건축설계가로서 은정과학지구의 살림집들을 설계할 때 자기와 친숙해진 사이이다. 그는 나이나 학력, 과학기술성파로 보아도 원장선생은 자기의 선배라고 하면서 지금도 존경해오고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다니?!...

《너무 노여워하진 마십시오. 원장선생도 나도 한때야 한칸짜리 집에서 밥상을 마주하고 과학기술자료도 보고 설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수십년전의 일이구...》

《이 은정구역에 서재와 목욕실까지 달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서 입사를 할 때 선생은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이 글썽해서 더 바랄게 없다고 했었지요?》

주학민은 난처해졌지만 위낙 어떤 론쟁에서나 지기를 싫어하는 성미라 그냥 고집스레 뇌이였다.

《그건 십여년전에 있는 일ियो. 말하면 견마잡히고싶다질 않소.》

《그 심정이 리해됩니다. 그러나 나라형편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전국도처에서 기념비적건축물

들을 일떠세우고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도 그렇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동관개간, 고산과수농장건설도 내밀어야 합니다. 래년엔 여기 은정과학지구에도 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짓고 새로 내온 연구소들의 건물도 지어야지요. 그런데 은하과학자거리처럼 건설하려면 투자를 얼마나 더해야 하는지 타산을 해보셨습니까?》

주학민은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철없이 굴었소. 종전에 계획된대로 합시다.》

그러고보면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는 사실 아닐 할 걱정거리였다.

문득 고요를 깨뜨리며 전화종이 울렸다.

어느새인지 침대에서 일어나 서성거리던 주학민은 의아한 기색으로 전화기앞에 다가갔다.

문자판에 새겨진 시간을 보니 새벽 다섯시였다.

이처럼 이른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건 드문 일이다. 송수화기를 드니 교환수의 흥분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너무도 뜻밖이였다.

턱 굳어졌던 주학민은 서둘러 옷차림을 바로하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국가과학원 원장 주학민 전화를 받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친근하신 그 음성에 주학민은 대뜸 눈굽이 후터워졌다. 그는 갑자르며 삼가 인사의 말씀을 올렸다.

《이거 안됐습니다. 새해에 들어가 제일먼저 과학원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바쁜 일들이 생겨서 미루다니니 이제야 전화를 합니다.》

바쁜 일들... 그것이 어떤 일들인지 주학민은 다 소나마 알고있었다.

지난해말 당안에 나타난 현대판종파오물을 쓸어버리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는 그 바쁜신 속에서도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분, 그이께서는 설날을 계기로 나라에서 말아키우는 아이들과 양로원의 로인들, 과학자들에게 물고기를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바를 모르는 아이들과 로인들, 과학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신분도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내가 새벽잠을 깨운게 아닙니까?》

주학민은 송구스러워 서둘러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그저 서성거리던중입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저...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당과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려면 새해벽두부터 비약을 해야 할텐데 목표가 너무 아름답니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아

서 그럽니다.》

《음, 방도라? 높이 세운 목표를 빨리 점령하자면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몰고가는 과학자들의 심장마다 불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은정과학지구 살림집건설계획을 놓고 밤새 여러모로 생각을 깊이 하다가 원장선생과 의논을 해보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학원에 나왔던 라운철부부장이 실례를 그대로 보고드리게 분명했다.

공연한 욕심을 부려서 온 나라를 돌보시기에 분망하신 원수님께서 마음을 쓰시며 밤을 지새우시게 했다고 생각하니 주학민은 죄송스럽기 그지 없었다.

《은정지구의 과학자들이 은하과학자거리를 몹시 부러워한다지요?》

《예. 하지만 저...》

《올해엔 은정지구에도 그에 못지 않는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과학원지구를 번듯하게 정리하고 새로 내온 연구소의 건물들도 지읍시다. 그러자면 뭐가 요구되니까?》

주학민은 고마움에 목이 짹 잠겨서 갑자르기만 할뿐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어려워하지 말고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장서 뛰면서 다 풀어주겠습니다. 은정지구엔 건설하는 과학자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공하고 입사를 해야 합니다.》

주학민은 어마지무 놀랐다.

아직은 시작도 하지 못한 방대한 건설을 불과 한해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다니?! 그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엔 도저히 불가능한것이였다.

《과학원지구의 건설총계획도와 살림집구역형성안이 있습니까?》

《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과학원을 현지도하시실 때 친히 보아주신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의논합시다. 내인차 과학원에 나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지만 주학민은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들어천체 그냥 서있었다.

지금 몇시인가.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과학원에 나오시다니... 밤을 꼬박 밝히신 그이께서 이처럼 이른새벽에 새날의 사업을 시작하시는가.

젊음과 건강에 넘친 호탕한 웃음소리, 시원시원하고 명쾌한 그이의 음성이 수화기에서 그냥 울려나오는것만 같았다. 삼가 귀를 기울이니노라니 맑고 시원한 샘물이 마음속에 흘러드는듯 번거롭던 머리가 거뜬해졌다. 나이탓인지 무리해서인지 요새 나른하던 몸에서 우썃우썃 새힘이 솟구친다. 심장이 세차게 뛴뛰고 설레이는 가슴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른아침에 받아안은 그 벅찬 시적이고 격동적

인 흥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만져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운전하시는 승용차를 타고 달리고있는 지금 이 시각엔 도저히 누를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여라

...

그래 못 잊을 그 봄날이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이듬해 화창한 봄날,

물날은 군복차림으로 간석지조사를 나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와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도시설계로 밤을 패던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들놀이를 가는 소년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다.

채더미를 헤치고 솟아오르는 평양, 춤추며 흘러가는 대동강, 강기슭에 파랗게 움트는 청신한 새싹들, 구름처럼 피어난 살구꽃, 실실이 푸르러가는 버들가지들...

돌이켜보니 어제만 같은데 세월은 얼마나 흘렀는가.

그날 주학민이 부모들과 함께 심은 애어린 버드나무가 오늘은 아름드리거목으로 자랐다. 어제날 철부지소년의 머리엔 흰서리가 내리고... 아니, 그 흰서리가 따스한 해빛에 녹아버렸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거슬러 젊음이 찾아왔다. 가슴은 설레이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

...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결에서 옆구리를 쿡 찔렀다.

주학민은 흠칫 고개를 돌렸다.

결에 앉은 라운철부부장이 아연해하는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고있었다. 주학민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듯 한 표정으로 부부장을 마주보기만 했다.

이때 승용차가 멈춰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원장선생, 지금 제정신이요?》하고 라운철은 나무람을 했다. 《왜 자꾸만 흥얼거립니까? 결에 앉은 내가 막 급하구만요.》

아뿔싸! 내 이 무슨 망동인가?...

주학민은 자신을 탓하면서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양양되고 격동된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부부장동무, 난 지금 화창한 봄날에 부모님들의 손목을 잡고 들놀이를 가는 심정이요. 흥이 나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고싶은걸 애써 참는다는게 그만... 이거 정말 안됐소.》

나무라기는 했지만 사실 라운철의 심정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어제 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빛이 환한 집무실에서 도시형성안과 살림집 및 봉사건물들의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다가 라온철을 맞이해주셨다. 집무락에는 라온철이 올린 은정과학지구건설과 관련한 문건도 놓여있었다.

《부부장동무, 아무리 자금과 로력이 많이 들어도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좋은 살림집들을 지어줍시다. 은정지구엔 은하과학자거리와 쌍을 이룰수 있는 거리를 또 하나 일떠세우고 동시에 새로 내온 연구소들의 건물들도 현대적으로 잘 지어줍시다. 과학자들에게는 아낄것이 없습니다.》

라온철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정녕 이것은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재사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단이었다.

밤을 꼬박 지새우시며 설계도면을 보아주시고 건설에 드는 로력과 자재, 설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타산을 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최종결심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날이 밝기도 전에 과학원에 나가시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은정과학지구엔 새로 일떠설 과학자거리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부르자고 친히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시고 과학자들을 한품에 안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부부장동무, 우리 과학자들을 보시오.

다들 멋쟁이입니다. 차림새만 봐도 모두 품위가 있고 고상하면서도 지성이 느껴지고 한결 젊어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입은 고급양복과 외투는 물론이고 그들이 신은 겨울구두, 지어 넥타이와 속내의까지 다 미래상점에서 공급한것이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내오게 해주시고 현지에 친히 나가시여 상점이름까지 지어주신 그이이시건만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잊으시고 이처럼 기뻐하신다.

《과학자들을 내세우고 우대해주는데 대해서는 인민들도 다 좋아합니다. 올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위성과학자주택구역을 완공하고 과학자들을 입사시키면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될것입니다. 난 그날을 그려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슴 뭉클한 기쁨을 느껴보려고 혁명을 하는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학민과 라온철을 자신의 승용차결로 데리고 가시었다.

《그 기쁨을 마련하자고 나도, 원장선생과 부부장동무도 밤을 켜는데 우리 함께 경치좋은 호수가에 가서 피곤을 쫓 풀어봅시다.》

그래서 떠난 길이였다.

그러니 더 격동되고 흥분해서 그만에야 동심에 사로잡힌 그들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숫눈길을 헤치고 나지막한 언덕우에 오르시여 주위를 살피고계시었다.

주학민은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부부장동무, 그 경치좋은 호수가 어디에 있소?》

《글쎄요, 혹시 연풍호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작년 여름에만도 그곳에 두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호수가의 경치가 참 좋다고 하시면서 휴양소를 지으면 아주 멋있을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 이제 연풍호로 가는 지름길인가? 길이 없어졌구만.》

라온철은 고개를 잔뜩 빼들고 눈을 밝혔다.

원장의 말따따나 흠뻑지가 일던 토사도로마져 좁은 오솔길로 가늘어지다가 아예 눈속에 파묻혀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연풍호로 곧추 질러가는 길을 찾고계시었다.

연풍호!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황금》으로 언제를 쌓아 마련해주신 산중의 바다, 열두삼천리벌에 생명을 보내주어 세세년년 만풍년을 안아오는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젖줄기, 넓고 넓은 그 기슭엔 울창한 숲이 자라나 절경이 펼쳐졌다.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달리는 하얀 유람선, 햇빛이 눈부신 갑판우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호수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계시었다.

유람선이 일으킨 파도가 줄지어 춤추며 밀려나가니 호수에 비친 수림도 바람을 맞은듯 춤추며 일렁거린다. 맑게 정화된 공기, 그윽히 풍겨오는 숲향기, 신이 나서 침병침병 뛰어오르는 물고기들... 현지지도의 길에서 덧쌓인 피로가 순간에 날려간다.

육에서 육을 고르시듯 아름다운 경치에서도 더 아름답고 풍치수려한 명당자리를 고르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만족하신티듯 환하게 웃으시며 손수 갑판우에 군용지도를 펼치시고 붉은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시었다.

...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지금은 몹시 추운 겨울이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눈이 덮여어 풍치도 달라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그 군용지도를 펼치시고 작년 여름에 두차례나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시며

점을 찍어두신 마음에 꼭 드는 그 아름다운 기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으시는것이였다.

아름다운 기슭, 그것은 명당자리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꿈이며 리상이였다. 하기에 헛걸음을 하거나 예돌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야 했다. 바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이 비약의 나래를 펼칠 비결이 있음을 동행한 두 일군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싶은것이 그이의 심정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차피 이제부터는 길 아닌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며 지도를 접어드시고 승용차로 돌아오시였다.

승용차는 생눈길에 두줄기의 바퀴자리를 뚜렷이 찍으며 달리기 시작했다. 겨울에도 푸르싱싱한 소나무와 잣나무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을 잔뜩 꼬부린 넓은잎나무들, 누렇게 말라버리고 거의나 눈에 파묻힌 잔디밭들이 차창밖으로 휙휙 지나간다. 차체를 스치다가 툭 부러져나가는 나무가지들도 있었다. 승용차는 몹시 들추었다.

주학민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조이였다.

온 나라를 돌보시느라 하셔야 할 일이 많고많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죽이나 시간이 긴장했으면 이 좁고 험한 생눈길로 질러가시랴.

승용차는 생눈길을 헤친다기보다는 뚫고나갔다.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고있었다. 차라리 넓은 포장도로를 타고 그냥 전속으로 내달렸더라면 지금쯤 호수가에 가닿았을수도 있다. 그래서 질러가려다가 예돈다는 말이 생겨난게 아닐까.

문득 의문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이하어 부디 이 험한 생눈길로 차를 몰아가시는것일가? 지도와 지형을 대조해보시며 차길을 잡으시는걸 보면 단지 시간을 단축하시려는것 같지 않으신데...

주학민은 차가 들출 때마다 등골이 찌릿찌릿하고 짝 틀어쥔 주먹안에서 진땀이 났다.

다행히도 생눈길의 바닥이 좀 고르로와졌는지 차의 흔들림이 적어지기 시작했다. 갈수록 수림이 울창해진다. 무성한 잎새와 가지마다에 흰눈을 떠인 소나무와 잣나무, 수삼나무와 종비나무들, 거칠게 생긴 굵은 참나무들과 몸매가 날씬하고 하얀 보나무들... 양지쪽의 눈이 녹은 공지에는 잠판목들 사이에 누래진 잔디밭이 드러났다.

숲이 대문을 열어제끼듯이 광옆으로 갈라지자 흰 눈일색인 드넓은 호수가 시창을 짝 채우며 한눈에 안겨들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승용차를 세우시고 뒤좌석에 앉은 두 일군을 돌아보시였다. 《다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주학민과 라운첼은 초긴장으로 굳어졌던 몸을 쭉 펴며 심호흡을 했다. 차거우나 샘물처럼 맑은 공기가 폐장 깊숙이 흘러든다. 심신이 대뜸 거뜬해졌다.

마치도 깊은 산속에 들어온것만 같았다.

《경치가 어떻습니까?》

주학민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좋습니다. 피곤이 쭉 풀립니다.》

《주인의 마음에 드니 합격입니다.》

주인이라니?

주학민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돌아보니 라운첼부부장도 뜻밖인지 어리둥절해서 마주보았다.

《여기는 지금도 좋지만 꽃이 피고 록음이 우거지면 정말 볼만 합니다. 나는 이 명당자리에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바라지도 못한 너무도 분에 넘치는 사랑이고 은정이였다.

《나는 우리 과학자들의 휴양소를 어디에 지어줄것인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금강산이나 칠보산, 송도원이나 통암포도 좋지만 거리가 멀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떠세울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뿔수록 가까우면서도 경치가 좋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이 바다처럼 차넘치는 여기 연풍호의 아름다운 기슭에 자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운첼부부장을 돌아보시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휴양소의 건설주도 내가 되겠습니다. 동무는 시공주가 되어야 합니다. 시공주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라운첼은 몹시 흥분하여 말씀드렸다.

《정말 명당자리입니다.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휴양각들을 지으면 볼만 하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게 각별히 강조하시였다.

《음, 부부과학자들이 사용할 휴양각도 있어야 합니다. 과학탐구의 길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한생의 길동무가 되어 헛치 않은 창조의 나날을 함께 보내는 그들이 휴양도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 호뭇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위가 다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였다. 자애에 넘치신 그 모습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고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친아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이께서는 흰눈이 발목을 치는 호수를 여기저기 걸으시며 두손으로 휴양각들과 식당, 목욕탕, 문화회관의 모양새를 그려보이시며 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를 심고 포도나무다라박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부장동무, 휴양소엔 지열에 의한 뎡난방체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구와 정구, 바드민톤을 할수 있는 운동장도 꾸려줍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얼어붙은 호수에 들어서시여 뭔가 가능해보시였다.

《갈수기에 물이 줄면 호수에 잠겼던 부분이 드러나는데 불맛이 없을겁니다. 그러니 수륙선 옷쪽에는 하얀 바다모래를, 아래쪽엔 자갈을 깔아줍시

다. 그러면 호수에 들어가 미역을 감은 휴양생들이 기슭에 나와 모래밭에서 햇빛쪼이기를 할수 있습니다.》

주학민은 내심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호수에서 해수욕하는셈이다. 얼마나 이상적인가.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아쉬운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가만... 겨울철에 휴양을 오는 과학자들은 어떤다? 그들이 섭섭해하겠구만.》

우리 과학자들을 그렇게까지 위해주시다니...

주학민은 얼어붙은 호수를 가리키며 그들은 스케트를 타면 될거라고 말씀드렸다.

《스케트를 탄다? 거 이왕이면 스케트도 타고 수영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겨울철에 어떻게 수영을?!

주학민도 라온철도 의아해서 눈이 둥그래졌다.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맘먹고 휴양소를 건설해 주는데 실내수영장도 지어줍시다.》

실내수영장까지 지어주시다니?!

너무도 분에 넘친, 그야말로 꿈에서도 바라지 못한 실내수영장이어서 주학민은 감사의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온철부부장에게 실내수영장의 크기와 형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아름답드리로송이 호수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장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걸음을 멈추시고 길죽한 돌을 세워 높이를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보시였다.

《여기에 불고기를 하면서 맥주도 마실수 있는 장소를 꾸려줍시다. 과학자들이 낚시질을 해서 잡은 물고기로 어죽을 쑤어먹을 때 땅가마를 걸수 있게 이렇게 큼직큼직한 돌들을 놓아줍시다. 어떻습니까? 휴양기간엔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수가에서 떠들썩 천렵놀이를 하는 과학자들의 흥에 겨운 모습을 그려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엄동설한에도 얼지 않는 사랑의 바다에 행복이 물결친다. 수영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다투어 물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친다. 험치 않은 탐구의 나날에 덧쌓인 피로가 순간에 녹아버린다. 몸도 마음도 수영장의 맑은 물처럼 새파랗게 젊어진다. 수영장에서 나와 식탁을 마주하고 거품이 부글거리는 맥주를 마시며 사색에 잠길수도 있다. 여름엔 시원히 미역을 감고나와 불고기판주위에 둘러앉아서 열기띤 론쟁도 벌리게 된다. 이처럼 휴양의 나날에도 과학은 전진한다. 더 왕성하게 정열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뚫고나간다.

주학민은 갑자기 목메인 소리로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은 지난 기간 너무도 한 일이 없는데 이처럼 꿈에서도 바랄수 없었

던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시니 충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학민을 가볍게 나무라시였다.

《대원수님들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우리 과학자들이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바라고 인민들이 바라면 돌에서 비단실을 뽑고 콧수가 아니라 석탄으로 광석을 녹여 주체철도 뽑아내고 크링카도 구워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쏘아올린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성실하고 고지식하며 과학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생각밖에 모르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 당은 시련의 나날에도 불패의 군력을 더 억세게 다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강성국가건설의 선두에서 돌파구를 열어가는 우리 과학자들이 제일먼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것입니다. 그것도 먼 앞날이 아니라 한두해안으로!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자들속에서는 리승기박사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주학민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이 부셨다.

사회주의부귀영화!

그것은 꿈과 이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있는 위대하고 장엄하고 찬란한 현실이였다.

미래상점에서 최상급의 생활필수품을 공급받는 과학자들이 올해중으로 일떠서게 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생활하며 여기 경치 좋은 휴양소에 와서 탐구의 나날에 쌓인 피로를 풀며 즐기게 되면 더 바랄것이 과연 무엇이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들놀이를 가던 유년시절의 심정으로, 철따라 새 교복을 입고 야영기를 날리며 마음껏 뛰놀던 소년시절의 마음으로 그는 온 세상에 목청껏 웨치고싶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긴 조선의 과학자들은 행복하다고, 세상에 부럽었다고...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소 아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시장하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내가 빈손으로 오다보니 대접할게 없구만요.》

주학민은 서둘러 대담을 올렸다.

《오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김정은동지께서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데 그만 돌아갑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승용차에로 다가가시다가 뒤따르는 두 일군을 돌아보시며 의미심장하게 물으시였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주학민은 얼른 말씀드렸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의 형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평론은 과학론문이 아니며 그 어떤 연설이나 웅변도 아니다. 문학평론의 문체는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맛이 있어야 하며 친절하고 흥미있어야 한다. 평론의 형식을 론설체로만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담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론쟁하는 형식으로 쓸수도 있고 운문형식이나 수필식으로 쓸수도 있으며 서한체, 일기체로도 쓸수 있다. 작가론적인 평론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창작경험을 깊이있게 분석한 작가론은 작가에게 영예감과 자신심을 줄수 있으며 창작에서 이룩된 독창성과 개성화의 모범을 일 반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큰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길은 지름 길이지만 너무 험합니다.》

《초행길이야 험한 법이지요. 나는 우정 험한 이 생눈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두 일군은 어리둥절해서 마주보았다.

《우리가 헤쳐온 생눈길은 이제 일떠서게 될 위 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휴양소까지 제일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나는 과학자들이 휴양을 갈 때 버스를 타고 철도역에 나가 기차를 타고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게 하지 말고 집앞에서 버스를 타고는 곧장 휴양소에 가게 하자는것입니다.》

주학민의 가슴속에선 뜨거운것이 솟구쳤다.

이처럼 다심하시고 세심하신 자애로운 아버지를 우러러 백번천번 감사의 인사를 울리고싶은 심정 이였다.

《저 생눈길에 도로를 넓게 닦고 먼지가 날리거나 차가 들추지 않게 콘크리트로 포장합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손으로 비행장의 활주로처럼 넓고 곧추 뻗게 될 지름길을 형용해보이시였다.

《그러니 차가 들춰도 온 길로 돌아가면서 다시 잘 살펴봅시다.》

승용차는 전조등을 환하게 켜고 귀로에 올랐다.

길이 험하니 올 때처럼 몹시 들추었다. 하지만 주학민은 승용차가 넓고 곧게 뻗은 큰길로 내달리는것만 같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게 깊은 뜻을 담아 크게 말씀하시였다.

《불필요하게 애돌것 없이 우리의 과학기술도 이렇게 지름길로 갑시다.》

《명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할 방도를 명쾌하게 깨우쳐주시는 그 말씀에 주학민의 가슴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에게는 지금 승용차가 아니라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우리의 꿈과 이상인 강성국가의 령마루로 치달아오르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렇다!

기관차의 조종간을 틀어쥐신 분은 자애로운

아버이이시며 스승이신 김정은동지이시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조선을 온 세상이 경탄의 눈길로 우러러보고있다. 우리앞을 감히 가로막으려던 원수들은 기절초풍하며 황급히 옆으로 비켜선다. 철길을 구르는 렬차바퀴소리가 승전고처럼 울려퍼진다.

주학민은 위대한 선군령장이 친히 물고가시는 기관차가 드디어 로반을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신비경에 빠져들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더는 누를수가 없었다. 라온 철부부장의 심정도 다들바 없는지 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들썩이며 흥분한 소리를 냈다. 용광로 처럼 끓어번지는 걱정, 질주의 패감이 차안에 차고넘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일군을 돌아보시며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기분들이 몹시 좋으셨구만.》

주학민은 자기들의 심정을 너그럽게 헤아려주시는 그이께 어린애처럼 졸라대듯 말씀드렸다.

《이거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싶습니다.》

라온철도 결달아 청을 드렸다.

《저도 그 심정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패히 승낙해주시였다.

《좋습니다!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십시오.》

두 일군은 승용차의 진동에 맞추어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행복에 취하고 사랑에 취한 과학자들의 마음을 담은 심장의 노래는 지름길로 질주하는 승용차에서 높이높이 울려퍼졌다.

원수님과 원아들

복받은 우리 미래여

하늘맑고 해빛도 부신 6.1절날
원수님은 애육원을 찾으셨네
기쁨속에 웃음속에
원아들과 함께 보내셨네

온 하루 현지도의 피로도 잊으신듯
저물도록 애육원에 계시었네
원아들의 춤노래에서
더없는 락을 찾기도 하시며

하나같이 포동포동 귀여운 원아들
무릎에도 앉히시고 간식도 쥐여주시며
가슴 가득 실리는 행복감에
몽클해지기도 하시며

아, 다심하여 그이 정 끝이 없으시네
시간을 기다려 저녁밥먹는 모습도 보아주시고
가실 땐 교양원들의 손 꼭 잡으시고
원아들을 말긴다 절절히 말씀하셨네

아, 높고높아 그이 뜻 하늘처럼 높이시네
가시던 걸음 몇번이고 멈춰서시여
원아들모두를 나라의 역군으로
영웅들로 키우라 뜨겁게 당부하셨네

한번 전방에 나서시기만 해도
적들은 숨도 못 쉬는 강철의 령장
아이들만 보시면 너무 고와
만면에 미소 가득 안아주시는분

6.1절의 그날 온 세계가 보았다네
원수님의 축복속에 끝없이 창창할
이 나라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아, 복받은 우리 미래여

(평양애육원에서)

장혜명

아버지

육아원이 생겨 처음이라는 그 일은
바로 원수님 오신 날에 있었다
한번도 말해보지 못한 원아가
첫말을 하였다
—아버지!

구울듯 계단을 달려내려오는
원아들이 넘어질세라
두팔 벌려 마주오시는 원수님
그 넓으신 품에 파고들며
—아버지!

나는 모른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어떻게 첫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도 말해보지 못한 원아가
어떻게 아버지란 말부터 하였는지

허나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그 성장을 보아오면서
내 하나만은 안다고 할수 있나니
세상에 나 터치는 첫말은
단순히 입에 올리는 언어가 아니더라

짧으나 그 한마디는
피와 살을 주고 숨결을 준
아버이를 찾는 강렬한 본능의 부름
혈육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내비치지 않는...

그 어떤 수식도 가식도 없는
깨끗한 그 한마디는
자기를 다 말기는 무한한 믿음
모든 희망과 소원이 담긴
아이의 온 세계...

떨어질세라 품에 꼭 안긴 원아
티없이 맑은 눈동자에
순결무구한 가슴속에

우리러 원수님 영상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새겨졌으리라

마침내 분화구를 찾은 용암이
지각을 뚫고 뿜어져나오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나온 말
원아는 부르고부르리라 한생 끝까지
—아버지!

(평양육아원에서)

아이들이 따르는분

(보육원의 이야기)

단발머리시절부터 오늘까지
원아들과 함께 해온 나날
정말이지 처음 보았답니다
우리 원수님을
그처럼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원수님 찾아오시면
울보채던 애도 똑 그치고
장난꾸러기는 갑자기 어른이 된듯
낮가림에 결을 안 주던 새침테기가
무작정 달려가 안긴답니다

세상에 속일수 없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
두볼을 쓰다듬고 다독여준대도
그 손길에 살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이들은 육감으로 안답니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주지 않는것이
또한 아이들의 마음
얼굴에 웃음담고 손을 내밀어도
그 웃음에 정이 없다면
아이들은 따르지 않는답니다

원수님 찾아오시면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
그런데 철은 왜 그리 없는지
종이를 벗겨달라 간식도 내밀고
아니 글썸 뽀뽀까지 해달랍니다

어느분의 앞인줄도 모르고
저마다 안아달라 매달릴 때면
너무나 안타까와 말리려 해도
그런 땐 보육원의 말도 안 듣는답니다
원수님앞에 으쓱해져서...

한생의 체험으로 저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아이들이 제일로 따르는분
그분은 오직 우리 원수님뿐이십니다

(평양육아원에서)

부모의 사랑앞에

고명한 학자는 말했더라
인간은 사랑의 첫 감정을
부모와의 뉴대에서만 알게 된다고

당신의 높은 학식을 존중하노라
사색과 탐구의 날들에 경의를 표하며
내 하나 묻노니
인간에게 최초로 간직된다는
부모의 사랑이란 어떤것인가

가슴헤쳐 안아준 어머니젖품인가
엄하면서도 웅심깊은 아버지눈빛인가
(범박한 질문을 용서하시라)
하나 당신이 그렇게 피력했으니

학자여 당신의 그 론술이 세상 어디서나
보편성을 가진다고 생각지 마시라
나는 반박할수 있노라 학술로가 아니라
여기 평양애육원 원아들의 생활로써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낮이나 밤이나 살피주시는 아이들
때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지만
원수님품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원아들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의 정 넘어
오만자루 천만자루 품들여 키우시는
우리 원수님 사랑
부모가 있다 한들 어이 따르랴
부모의 사랑 합친들 어이 비기랴

원수님과 원아들이 맺고사는
혈연보다 뜨거운 이 뉴대앞에서
학자여 당신의 그 주장은 맞는것일가
(편달을 용서하시라)
그러나 아시라 조선의 원아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앞에 원수님사랑이 있다!

(평양애육원에서)

자 장 가

자장자장 고운 아기 잠 잘 자거라
잠 안 자는 울보아기 미워지구요
잠 잘 자야 이쁜 얼굴 고와진단다
원수님의 축복받은 내 사랑 원아아
자장자장 어서 자라 꽃처럼 피여라

자장자장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잠 안 자는 울보아기 크지 않구요
잠 잘 자야 빨리 커서 학교 간단다
원수님의 축복받은 내 사랑 원아아
자장자장 어서 자라 박사동 되여라

자장자장 장수아기 잠 잘 자거라
잠 안 자는 울보아기 약해지구요
잠 잘 자야 인민군대 장수된단다
원수님의 축복받은 내 사랑 원아아
자장자장 어서 자라 영웅동 되여라

(평양애육원에서)

우리 애육원

우리 사는 수도의 한 거리에
아담하게 서있는 애육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 없다네
아침에도 한낮에도 늦저녁에도

향기로운 첫물과일 안겨주고
방금 트랙을 나서는 저 사람들
우리 농장과 우리 애육원
인정많은 시외의 농장원들이라네

새로 만든 고운 완구 손에 들고
싱글벙글 들어서는 저 사람들
우리 공장과 우리 애육원
혁신자로 소문난 로동자들이라네

하는 일 달라도 수도의 누구나
애육원에 마음 두고 산다네
우리 학교와 우리 애육원
우리 인민반과 우리 애육원
...

아, 생각도 깊어지네
누구나 찾는 우리 애육원
작은 보파리에는 임자가 있어도

고아는 임자가 없다 했건만

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화목한 내 나라 사람들모두가
원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네
형님 누나로 한피줄 잇고 산다네

(평양애육원에서)

하늘과 땅차이

(자본주의나라에서 온 작가를
만난적이 있었다.)

그

조선의 제도가 좋다 하면
여기 와보지 못한이들은
제잡담 선전이라 생각하겠지만
좋은것을 나쁘다 할수는 없는것
작가의 량심이 허락치 않기에

나

심각한 문제가요?
작가의 량심까지 내세우는걸 보면...

그

아니, 자그마한 생활의 이야기
아들딸 키우는 부모라면
세상 누구와도 나눌수 있는 이야기

서반구든 동반구든 사는 곳 달라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제도는 달라도
부모된 사람이라면 다같은 마음

애오라지 소원은 자식들이 잘되는것
말해놓고보니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적주제가 되는군요

나

듣고보니 그렇군요

그

네가 살면 나는 죽어야 하고
남의 자식 잘되면 내 자식은 망해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식을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부모들뿐

내 집문과 잇닿아 사회로 뻗은 길에는
걸음마다 술집과 도박장 유괴와 폭력배...
아들딸 망치게 하는 함정만 있을뿐
나 아니면 내 자식 누구도 책임 안 지는 사회

이럴진대 고아들의 운명이야...
생존도 기적이지만 요행 살안대도
거칠고 피박하고 이지러진 그들이
아, 불쌍한 그네들 갈길은 류량아나 범죄자
오죽하면 사회의 오물이라 하겠습니까

나

사람을 두고 오물이라니?!...

그

물론 이해하지 못할줄 압니다
체류하면서 들어서도 알았고
참관하면서 눈으로도 확인한바
조선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금지로 의무로 여기는 나라

집에서 부모말 안 듣는 애꾸러기라 해도
조직과 집단의 사랑이 바로세워주고
설사 부모없는 애들이라 해도
따뜻이 보듬어 알차게 키워준다니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자식을 둔 온 세상 부모들의 유토피아
그 하나만으로도 조선은
내 사는 땅에서는 흉내도 못낼 지상천국

나

축하합니다
좋은 글감이 되겠군요

그

아니, 예까지 말이 오고보니
서글프게도 쓸수 없다는 생각
아마 독자들은 인정하지 못할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꿈같은 이야기니...

적중한 표현은 못되겠지만
조선과 내 사는 곳은 하늘과 땅차이
하늘의 이야기는 땅이 알수 없고

땅의 이야기는 하늘이 모른다고나 해야 할지...

X

우리 원수님 또다시 찾아주신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아
취재길에 오른 내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추억의 한토막

류다른 그 추억의 물결우에
내 정든 원아들의 능금불이 떠올라
다시 또다시
사회주의고마움에 가슴 젖노라

(취재길에서)

대동강아 노래하라

바야흐로 개원의 날 기다리는
원아들의 집 행복의 요람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아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세월을 이어 너의 물결우에 비졌더냐

아이들을 나라의 보배라 하시며
김일성대원수님
장대재우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세워주신 날
철썩 처절썩 모란봉 청류벽과 박수를 치며
기쁨에 넘쳐 너는 흘렀지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김정일대원수님
만경대에 학생소년궁전을 세워주신 날
넘실 너넘실 만경봉을 굽이돌며 춤추며
자랑에 넘쳐 너는 흘렀지

아이들이 웃어야 나라가 밝아진다 하시며
김정은원수님 세워주신
원아들의 집 비껴신고 흐르는 대동강아
풍치 수려한 명당자리에 솟아난 웅좌
물결우에 비껴 너는 더욱 아름답구나

흘러라 대동강아
멈추지 않는 너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싣고 흐르라
억천만 너의 물방울들이 그대로 노래가 되어
원수님의 열렬한 미래사랑을 전하고전하라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한때 조선사람들은 독립군의 유일한 녀장부 리관린을 놓고 〈만록총중 일점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빨찌산을 핵심으로 하는 항일의 만록총중에는 우리 민족이 낳은 수백수천점의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었다.

애국의 일념으로 불라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부담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일제를 조국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원 영 옥

사랑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
언제 한번 자기를 위해
부르신 노래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피워오신
한송이 꽃도 없었습니다

한몸의 피와 살을 바쳐
생명을 주고 젖을 물려주고
자신의 사랑과 정을 다 주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시며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시는 어머니

철없던 그 시절엔 다 물랐습니다
어머니들의 가슴속 간직한 사랑을
찬서리 내리던 창가에도
따스한 웃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꽃피워주던 어머니들

열렬하고 뜨거운 어머니들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바래우며
이 땅을 지켜갈 자식들이 너무도 끝끝해
웃음짓고 손저어주던 이 나라의 어머니들

저 하늘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우주의 정복자들도
대자연개조의 개척자들도
공화국기발을 세계에 휘날려가며
체육강국을 건설해가는 금별의 영웅들도
어머니들의 어엿한 자식들입니다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가슴벌려 안아보는
자식들의 장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들의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평생 어머니들이 바라는
소원의 전부여서
자식들이 걸어갈 인생의 먼먼길에
한평생 고임돌이 되어주신
이 나라 어머니들

자식들의 가슴마다 빛나는 훈장
그 훈장들을 다 모아
어머니들의 가슴에 달아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성공의 꽃다발속에 묻힐 때
그 꽃송이를 다 모아
어머니들이 가시는 길에 펼쳐드리고 싶나니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영원한 젊음을 안고사시는 어머니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 나라 어머니들처럼
아름다운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품에
천만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사는
이 나라 어머니들
우리 원수님만 길이 받들어갈
혁명의 한길에 자식들을 세운
충정의 한마음

어머니들이시여
천만송이 고운 꽃을 플라
꽃다발을 엮어드립시다
어머니들이시여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노래합니다

태양의 미소속에 이 땅은 밝다

김용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령형상창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품위있게, 체취가 생생히 느껴질수 있도록 진실하고 절절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채워주고 수령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새겨주어야 합니다.》

중, 장편만이 아니라 하나의 짧은 단편소설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날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새겨주고 더불어 대원수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편소설 《고향의 미소》(김하늘)가 주는 교양적감화력은 매우 크다.

이 소설을 읽고나면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리념과 자애로운 품모가 다시금 가슴에 사무쳐와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에서 헤여날수 없다.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울적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리광부리듯 스스럼없이 안겨돌아가던 우리들을 사랑의 미소속에 꺼안아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다시 뵈옵는것 같아 가슴이 다 울렁인다.

하다면 이 짧은 소설이 우리를 다시금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아버지수령님의 체취가 생생히 느껴지도록 그린데 있다. 다시말하여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되어 확 끌릴수 있도록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을 친근감이 나게,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품모가 푹 안겨오게 진실하고 절절하게 형상한데 있다.

흔히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랑과 믿음의 철학세계를 그리면서 꼭절많은 인간들의 정치적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거나 이러저러한 리유로 정치생활의 궤도우에서 탈선될번 한 인간을 다시 제자리길우에 올려세워주시고 운명을 건져주시는 숭고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펼치곤 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위인의 생활에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소재를 잡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롭고 친근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그러나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이 안고있는 의미

는 결코 범상하지 않다. 거기에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다.

4월도 중순이 지난 어느날 초저녁부터 내리던 봄비는 새벽에 진눈으로 변했다. 례년에 없던 현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사일이 걱정되시여 오래간만에 만경대로 가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시고 나무리벌에 자리잡은 답촌마을로 가시였다. 마을에 들어서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한집의 지붕우에 눈이 녹지 않은것을 보시고 저것은 분명 서까래가 물러앉아서 지붕물매가 꺾였는가 기와장들이 바로 놓이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들리시였다.

세간넌 자식의 집을 찾은 친부모만이 발견할수 있는 걱정거리였다.

그 집에는 이 고장에 태를 묻고 나이 일흔에 이르도록 농사를 지어온 피살자가족할머니가 혼자 살고있었다. 그는 고향땅을 피땀으로 가꾸어온 공로자였다. 그날은 그가 전연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는 사위네 집에 이사가는 날이다. 그는 유복녀로 낳아 정을 다해 키운 외동딸네 집에 가지만 정든 고향땅을 떠나는 애달픈 마음때문에 표정이 밝지 못하였다. 떠나기는 싫으면서도 한뼘 아버지수령님의 은덕만 받고 살아온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조합의 집이 되는것이 안타까와 떠나기로 용단을 내린것이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리당비서도, 관리위원장도 그의 속마음을 알수 없었다. 오히려 외동딸네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웅당한 걸음으로,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즐거운 길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비친 그늘을 알아주시였다.

하나의 표정에서 열백천을 헤아리시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포착하신것이였을가. 결코 그것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간중의 인간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성인중의 대성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도 자신을 낳아키워준 고향땅 만경대를 그토록 사랑하시였기때문이였다.

이날도 수령님께서서는 고향이 그리워 만경대로 가셨다가 아침에 잠깐 만난 답촌마을할머니의 어딘가 쓸쓸해보이던 모습이 눈에 밝혀와 되돌아서신 걸음이시였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광막한 밀림의 밤에 유난히도 밝은 달을 바라볼 때마다 사무치게 떠오르곤

하던 고향 만경대, 어린시절 장손의 생일이라고 건뎡이것에 닭알 한알을 풀어 작은 보시기에 따로 찌주시던 리보익할머니,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실 때면 건뎡이것병을 잊지 말라고 부판에게 이르는 수령님이다.

그처럼 그림던 만경대고향집뜨락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내주시고 자신께서는 한 농촌할머니의 신상이 걱정되시여 다시 마을로 들어서시었다. 고향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위인이시여서 고향을 뜨기 싫어하는 평범한 할머니의 마음도 순간에 헤아려 주신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더러 할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시라고 진심으로 부탁하시였다. 관리위원장과 그 애인이 친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대답올리자 수령님께서 너무도 기쁘시여 고맙다고 그들의 등을 몇번이고 두드려주시며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침노을처럼 순결무구하고 인정의 대화가 굽이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미소가 온 나라에 퍼져간다. 그 미소속에서 온 나라 인민이 밝게 웃는다.

저 하늘의 태양, 자연계의 태양은 이 세상 만물에 생을 주고 활력을 준다. 그러나 움직이는 비치지 못하며 더우기 사람들의 마음속 그들은 지워주지 못한다.

하지만 만민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크고작은 마음속 그들도 사랑의 미소로 가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활중에서 하나의 평범하고 소박한 세부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만민의 태양이시라는 태양칭송의 송가를 한편의 서정시처럼 엮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소설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친혈육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고향에 대한 사랑이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공허한 웨침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하나의 세부형상과 심리묘사, 한문장의 대사창조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체취가 확 풍기게 형상하고있다.

일부 소설에서 우리는 수령의 형상이 어딘가 시원하게 탁 트이지 못하고 범접할수 없는 경계와 울타리를 친듯 한감을 느낀다. 이것은 작가들이 수령의 내면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판조적으로 그렸기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심리묘사가 언제나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심중의 세계를 그린 심리묘사는 매우 진실하다. 정치적생경성과 멋부림도 없고 철학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중압감을 주는 무게있는 묘사, 심오한 심리분석적묘사

도 없다.

(어딘가 쓸쓸해보이던 녀인, 지붕우에 남아있던 진논... 인간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정이 각별한 법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사색은 계속된다.

(그 녀인에게서 고향은 사랑하는 남편과 일가친척들이 피흘리며 쓰러진 땅이다. 그래서 더 억척스레 가꾸고 땀흘려 사랑한 땅이다....)

하다면 한생 살아온 고향을 떠야 하는 녀인의 마음속 아픔은 어떤단 말인가?...)

참으로 진실하게 흘러가는 심리묘사이다.

처녀관리위원장을 두고 속대사로 올리는 아버지수령님의 심중의 세계도 소박하고 평범하고 친근하기 그지없다.

(원, 처녀가 별차기란. 수집어하는데라고는 하나 두 없군. 하긴 이렇게 별찬 처녀니까 분조두 작업반두 말아서 정당 열톤을 해냈겠지. 이제 농장두 꼭 해낼거야. 사랑두 자기 뜻대로 가꿀거구.)

특히 아버지수령님의 생활적이면서도 평범한 대사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체취를 한껏 느끼게 한다.

정중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항용 쓰고있는 공식적인 대사, 생경하고 딱딱한 대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범접할수 없는 경계감을 주고 수령님의 형상과 독자들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결과를 빚어낸다.

이 작품에서 창조한 아버지수령님의 대사는 평범하면서도 의미심장하며 레사로우면서도 친근하기 그지없어 독자들을 수령님께 확 끌리게 한다.

《자자, 어서 받으라는데. 음식을 나누어먹으면정이 통한다질 않나. 마음 맞춰서 일 잘하라는 뜻이야.》

이 대사는 한덩이 남은 주먹밥을 둘로 쪼개여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에게 나누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활적인 이 대사의 밑바탕에는 당, 행정이 합심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이 깔려있다.

《좋은 일이요. 그런데 이젠 나이들이 있는데 늦잡으면 안돼. 농사에만 적기적작이 있는게 아니요. 안 그래?》

관리위원장에서 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진정에 넘치는 대사, 친딸에게만 하실수 있는 정이 도글도글 감도는 대사이다.

《그래— 오랍누이처럼 다정하게 자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 뭐라드라? 고령고령하다가 똥령똥령하는 사이가 됐겠구나.》

이것도 수령님께서 관리위원장과 순철의 관계를 놓고 황해도지방사투리를 써서 놀려주시는 대사이다. 아버지수령님과 관리위원장과의 관계를 대번에 친아버지와 친딸의 사이로 만들어놓는다.

우에서 련거한 대사는 몇개의 실례에 불과하다.

작품전반에 아버지수령님의 생활적인 대사가 보

받아다오 처녀병사들아

한 동 선

남갈지 않아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의 처녀병사들아
그대들을 위해 시를 쓰고싶어
건설장에 달려왔건만
어찌하랴 이 마음엔
영똥한 생각만 자꾸 갈마드는것을...

한스럽구나
내 다만
외동딸의 어머니인것이

만약 나에게
아들이 많다면 후날
저 녀성소대처녀들을 머느리로 맞으리라
일찍시 고운건 말할것도 없고
부르튼 입가에 늘쌍 방글거리는
그 웃음 왜 이리 곱기만 한것인가

사랑스럽다 꿈많은 처녀들
이루고싶던 그 모든것 뒤에다 두고
선군시대 혁명의 군복을 입은 처녀들아
류행복으로 떨치는 아름다움보다
땀흘리는 청춘의 보람을 값높이 산 처녀병사들아

제대된 그날
어머니 기다리는 고향집 문을 열고
어머니 품에 와락 안기며 얼굴 물을세
그대들 속삭일 그 하많은 말중에도 큰 자랑
—어머니 제가 큰 산같은 집을
몇채나 지었는지 아세요?...

말해주어 알라 어머니들 그 사연
말없이 그저 말없이
장한 딸 품에 그러안으리라
그리고 군인건설자 녀병사들을
고향은 영웅처럼 맞이하리라

처녀병사들아 그대들 시집을 갈 때면
가장 눈높은 처녀가 되라
우리 원수님 펼쳐주신 건설의 대변영기에
땀을 바치고 처녀시절을 바친 권리로
가장 훌륭한 배필을 고를 자격을
어머니조국은 그대들에게 주었나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는
그대들 누구보다 떼뻗한 어머니가 되리니
조용히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아기가 꿈나라로 갈 때면
삼날에 번개가 일던 그밤들을 아름답게 추억하라

세월이 흘러
아기가 낄말을 배울 때 되면
그대들 일떠세운 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이름도
또박또박 외우게 하라

세월은 흘러 자식들
어머니의 처녀시절을 묻는 때 있거든
말해주라 건설의 대변영기
어머니는 원수님의 군인건설자였다고

아, 행복하리라
이 처녀들에게 장가드는 총각들은
내 만약 사나이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녀성소대의 한 처녀에게 청혼하리라
그대들 위해 시쓰는 이 순간처럼
일생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바라건대 처녀병사들아
진정어린 시의 다발
소중히 받아다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전투의 기념으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정겨운 축복으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에서—

석처럼 박혀있다.

이처럼 짧은 하나의 단편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격정은 뜨거우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 또한 의미심장하다.

이 한편의 단편소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증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창작의 절대적인 척도로,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형상을 누구나 확 끌릴수 있도록 친근감이 나게,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품모가 폭 안겨오게 그러야 하며 조금도 파장하지 말고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하여 그 체취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감동깊은 세부를 통한 위인적 품모형상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을 놓고—

박현희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문학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예술적으로 꽃피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작품에서 창조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참다운 품모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인간과 그 생활의 전모를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는 소설문학에서 예술적세부의 다양한 선택과 리용은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형상요구라고 말할수 있으며 더우기 그것은 인간성격을 위주로 하는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창작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의의있는 형상방도로 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품모형상을 핵으로 내세우고있는 총서문학작품들의 창작경우 세부형상을 통하여 위인의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는것은 창작성과의 중요한 한 고리로 된다. 그것은 수령의 위인적품모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의 섬세한 생활세부형상을 통하여 더욱 생동하고 감명깊게 표현되기때문이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해방후편 장편소설들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이라는 새로운 생활소재의 바탕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위인적품모를 다채롭고 인상깊은 세부형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해방후편 장편소설들의 세부형상창조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도 소설작품들에 구현된 세부형상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고 인상적으로 밝혀주는것과 동시에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보다 명료하면서도 사색적여운이 깊게 밝혀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이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생동하게 그릴수록 작품에서 말하자고 하는 주제사상은 보다 명백해진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김영희 작)에는 김정숙동지의 손에 퍼렇게 자리가 남은 고등어가시상처에 대한 생활세부가 그려지고있는데 작품에서는 이 세부형상을 통하여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충정의 세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품모와 함께 해방후 녀성문제해결의 위대한 대강을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녀성해방운동사상을 앞장에서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헌신이 있어 수천년을 두고 서리고 맺혀온 녀성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이 보다 생동하고 여운깊이 밝혀지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방공작을 나갔던 대원들이 고등어를 구해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극도의 피로로 입맛을 잃으신 장군님께 대접해드리려고 성의를 다하여 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고등어가 한창 익어갈 때 《토벌》대원들이 숙영지에 기여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의의 전투정황이 조성되었지만 고등어를 놓고 자리를 뜰수가 없어 기름에 한창 구워져 따갑게 익어오르기 시작한 고등어를 한손에 움켜쥐시고 다른 손으로 권총을 쏘시면서 전투정황을 맞받아나가시였다.

전투가 끝난 후 손을 펴보니 손안의 고등어토막은 다 부스러지고 가시만이 그이의 손바닥에 깊숙이 박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귀중한 음식감을 날려보낸것이 너무도 아쉽고 가슴아프시여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참이나 묵놓아우시였다. 이 사연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손에 박힌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아주시고 오소리기름

까지 발라주시며 그이를 달래시었다. 바로 그 고등어가시상처에 대한 사연깊은 이야기를 추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성의 강毅한 사랑과 정에 맞설만 한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바로 그런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새 조국건설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시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여성문제해결의 뜻깊은 방도가 담긴 귀중한 말씀을 하신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등어가시 때문에 아직도 퍼렇게 멍이 든 자신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우리 조선여성들이 지니고있는 순결한 사랑과 정의 거대한 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가슴뜨겁게 새기시며 그이의 뜻대로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갈 나라의 주인으로 키우실 굳은 맹세를 다지신다.

이처럼 작품에서 고등어가시상처에 대한 세부는 위인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움의 인간세계,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감동깊이 펼쳐 보이면서 우리 여성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해방후 우리 나라 여성해방위업이 빛나게 완성되게 되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장편소설 《바람세찬 항구》(림재성 작)에 그려진 부령과 회령사이 갈림길세부형상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충정의 세계를 감동깊이 부각시키면서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드신 김정숙동지의 헌신의 로고가 있어 조국땅 북변에서 복구건설의 첫걸음이 성과적으로 떼여지게 되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더욱 뚜렷하게 밝혀주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류달리 바람세찬 항구도시 청진에서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 그리운 고향 회령에 가닿으련만 건국사업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실 장군님을 그리시며 동행한 녀투사들의 청도 만류하시고 부령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신다.

부령과 회령사이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관철의 동음을 하루빨리 울려가시기 위해 지척에 둔 고향길이 아니라 단호히 부령의 로동계급을 찾아 걸음을 옮기시는 감명깊은 생활세부형상은 참으로 눈물겹고 가슴뜨겁다.

소설에서는 갈림길에 대한 이 극적인 세부형상을 통하여 한두마디 말로써는 다 전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깊이 파헤치면서 새 조국건설에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평양과 멀리 떨어진 조국땅 북변에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될수 있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감명깊이 밝혀주고있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리동구, 리령철 작)에서도 작가의 직선적인 주정토로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의의깊은 붉은별모표에 대한 실감있는 세부형상을 통하여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품모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품위있게 밝혀주고있다.

해방된 새 조국땅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알리는 열병식장을 바라보던 한 녀투사는 름름한 인민군전사들의 군모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먼길을 떠나는 자기의 군모에 김정숙어머님께서 밤을 새워 달아주시었던 붉은별모표를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달아주시었던 항일군모의 그 별이 오늘은 수천수만의 열병대오속에 빛나고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붉은별모표에 대한 세부형상은 태양의 해발과도 같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헌신이 있어 우리의 인민군전사들은 태양의 빛나는 별무리로 삶을 빛내일수 있었으며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주체적정규무력탄생이 하루빨리 앞당겨질수 있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뚜렷하게 밝혀주고있다.

다음으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에서 세부형상의 성과는 그것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작중 인물들의 인물선과 감정선, 사건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형상의 립체성을 적극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이다.

세부형상의 매력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꿰뚫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단면속에 극적인 인물관계와 사건해명의 실마리를 주고 작품의 전반적인 감정조직흐름의 축진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헌정심에게 손수 뚫여주신 대구매운탕세부가 매우 인상깊고 독특하게, 립체적인 줄거리구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안고 그려지고있다.

일찌기 《단발량》으로 봉건을 맨먼저 타파한 신식녀성이 되어 《동아일보》 너기자로 활약하면서 반일투쟁과 녀성해방운동에 온넛을 다 바쳐온 현정심, 총을 들고 팔로군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해방후 아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온 현정심이 수술한 몸으로도 심신을 다 바쳐 녀성해방운동에 투신하였지만 일부 반동분자들의 책동으로 사업상, 생활상 무거운 고충을 겪고있을 때 어머님께서는 몸소 그의 집을 찾으시여 언젠가 그의 아들에게서 들은적이 있었던 대구매운탕을 몸소 끓여주신다.

김정숙동지께서 끓여주신 대구매운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현정심은 그만 뜨거움이 복받쳐올라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그 크지 않은 대구매운탕 한그릇에는 정녕 한 인간이 한생을 두고 간직해온 정과 사랑, 믿음과 기대가 다 담겨져있다.

애젊은 처녀시절 녀성으로서 잘못 짚었던 자신의 운명을 타매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문득 나타나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대구매운탕까지 끓여주었던 지금의 남편, 그 대구매운탕을 정신없이 떠먹으며 것처럼 같구했던 진정에 넘친 사랑을 느낀 현정심이었다. 그 대구매운탕의 인연이 있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났던 잊지 못할 사연을 안고있는 현정심에게 있어서 대구매운탕은 그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이었던 사랑과 정의 열병어리었다.

대구매운탕으로 말하면 대구로 만든것이 아니라 대구지방의 특산물인 소고기로 만든 요리로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지방토배기음식이였다.

어머님께서는 현정심의 지나온 생활속에 추억깊이 새겨져있는 대구매운탕을 그가 정신육체적으로 제일 어려워할 때 손수 끓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해방후 우리 녀성들이 나아갈 길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소설에서 이 대구매운탕세부는 파란많은 현정심의 지나온 생활에 대한 만단사연의 곡절을 보다 립체적인 줄거리구성으로 펼쳐보이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으며 애인도 남편도 대신할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인간적품모를 뚜렷이 부각시키는데서 중요한 축을 지어주고있다.

작품에 형상된 빗집세부도 그러하다. 어머님께서 항일의 전장에서부터 소중히 품고다니시던 빗집, 모서리가 해지지 않도록 연두빛비단천으로 가위를 해씩우고 진분홍진달래꽃송이를 수놓은 멋스러운

빗집, 빗집칸에 얼레빛과 참빛, 골타개, 손거울이 가지런히 꽂혀있는 멋스러운 빗집은 실로 사연깊은것이였다.

치열한 전투를 하시고 장군님께서 손수 구하여 녀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신 참빛이 들어있고 거치른 황야의 싸움판에서도 녀성특유의 알뜰하고 섬세한 몸가짐을 위해 머리단장에 필요한 갖가지 도구들을 정히 마련하고 간직해온 빗집은 녀대원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항일의 녀투사들의 강인한 생활일면을 대변해주는 말없는 증견자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명화와 헤어질 때 굳이 주어보내신 사연깊은 참빛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봉건의 질곡속에 억눌려살아온 함덕례에게 기념으로 주도록 하시였다.

그 참빛으로 덕례의 머리를 몸소 빗어주시며 설움에 찬 그의 마음속 그들을 가시여주시고 우리는 다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딸들이라 하시며 이 빗으로 매일 머리를 비다듬으며 억세게 살아가자고 고무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이시다.

소설에서는 이 빗집세부를 통하여 참다운 녀성해방투쟁의 전통은 항일의 나날속에 이룩되었으며 그 투쟁의 맨 앞장에 우리의 녀투사들이 서있고 바로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봉건의 예측과 질곡속에서 짓눌려온 우리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미더운 역군들로 자라나게 되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 세부형상은 우리 나라 녀성해방투쟁의 핵심으로 된 항일의 녀투사들이 지닌 강인하고 끈진 생활품모를 인상깊게 보여주면서 녀성들을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우리 녀성들에게 가당게 하시려는 김정숙어머님의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더욱 감동깊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이처럼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에서는 감동깊은 세부형상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매우 정중하고 품위있게, 매혹적으로 창조하고있으며 작품의 형상전반도 보다 립체감이 나고 감칠맛이 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품모는 진정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넛을 심어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총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원군시대 여성들의 노래

김려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시집 《조국과 녀인》(럼형미)은 시인의 얼굴이 드러난 인상적인 시들로 묶여져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시집에는 로동당시대, 선군시대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한껏 어려있고 여성의 긍지와 자부심이 절절히 노래되어있다. 하지만 시인의 열정과 재치에 앞서 우리는 시인이 그토록 정을 담아 자기의 걱정을 터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봐야 할것이다. 시인은 목청껏 웨치고싶었고 맘껏 터치고싶었던것이다.

어찌하여 조선의 여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하고 제일 강하고 억세인가를, 바로 그 긍지와 자부를 온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세찬 걱정과 충동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참으로 시집 《조국과 녀인》은 위대하고 존엄높은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우리 여성들의 감사의 노래, 행복의 노래, 맹세의 노래로 엮어진 시의 다발이다.

조국이 가꾸어준 아름다움 조국을 위해 빛내리

시집의 첫장을 펼치면 이런 시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조국이어 그대앞에
나는 너무도 평범한 딸
...
아, 조국이어 그대앞에
내 눈에 띄게 아름답지는 못해도
청년 평범치 않게 살고싶노라
그대의 이름없는 이 딸은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붓에 적서
그대를 노래하는 큰 딸이 되고싶노라

시인은 바로 이런 소박하면서도 평범치 않은 높은 지향과 목표를 내세우고 열정의 대지에서, 사색의 바다에서 끝없이 시를 꽃피웠고 퍼냈다.

시집에 실린 100여편의 시들은 다양한 생활주제와 양상으로 특징적이지만 하나같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여성들의 생활을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상정서적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태양이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어 우리 여성들은 수천년동안 짓밟혔던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회와 가정의 꽃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한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그 아름다움은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데 바쳐지고있다. 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이 시집에 관통된 일관한 사상정서적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조국과 여성의 운명이라는 심오한 철학을 관통하고있는 시집은 조국이 가꾸어준 아름다움을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여성들의 억척같은 불변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조국과 여성의 운명을 노래한 이 시집의 사상정서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조국의 운명속에 여성들의 운명이 있다는 형상적론리로 깊이 파고든것으로 하여 숭엄하면서도 청신하고 그윽하면서도 밝은것이다.

시 《나에게 제일 귀중한 이름》에서 시인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지구우에 존엄높이 세워주시고/사업과 생활과 나를 하나로 빚어/바쁘고 즐겁고 보람차게/인간행복의 절정에서 살게 해주신/고맙고고마운 은혜의 태양》이라고 하면서 마음속 진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아, 위대한 수령이시여
심장을 꺼내면 목숨이 끊어지듯
그 존함 없으면 내 이름도 없기에
한생토록 섬기고 받드노라
내 운명의 태양이시여

시인의 이러한 웨침은 조국은 우리모두의 생명이고 운명이라는데 대한 사색깊은 체험세계로 끝없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운명으로 더욱 접근해간다.

시 《조국에 대한 생각》에서 철없던 소녀시절과 처녀시절에 서정적주인공이 지냈던 조국에 대한 표상은 조선지도나 공화국기발이었지만 결코 조국은 그것만이 아닌, 손으로 만져볼수도, 눈으로 볼수도 없는 오로지 내 마음속에만 있기에 《오, 조국/그대는 나의 생명/하기에 신념으로 나는 알고있어라/조국이 없이 내가 없다는것을》이라고 격정을 터친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의 아름다움도 없다, 나와 나의 어머니, 나의 자식들도 없다, 이러한 시의 서정은 모든 시들에서 다양하게 굴절되어 표현되고있다.

시 《빠른 세월》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행복의 세월, 환희의 세월을 노래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속에 집집마다 화목이 깊어지고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 더욱 높아진데 대하여, 풍랑세찬 파도를 헤가르시며 목선을 타고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뵈오며 또 군관의 아기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밝고밝은 해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이 승리의 만세를 높이 부르는데 대하여 격정을 터치었다.

서정적주인공인 여성들은 자식을 낳아키우며 더욱 조국을 알게 된다. 어머니들이 지닌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든다.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먼저 조국을 사랑하는것부터 배워준다. 이것이 바로 조선여성특유의 품성이다.

시 《아이를 키우며》에서 시인은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사랑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주려나/그런 심장이 지닌 재능은/지구우에 조국을 들어올리기에》라고 정겹게 말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지녀야 조국을 지구우에 들어올리는 참다운 조국의 인재가 될수 있는것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여성들의 운명이 있다는 시적형상은 시초들인 《시련과 녀인》, 《선군과 녀인》, 《조국과 녀인》 그리고 장시 《선군시대 여성의 노래》등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시들은 이미 출판물과 여러 계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시들이라고 할수 있다. 《시련과 녀인》이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여성들이 시련의 나날을 이겨내며 어떻게 조국을 더 잘 알고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게 되였는가를 노래하고있다면 《선군과 녀인》은 선군을 떠난 여성의 운명이 있을수 없다는 심오한 문제를 안고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노래하고있으며 《조국과 녀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체험세계를 통해 지금까지 체험하며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조국의 크나큰 이름과 결부된 여성운명을 일반화하였다고 볼수 있다.

아, 조국과 녀인은 하나!
생명은 녀인이 낳았어도
인간의 참된 삶은 조국이 주는것이기에
아들아 부디 명심하거라
조국을 버린 자식은 뿌리잘린 나무
다시는 불러볼 어머니 이 세상에 없음을!

바로 시인의 이 주정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일반화한것이며 오늘 우리 여성들이 조국앞에, 낳아 키운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에게 터놓는 심장의 웨침이다.

장시 《선군시대 여성의 노래》는 그 어느 나라 여성들도 상상할수 없는 오늘의 우리 여성들의 긍지와 행복을 무한한 걱정속에 노래하면서 선군이 있어, 위대한태양의 축복이 있어 위대한 내 조국은 영원무궁하리라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었다.

두번다시 태어난대도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싶어라
선군의 이 시대
사랑깊은 이 대지에
존엄높은 아버지의 딸로

시인의 이 격조높은 토로에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의 가장 큰 자부와 행복이 깃들어있다. 지난날 여성으로 태어난 그자체를 불행으로 여기던 천덕꾸러기들이 두번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나겠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딸로 낳아준것을 고맙게 여기는 이런 사상감정이 어떻게 흘러나올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어낼수도 꾸밀수도 없는것이다.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대를 이어 누리는 여성들에 대한 사랑, 여성존중의 력사가 산전산후휴가에도, 보석빈침과 축복이, 흥단이의 이름에도, 봄향기화장품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그 사랑과 믿음에 고난의 시련을 이겨낸 강자들, 선군만을 사랑하고 믿고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딸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조국과 여성의 운명을 노래한 이 시집의 사상적서적특성은 다음으로 생활의 창조자, 사랑과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선군시대 여성들의 희열과 랑만을 펼친것이다.

시들에서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의 여성들의 기쁨과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

는 조국의 재부이며 조국에 바치는 여성들의 고귀한 창조물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다.

우선 여성들이 창조하는 행복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고통치는 심장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토로하고있는 시들이 많다.

시 《행복》은 행복은 찾아오는것이 아니라 창조에 있으며 나에게는 그 무수한 행복을 낳고 또 낳는 심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토로하고있는가 하면 시 《행복에 대한 생각》에서는 행복은 모든것을 송두리채 조국에 맡기고 사회와 집단속에서 기쁘게 고통치는 나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내 심장 바칠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중 행복이라고 걱정을 더친다.

또한 시집에서는 어머니조국앞에 땀뻗은 창조물을 내놓고싶어하는 여성들의 생활세계를 정깊이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귀중한 하루하루를 조국에 성실히 바쳐가는 여인의 아름다운 한생을 긍지높이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다. 지난날과 달리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황금산을 가꿔가며 조국의 재부를 늘어간다. 그속에서 사랑도 행복도 무르익는것이다. 조국의 쇠물, 불타는 쇠물노을속에서 무르익은 청춘들의 사랑은 조국의 강철로 날마다 부어진다고 노래한 시 《사랑의 밤》, 땀물은 권리로 행복을 저금해놓고 억만장자 부러움없이 사는 처녀, 황금의 보물산을 귀중한 지참품으로, 조국의 재부로 마련한 황금산처녀를 노래한 《양덕처녀》, 철의 도시 여인들의 행복을 노래한 《철의 도시 여인들》, 《강철과 여인》, 봄내, 여름내, 가을내 황금산을 가꾸는 처녀의 바구니는 온 산을 가꾸는 사랑바구니, 온 산을 담아나르는 행복바구니라고 노래한 《처녀의 바구니》 등 우리 여성들의 창조적로동의 희열을 노래한 시편들을 펼쳐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여성들의 마음의 향기, 웃음소리, 행복의 미소들을 보게 될것이다.

여성고유의 체취가 풍기는 시적형상

시집에 있는 모든 시들에서는 여성시인의 고유한 정서가 차분히 흐르고있다. 소박하고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섬세한 감각으로 숨김없이, 농침없이 파고든 정서의 다양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서정의 바다를 무한히, 풍부히 해준다.

이러한 시적정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은 지향이고 소원인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처럼 살려는 우리 조선여성

들의 고유한 정서세계를 훌륭히 시화한것이다.

시 《어머님추억》, 《총과 샘》, 《3.8절의 축복》이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을 거울로 삼아 따르고살 여성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했다면 시 《어찌하여 북쪽의 여인들이...》는 우리 여성들이 어머님을 따라배워 어떻게 아름다와졌는가를 노래하고있다.

《어머님추억》은 어려울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 짧은 죽가마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터치며 어머님에게서 배운 여성의 미는 정신미, 헌신미, 사랑미라고 하면서 어머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며 어머님처럼 총대와 운명을 맺고 어머님처럼 뜻이 큰 모성애의 절정에 내 작아도 한송이 꽃으로 피리라고 토로한다.

이 시가 어머님을 거울로 선군시대 여성의 참된 삶을 키울 맹세를 다지는 시라면 시 《어찌하여 북쪽의 여인들이...》는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북쪽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며 왜 그러한가를 서정적으로 해명한 독특한 작품이다. 시는 형식도 특이한데 80여행의 시구절이 무분절로 되어 쭉 하나의 이야기로 서정을 일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은 크게 두개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다. 첫 부분은 어찌하여 북쪽의 여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하고 일손은 류달리 웅골찬것인지... 하는 물음을 던져주고는 그들 집집의 부엌문을 열어보라고, 그들의 음식맛을 보라고 하면서 북쪽의 여인들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그들을 여러모에서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북녘의 들국화들이 북쪽태생, 여기 토배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에서 남편들을 따라온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다는것을 또한 긍지롭게 토로한다. 시의 둘째 부분에서는 어찌하여 북쪽의 여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한가를 알고싶거든 또 그렇게 되고싶거든 여기로 오라고, 그러면 알게 되리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 땅에 우리모두의 친정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의 고향집이 있다고 긍지높이 토로하는것이다.

...

아, 여인의 정과 그리움 소중한 믿음을
고스란히 맡기고사는 친정집
이 나라 여인들을 어머니로 투사로 키우는
넋의 친정집 혁명의 친정집이
바로 여기 북쪽에 회령에 있지 않은가!

여성고유의 체취가 흐르는 시적정서의 특성은 다음으로 시적대상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모든 시적

대상은 다 여성의 시점에서 선택되었고 그에 대한 여성의 체험세계를 노래한것이다. 그의 노래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래이면서 처녀와 안해, 어머니 그리고 그와 나란히 선 애인과 남편, 어린 아기와 다 큰 자식들과 결부된 노래들이다.

우에서 이야기한것처럼 어머니조국을 노래한 시들도 그렇고 《전쟁》, 《지하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전쟁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형상에서도 그리고 병사를 노래해도 처녀중에 제일 행복한 처녀, 처녀중에 제일 아름다운 처녀인 여병사를 노래하고 강철로동계급과 그들의 생활을 노래해도 강철이 아니라 강철에 스며있는 여성들의 사랑의 힘을 노래한다. 시 《칠보산바위런시》와 같이 자연바위를 노래해도 처녀바위, 큰절바위, 모성바위를 노래하고 크나큰 조국과 거창한 선군시대를 노래해도 그 주인공들은 여성들이다. 오직 여성을 통해 이 세상을 다 노래하자는것이 아마도 여성시인으로서의 남다른 자세가 아닌가 한다.

시에 흐르는 여성적인 체취는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의 내용을 이루는 생활적인 이야기나 생활세부 등 모든것은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된 너무나도 평범한것들이며 흔히 스쳐지날수 있는것들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것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포착하고 섬세하고 다감한 정서로 펼쳐놓는다. 시인에겐 빨래감 하나에서도 여성의 행복한 세계가 연상되는가 하면 가정들에 놓여있는 배불퍽이독들도 우리 여성들을 노래해달라고 조르는것만 같은 동화적인 시세계로 감

수되었던것이다. 눈에 생동하게 보이는것도 있고 청각적으로 감수되는것도 있으며 지어 향기까지도 그대로 맡는것 같은 기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버림받던 두메산이 황금산으로 전변된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시 《두메산골의 독》은 돌배며 송이버섯이며 두릅, 고사리, 참나물, 도토리들이 독마다 가득차서 빈독이 없어 걱정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면서 《아, 나는 머리없고 시집을 갈 때/큰 독만 주련이 앞세우고 갈가봐요》라고 행복에 겨워 노래한다.

시에 흐르는 정서의 여성적인 체취에는 시인 자신의 자서전적인 생활이 그대로 폭 젖어있다. 시인의 성장이자 이 나라 여성들의 성장의 력사이며 조국과 더불어 더 아름답게 변모되고 발전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시집을 20대, 30대, 40대의 시편으로 구성한것도 특색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다양한 생활과 특색있는 사상정서가 시인의 실생활체험이기에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한것이다.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에서의 서정구조의 특성이나 표현수법 등에서의 특성들은 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정서를 부각하는데 있다고 보는것도 물의가 아니다.

시집 《조국과 녀인》은 우리 시인들과 작가들에게 적지 않은 창작경험을 안겨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내주신 격려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모든 시인들이 창작적개성이 드러나는 주체문학의 시단을 위해 창작적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자고 호소하고있다.

가 사

북받 은 청춘

량 룰

혁신의 자랑높은 일터를 찾아
밝은 해빛 안고오신 우리 원수님
꽃나이 그 일숨씨 대견하다며
땀젖은 나의 손 잡아주셨네
아 이내 가슴 온 세상을 안은듯
기쁨이 넘쳤네 행복 넘쳤네

소박한 창조물도 크게 보시며
정을 담아 치하하신 우리 원수님
애국의 그 마음이 소중한다며

영광의 사진도 찍어주셨네
아 이내 모습 온 세상이 보란듯
자랑이 넘쳤네 행복 넘쳤네

언제면 또 오실가 손꼽아가며
비약의 발걸음 더욱 재촉해
한없이 따사로운 태양의 축복
위훈의 금별로 빛내갈테야
아 이내 청춘 온 세상이 부럽게
희망이 넘쳤네 행복 넘쳤네

어머니는 자랑스러다

김 선 화

별

별 별...

별이 참 많기도 하구나
원수님품에 안긴 장병들
군모우에 령장우에
들먹이는 가슴가슴에

하나 둘...

저 하늘의 별들이
이 어머니앞에 내려와 웃는듯
열 백...
저 하늘의 별들이 모두 손잡고
용해공거리 병사의 고향집에
행복의 꿈하늘을 펼쳐놓은듯

아들아 너는 어데

몇번째 줄 어디서 빛나고있느냐
어이쿠나 여기
세번째 줄 세번째 림름한 병사
이 병사가 내 아들 내 아들이 맞느냐

의젓한 자세

찍 벌어진 어깨
팽팽한 군복가슴에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
감격과 환희에 별처럼 빛나는 눈...
아, 내 낳아 키워보낸
내 아들갈질 않구나

별을 참 좋아했지

아들아 네가 유치원시절부터
하나 둘 반짝이기 시작하는 별들을
짜락짜락 손벽치며 세여보는 목소리에
엄마의 하루피곤도
별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지

소곤소곤 별들과 속삭이다간

그러다가도 문득
발버둥치며 빨리 내려달라고
용해공국수집꼭대기 반짝반짝 제일 고운 저 별 따다
우리 엄마 머리에 달아주겠다던
아, 포랑포랑틴 은방울 그 목소리
상기도 이 가슴에 샘처럼 출렁이는데

그 별이 되어

그밤의 제일 고운 별이 되어 왔느냐
별처럼 수놓아온 위훈의 날과 날을

한장 기념사진에 다 담아안고

어머니의 기쁨 자랑이 되어
어머니의 품에 안긴 내 사랑 내 아들이

별 별...

별이 참 많기도 하구나
셋 넷... 이백, 삼백...
아, 태양의 빛발속에 천만전사들
반짝반짝...
끝없는 영광을 속삭이누나

찾아본다 한사람한사람

찾아본다

한사람한사람
바람벽을 짝 채운 기념사진앞에서
아들아 너의 입당청원을 지지하여
총신같이 뜨겁고 억센 팔을
붉은기아래 높이 들어준 동지들을

이 동지가 아닐가

대화봉 낭떠러지
무너져내리는 돌사태에 한몸 내대어
소대원들모두를 구원했다는
언제나 불같은 시를 좋아한다지
그래서 몸도 마음도 술뚜껑같은 손도
언제나 불같이 뜨겁다는 소대장

이 동지가 아닐가

터져오르는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은빛스키장을 떠나던 그날
자꾸자꾸 돌아보는 대원들을 껴안고
《마식령이여! 병사들을 잊지 말라!》
추억도 뜨거운 화폭을 연출했다는
그 지휘관이

찾아본다

한사람 또 한사람
그래그래 여기여기 있구나
일기장을 꼭 껴안고 잠 못드는
신입병사 너의 꿈도 헤아려
함께 잠 못들던 그 일군도

소박한 너의 시가 실린 신문을

려단속보판 첫자리에 붙여놓고
아들자랑에 겨운 친아버지처럼
기쁨을 억제 못하던 그 진정으로 하여
네 목소리보다 네 편지보다

더 기다려지던 정치지도원동지의 편지

어디 있느냐

영예사진 보내온 오빠에게

영아가 보낸 축하편지

온 부대에 독보하며 너스레를 떨었다던

능청스런 사관장 그 동무는

송도원백사장의 해당화꽃잎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회답으로 보냈다는

랑만가로 소문난 구대원은

아, 낱아키워준 이 어머니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뜨겁게 더 사심없이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내세워주는

진실하고 미더운 동지들이 있어

아들아 너도 이젠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당원의 영예를 지닌것 아니냐

남갈지 않아

하루밤새 이다지도 정이 폭 드느냐

아, 시련도 영광도 생사운명도 같이 할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한사람한사람

어머니는 날이 밝도록 찾아본다

어머니의 밤

동지를 떠난 아기새같이

이 가슴 한구석에선 노상

걱정으로 숨쉬던 너

한해두해 자리잡는 믿음의 깃우에도

새록새록 갈마드는 잔근심으로

팬스레 숙태우던 아들아 너였다

그러던 내가

그러던 내 아들이 오늘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속에 어엿하게 서있으니

온 마을이 명절처럼 들썩하던 집에

어느덧 고요는 깃들었어도

꿈같아 아직도 꿈만 같아

이 어머니님 도무지 잠들수 없구나

령장의 슬하엔 약한 병사 없다고

이 어머니 치마폭에만 감싸안고있었다면

어이 이렇듯

가슴뿌듯이 느껴볼수 있겠느냐

창공을 솟구쳐오르는 수리개의 역센 기상을

평범한 용해공의 가정에 깃들수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안은듯 한 크나큰 영광이

수령님과 장군님 안겨주시던

각별한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언제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

천출명장 원수님 태양의 품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애국자로 떠받들린

근위부대의 미더운 한 전사

아, 가슴에 빛나는 훈장메달로

떨쳐온 위훈과 용맹을 자랑하며

사진속에 말없이 웃고있는

아들아 석줄배기 널 보고 또 볼수록

어쩐지 분명

어쩐지 내가 정녕

원수님을 모시고 고향집에 온것 같아

눈물속에 또 한번 어루쓸어보며

기쁨속에 다시 또다시 우러르며

밀물처럼 차오르는 감사의 마음

쇠물처럼 끓어넘는 보답의 맹세로

깊어가는 고향의 밤

아, 잠들수 없는 어머니의 밤이란다

어머니는 자랑한다

자랑한다 아들아

보고보고 또 보아도 어쩐지 꼭

원수님을 정말로

고향집에 모시고온것만 같은

아, 사진속의 병사 너를

어머니는 떠들썩 자랑하고싶구나

상 차 말 포 연해연방 불러대며

눈깜박할새에 온 방안에

자동차며 탱크 대포 군함 비행기

신통하게 만들어 쪽 정렬시키던

세살잡이 너를

어화둥둥 자랑하던 새각시시절처럼

올림픽수학경연에서 우승한 네 자랑

동네방네 직장도 성차지 않아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삼촌...

멀리 대학동창 친구들에게까지

전화기에 불나도록 하고 또 하던

행복넘친 그 봄날 자랑쟁이엄마처럼

아니아니

더 크게 더 크게 자랑하고싶구나

내 아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원원수님

제일로 믿고 내세워주시는

근위부대의 병사라고

원수님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

교향집에 높이 모셨다고

자랑하고싶다

마식령 송도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원수님명령받고 달려간 방방곡곡

희한하게 일떠세운 창조물마다에

병사 너의 사랑 열정 슬기와 재능...

방울방울 땀방울로 스며있다고

스며있어

고이 스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 우리 원수님

인민의 기쁨 아이들 웃음으로 꽃핀

병사의 땀 한방울한방울

세상 귀한 보석으로 빛내주셨다고

소리높이 세상에 자랑하고싶구나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백옥같은 충정의 땀 아낌없이 뿌려온

근위부대 장병 한사람한사람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영웅적 그 위훈 애국의 구슬땀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사랑답아 믿음답아 그이 주신 감사

가슴에 새길수록 아로새길수록

결사옹위 결사관철 영광스런 길에

전사는 아, 그이의 전사는

심장의 붉은 피도 서슴없이 바쳐야 할진대

아들아 한방울한방울

조국수호 조국변영에 바친 병사의 땀

태양의 축복속에 너무도 눈부시게 빛나거니

어찌 자랑하지 않으랴

최고사령관 김정원원수님 품에 안겨

세상 영광넘친 근위부대 병사 너를

세상 긍지높은 영웅부대 병사모두를

아, 위대하고 존엄높은 선군의 내 조국을

자랑한다 어머니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을 한다

상 식

녀인들의 도시

마계도니아 남부지대에 잘리니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이 도시를 녀인들의 도시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일체 모든 도시생활을 녀자들이 관리운영한다. 남자성인들은 거의다 외지에 나가 일한다. 이러한 풍속은 이 도시의 력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선조들은 400여년전에 튀르키예사람들에게 쫓기위 이곳에 와서 정착하였는데 고산지대에서는 곡식이 되지 않아 남자들이 매우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가다가 가족을 먹여살리었다. 이러한 생활이 대대손손 계속되어오면서 녀자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남자들이 떠돌이생활을 하는것이 풍속화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풍속이 계속되고

있다.

매해 7월 상순이 되면 떠나갔던 남자들이 도시로 돌아와 안해와 자식들을 만나고 7월 12일 광환절 경축놀이에 참가한다. 총각과 처녀들은 이때 한꺼번에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에서는 대축하연을 열고 여러 쌍의 신혼부부들을 축하한다. 7월 14일이 되면 남자들은 또다시 4~5명씩 패를 무어 먼곳으로 벌이하러 떠나간다. 이 자그마한 도시는 남부변경지대의 사방이 절벽을 이룬 산꼭대기에 자리잡고있다. 산에는 오직 한가닥의 꼬불꼬불한 오솔길이 있을뿐이다.

매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녀인들은 화장을 곱게 하고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유 래

너는 어머니한테서 매를 맞을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아이이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볼테르의 조카인 플로리앙은 《좋은 주부》, 《갈라테》 등 많은 소설들을 내놓았다. 그는 출생하여 2~3년도 못되어 어머니를 잃다보니 그의 얼굴조차 추억할수 없었고 일생 어머니사랑을 그리워했다.

어느날 작가는 어머니한테서 매를 맞고 뺨뿔이로 집을 뛰쳐나와 눈물을 연방 씻으며 향방없이 걸어가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다. 소년을 뗏취세운 작

가는 그를 달래이며 《너는 어머니한테서 매를 맞을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아이이나?》라고 하면서 어머니정이 그리워 눈물이 글썽해졌다.

때려도 어머니, 안아줘도 어머니, 이처럼 어머니와 자식간에는 인위적으로 갈라놓을수도 붙여놓을수도 없는 사랑만이 있을뿐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플로리앙이 한 이 말은 성구로 될 정도로까지 유명해졌다.



어머니의 손

홍 남 수
그림 김 광 석

이 땅의 흙 한줌

수련이네가 중석탄광구역으로 이사를 올 때 어머니는 크지 않은 흙주머니를 하나 가지고왔다.

어머니는 밤색천으로 정성들여 만든 그 흙주머니를 20여년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도 집안의 가보처럼 소중히 보관하고있다....

...수련이가 15살 잡히던 해였다.

어느날 밤 수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주앉아 심중한 의논을 오래동안 하는가싶더니 이튿날 집을 꾸리었다. 이사를 간다는것이였다.

수련은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엄마, 우린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먼데로 간다, 외할머니가 있는 곳에.》

《예? 거긴 왜 이사가나요?》

수련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부모들이 변화한 도시를 떠나 앞뒤가 온통 들쭉날쭉한 산으로 둘러막힌 산골로 어찌서 이사를 가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수련은 외할머니네 집에 가본적이 있었던것이다. 수련의 오빠도 이사를 가는것이 싫었던지 설똥한 표정이였다. 그러건말건 어머니는 집을 다 꾸리자 그날로 떠났다.

수련이네는 외할머니네 집과 10리가량 떨어진 탄광구역에 이사집을 풀었다. 가까운 곳에 버럭산이 우뚝 솟아있었다. 버럭산뒤에는 큰 탄광이 있다고 한다. 집앞에도 산, 집뒤에도 높은 산... 수련이는 마치 산들의 포위속에 든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이사집을 풀어놓은 며칠후부터 아침일찍 집을 나갔다가는 저녁늦게야 들어오곤 하였다. 온종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신발앞코승이가 다 떨어져 입이 항 벌어져있었고 손등에는 할퀴운 자리가 험상하였다.

《가까운데는 석회돌이 없어요. 래일부터 좀더 멀리 가서 찾아보겠어요.》

밥술을 놓자마자 꼬꾸라지는 어머니는 몇마디 못하고 인차 잠들곤 하였다. 몹시 지친듯싶었다. 며칠동안 그러고 다니던 어머니가 하루는 어느때없이 기분이 펴 좋아 집으로 들어왔다.

《수련이 아버지, 석회공장을 건설할 맞춤형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5리가량 떨어진 청두골이란데 질이 좋은 석회돌이 있더군요.》

《그렇소? 온데를 메주밟듯 하더니 끝내 찾아뵈구만. 수고했소.》

아버지도 무척 좋아했다.

《소빨은 단김에 뽕으랬다구 석회공장을 빨리 건설하겠어요.》

어머니는 그후 꼬박 이틀동안이나 종이우에 무슨 그림을 그리다가는 다 지우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가는 또 그리곤 하였다. 수련이는 옆에서 들여다보아서는 어머니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엄마, 뭘 그리나?》

《석회로를 그린다. 이제 여기서 흰쌀이 나온단다.》

《거짓말, 쌀은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도 다 알아요.》

《네 말이 옳다. 이제 여기서 석회가 팡팡 나오면 땅은 힘을 부쩍부쩍 쓰면서 쌀을 낫는단다.》

수련이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재미나는 옛말같은 눈을 깜박거렸다. 그럼 어머니는 잘나오는 공장을 그리나?...

드디어 어머니는 석회로도면을 완성하여 아버지한테 보였다. 첫 심사원이 되어 한참동안 도면을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어벌도 크구만, 이렇게 큰 로를 두개씩이나 건설할 생각을 다 하고. 나도 청두골에 가보았소. 석회돌은 질이 좋지만 로를 건설하자면 품이 여간 들것 같지 않소. 당신은 이 설계대로 건설을 하자면 물동량을 얼마나 운반해와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소? 내 생각에는 먼저 한개 로를 건설하여 생산을 하면서 후에 천천히 마저 하는게 좋을 것 같소.》

어머니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한개 로를 가지고는 계획한 5천톤의 석회를 구워낼수 없어요. 무조건 두개 로를 건설해야 해요. 원래 있던 로는 없애버리겠어요. 거기서 석회를 구워내면 경제적실리가 맞지 않아요. 석회로는 석탄보다도 돌원천이 첫째예요.》

《당신 좋을대로 하오. 내가 실없는 소리를 했군.》

수련이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이해할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사를 왔는지는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어린 마음에도 실망을 느끼었다. 석회가 어머니한테는 보물이랄도 될가?...

어머니는 처녀시절에 중부지대의 어느 한 농장인 화리에서 3대혁명소조원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나날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한평생 농사일을 걱정하며 온 나라 농촌길을 다 걸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결심이 자리잡게 되었다.

어느덧 어머니가 소조생활을 끝마치고 돌아갈 날이 되었을 때라고 한다.

어머니는 함께 소조생활을 하던 박일남이와(수련이 아버지) 농장별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체취가 스며있는 농장벌을 돌아보고싶었던 것이다.

여름날의 해뜰무렵이었다.

그들은 별 한끝까지 걸어갔다. 불그레 달아오른 동산마루에 아침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벼포기의 이슬방울이 보석처럼 평롱하게 반짝이고 온 벌판이 삽시에 생기를 띠며 명랑해지었다. 줍이 벌게 아지를 친 벼포기들은 우췌우췌 키를 솟구었고 종달새가 쪽빛하늘에 높이 떠 우짚었다.

부지중 어머니는 탄성을 올리었다.

《어쩔! 일남동지, 저 종달새가 우리가 떠나는것을 몹시 아쉬워하는것 같군요. 정말이지 전 여기를 떠나고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기의 발자취가 찍혀진 포전길이며 물길이며 유아등까지 그 하나하나가 살붙이처럼 생각되었다. 도시의 처녀들은 공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들이키는것을 좋아할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농촌의 독특한 그 맛, 구수한 땅냄새가 유별히도 정답게 느껴졌다. 그것없이 살기도 힘들것 같았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달래듯 박일남이 말했다.

《애숙동무, 우리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에 두고갑시다. 마음속으로 영원히 이 땅과 인연을 맺고 살면 되오.》

어머니의 눈빛은 서서히 꺼져들었다.

《그것으로 위안이 될가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농장원들처럼은 이 땅과 가깝게 못살것 같아요. 일남동지, 가끔 전 제 마음뿐아니라 몸까지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릴수 없을가 하고 생각하군 해요.》

아버지의 얼굴은 한층 심중해졌다. 어머니가 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혀 그 말을 한것 같지 않아서였다. 오래전부터 잠재해있던 결심일수도 있었다.

《애숙동무는 과학연구부문으로 뻗으면 크게 성공할수 있소. 과학도 농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부인하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왜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슨 까닭인가?...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농업대학에서 손꼽히는 수재로 공인되어있었다. 어머니는 벌써 대학시절에 농사에 절실히 필요한 문헌을 발표하여 학위를 받았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화리땅을 떠나갔었다.

그후 도종자연구소에 들어간 어머니는 가끔 대학시절과 소조생활을 추억해보곤 하였지만 세월은 추억을 이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있었다.

결혼하여 두 자식이 태어났고 촌살같은 세월의 흐름속에 막내인 수련이도 15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화리의 작업반기술원이라는 사람이 종자연구소에 찾아왔었다. 그는 자기가 연구한 벼종자를 가지고왔는데 기술적방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순간 어머니는 흠칫 어깨를 떨었다. 틀림없이 어머니가 소조생활을 할 때 《소조원누나》, 《누나》하며 자기를 무척 따르던 면식이 있는 청년이

었다. 그때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새파란 나이였는데...

그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서인지 어머니도 자기가 한때 화리에서 소조생활을 한것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에게서 가슴저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어머니가 농장을 떠나온 뒤 그 농장을 찾으시었다는것이 아닌가. 승용차에서 내리실 때부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시며 새벽안개가 고즈넉이 흐르는 논밭로 걸어가시던 수령님께서 어느 한 포전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허리를 굽히시며 흙을 한줌 집어드시었다. 수령님의 안팎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끼었다. 수령님께서 흙을 손에 쥐신채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땅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아무리 애써도 농사가 잘될수 없지. 화학비료나 박막이 부족해서 농사가 안되는것도 결코 아니요. 이 상태로 방임해두었다가는 땅을 아예 못쓰게 만들겠소. 내가 힘들어도 여기에 나온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거요. 우리 나라에는 석회회를 생산할 돌이 무진장하오. 탄도 걱정할건 없소. 내가 그전에 여기에 왔을 때 땅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더랬는데... 떡가루처럼 부근부근하고 기름기가 돌았댔소. 그때 들으니 여기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사업하던 한 처녀가 땅을 제 살붙이처럼 여기고 정성들여 걸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다 없어진것 같애.》...

어머니는 숨이 꺾 막히는것 같았다. 방에서 달려나가 연구소정원의 나무를 그러안고 막 흐느껴울었다. 뼈저린 회한이 가슴을 저미는것 같았다.

(난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난... 난...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어. 아, 수령님! 난 어쩌면 좋습니까? 난 죄를 지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과 땅은 고요한 정적속에 녀인의 눈물을 받아들이는상싶었다. 잠시후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이제라도 그 땅을 찾아가자. 땅아,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한생 너를 가꾸어주련다. 그래서 네가 바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련다.)

어머니는 당위원회를 찾아가 마음속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어머니를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애숙동무는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우리 연구소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결심이 그렇다면 붙잡지 않겠소. 아무리 좋은 종자도 좋은 땅이 없다면 쓸모가 없지.》

어머니는 지체없이 군당위원회를 찾아가다. 어머

니에게서 사연을 자초지종 듣고난 군당책임일군은 대뜸 반가와하며 움쪽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소. 당에 동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소.》

《책임비서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전 평가를 받고 이 길에 나선것이 아닙니다. 전 지금껏 종자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종자도 좋은 땅이 있어야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전 일생 석회를 구워 이 땅을 걸구겠습니다.》

《좋은 종자도 좋은 땅이 있어야 훌륭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 ...》

책임일군은 어머니의 말을 되뇌이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후 어머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산하 석회회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중석탄광구역에 석회회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해왔었다. 그러던것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유명무실해진것이다. 석회회공장을 활성화할 문제를 놓고 토론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겠다고 선뜻 발벗고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찾아온것이였다.

어머니가 석회회공장으로 떠나기 전에 군당책임일군은 군안의 농장관리위원장들이 모인 기회에 그들앞에서 어머니를 소개하였다. 관리위원장들은 어머니에게 박수를 크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한사람이 회의장이라는것도 잊고 격적격적 걸어와 어머니의 손을 무작정 잡아쥐었다.

《소조원동무, 반갑습니다. 날 모르겠소? 킁킁다리 3작업반장이요.》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소조생활을 할 때 갓 체대되여온 사람이였다. 지금은 관리위원장으로까지 성장한것이다.

《우리가 구실을 제대로 못해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소조원동무까지 오게 했소.》

그는 어머니를 소조원이라고 불러주었다. 그 부름은 소조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눈에 비겼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어머니를 바래워주려고 따라나온 책임비서는 웬일인지 어깨숨을 내쉬었다.

《지배인동무한테 아무것도 쥐여보내지 못하는구만.》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책임비서동지, 사람이 힘으로만 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비서는 어머니의 말을 대뜸 짐작하였다. 어머니는 여기에 온 후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다 녀가신 포전의 흙을 정히 떠서 흙주머니에 담아가

지고온것이였다.

수련이는 이 모든 일을 펴 후날에야 알게 되였다.

어머니가 석회로도면을 완성한 후 며칠이 지나서 청두골의 정적을 깨며 첫 발파소리가 울리였다.

청두골의 잠을 깨우는 소리였다.

멈출수 없는 길

소석회공장건설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는 건설장에 나가살아달일이 하였다.

아버지도 탄광병원현대화를 (아버지는 탄광병원에서 일했다.) 책임지고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큰 일감을 맡고보니 수련이가 집안살림을 돌볼수밖에 없게 되였다.

자연히 수련이는 어른의 짐을 겹머지게 되였다. 수련이에게 제일 큰 부담은 하루에 한번 염소를 끌고나가 방목을 하는것이였다. 수련이네 집에는 큼직한 젓통이 축 늘어진 어미염소 두마리가 있었다. 외할머니네가 부족되는 식량을 염소젖으로 보충하라고 끌어다준것이였다. 두마리의 젓짜는 염소는 수련이네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였다. 염소젖에 난알을 조금씩 넣고 죽을 쑤어먹으면 근기가 있어 좋았던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의 행군이란 엄혹한 시련을 겪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도 수련이는 염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학교에서 좀 늦어돌아온 오빠가 혈레벌떡 수련이를 따라올라오더니 성을 냈다.

《너 왜 또 혼자 염소를 끌고나왔어? 오빠하구 함께 다녀야 한다고 그만큼 말했는데. 그러다 염소를 잃어라도 버리면 어쩌자고 그래?》

수련은 텃이를 살짝 드러내며 웃었다.

《오빠 별걱정을 다 하네. 내가 이렇게 고삐를 꼭 잡고있는데 뭐. 오빠 내려가서 시험공부를 해. 어머니가 오빠 대학에 꼭 입학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난 결심을 달리했어. 인민군대에 나가 총을 잡고 미국놈들을 죽이겠어. 우리가 힘들게 사는건 다 미국놈들때문이야.》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오빠, 이제부터 염소는 내가 맡겠으니 오빠는 철봉이랑 하면서 몸단련을 더 하라. 인민군대에 나가자면 몸이 튼튼해야 하지 않니.》

오빠는 시뚱해졌다.

《내 걱정은 말어. 너 내가 학교에서 손꼽히는 체육선수인줄 몰라?》

그 말은 사실이였다. 수련의 오빠는 공부도 잘했지만 체육종목에서도 막히는게 없었다. 학교 전 기간 그의 성적중에는 5점만 매겨졌다. 수련이는 그런 오빠를 가지고있는것을 늘 자랑으로 생각하고있는터였다.

《수련아, 내가 잤 따줄가?》

《잠이 어데 있니?》

《저기에 있어.》

오빠의 손가락을 쫓아 산중턱에 서있는 잣나무를 쳐다보던 수련이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잣나무 맨 우듬지에 잣 세송이가 쌍둥이처럼 붙어있었던것이다.

《정말 잣이 있다야. 하나, 둘, 셋. 헌데 저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니? 그만뛰, 난 먹고싶지 않아.》

《첻, 문제없어. 내가 따줄게.》

오빠는 어느새 잣나무에 매달리였다. 어쩌나 쟁싸게 나무에 오르는지 다람쥐도 찜찜먹을 정도였다. 그래도 수련이는 속이 한줄만큼 좋아들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오빠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때 산아래기슭의 철길로 화차를 길게 단 기관차가 지나가며 뽕!— 하고 기적소리를 울리였다.

대가리를 한껏 쳐들고 가독나무에 엉킨 칩잎을 뜯어먹던 염소가 그만에야 와פל 놀라 산아래로 훌쩍 내리뛰기 시작하였다.

《앗!》

고삐를 손에 꽂꽂 감아쥐고있던 수련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폭 꼬꾸라진채 염소한테 끌려 산아래로 미끄러져내려갔다. 순간에 옷이 나무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팔굽이며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오빠—》

《수련아!》

깜짝 놀라 나무에서 돌덩이처럼 떨어져내린 오빠는 허겁지겁 달려와 염소를 붙잡더니 손에 잡히는 나무막대기로 마구 때렸다. 염소는 꺾충꺾충 울리뛰며 《매-매》 울어댔다. 수련은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때리지 마. 염소가 아파서 울지 않니. 우정 달아난것도 아닌데.》

수련은 상처의 아픔보다도 염소가 우는것이 더 애처로와 두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채웠다. 하지만 오빠는 성이 풀리지 않는듯 씩씩 황소숨을 내쉬며 염소를 노려보았다.

밤!...

수련은 얼굴에 와닿는 부드러운 촉감에 눈을 떴다. 어머니의 손인것 같았다. 수련이는 잠에서 깨

깨지 못한채 중얼거렸다.

《엄마, 가마안에 밤이 있어요. 잡주세요.》

《떡었다. 수련아, 아프지 않니?》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엄마, 염소는 겁쟁이에요. 그간 기적소리에 다 놀라 달아나구... 엄마, 오빠 대학에 가지 않고 인민군대에 나가겠대요. 오빠가 그러는데...》

수련이는 말끝을 흐리마리하다가 어느결에 다시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결에 어렴풋이 들었다.

《나까지 학교에 가면 수련이가 더 고생할텐데. 재훈이도 인차 군대에 나가지. 후날에 우리 애들이 부모들을 원망할가봐 걱정스럽구만. 지금처럼 생활이 어려운 때에 출창 애들한테 집살림을 떠맡길 순 없는데 여보, 당분간이라도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좋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때문에 집을 뜨지 못할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야지요 뭐.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가니 이제 한달이면 로를 완성할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될가?》

《끝내야지요 뭐. 전 래일 램전에 있는 공장에 다시 갔다오겠어요. 아무래도 내화벽돌이 모자랄것 같아요.》

《전번처럼 또 담장을 뛰어넘다가 체포되지 마오.》

《당신두 참,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석회토벽에 쓸 내화벽돌을 해결해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뛰어다니던 어머니는 어느 한 공장에 벽돌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당장에 어머니가 기대를 안고 찾아갔는데 그 공장지배인은 두마디안팎에 거절해버렸다.

《내화벽돌같은 소리를 다 하오. 우리 공장에는 한장도 없소. 있다고 해도 동무네한테 줄건 없소. 지금이 어때요?》

터벅터벅...

어머니는 힘없이 공장을 나섰다. 그렇게 땀을 받아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발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옮겨놓을 힘조차 없었다. 공장정문을 나서 발이 옮겨지는대로 걸어가던 어머니는 한곳에 멈춰섰다. 아니, 이게 내화벽돌이 아닌가?...

공장옆에 무저있는 버럭무지속에서 반장짜리 내화벽돌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어머니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럭무지를 뒤지였다. 이따금 깨진 벽돌장이 나

타나군 하였다. 어머니에겐 그것이 컸다. 그나마도 많이만 찾을수 있다면...

버럭더미를 다 뒤졌지만 골라낸 벽돌이 반달구지도 되나마나 하였다.

어머니는 버럭무지앞에 망연히 앉아있었다. 언제 찢기였는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동문 첫걸음이 제일 힘들다는걸 알게 될거요.》

떠나올 때 군당책임일군이 하던 말이 되살아났다.

어려움을 각오하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에 부칠줄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지금같아서는 가야 할 길이 아득히 멀어보였다.

얼마나 더 가야 그 길이 끝나겠는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저도 모르게 나약해진 자신을 발견한 어머니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냥 돌아갈수 없어, 절대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피흐르는 손가락을 대충 싸매고나서 몸을 일으켰다. 지배인을 다시한번 만나볼 결심이었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처음 찾아갔을 때엔 무척 곰살궂던 정문경비원이 웬일인지 쌀쌀하게 대했다.

《지배인동지는 평양에 회의를 올라가고 없습니까.》

《지배인동지가 없으면 기사장동지라도 찾아줘요. 난 누구든 만나야 해요.》

《기사장동지도 함께 갔습니다.》

분명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담장을 넘어가 지배인동지가 진짜 없는지 확인해보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승인없이 공장에 침입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알겠지요?》

경비원은 눈을 치뜨며 엄포를 놓았다. 아무렇든 상관이 없었다. 어머니는 결심을 실행하였다. 어떻게 그 높은 담장을 타고넘었는지... 담장을 넘어 툭 떨어지고보니 경비원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특수훈련을 받았군요.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잡시다.》

《동무는 너무 몰인정하군요. 못 가겠어요, 목을 매 끌어도.》

《정말 뽕칠내길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부르겠습니다.》

이때 웬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길쭉한 얼굴과

틀진 몸가짐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무뚝뚝한게 무척 푸쩍이 없었다. 이 공장에는 다 뻥정한 사람들뿐이구나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기 싫어 그저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었다.

《이 아주머니는 분명 이상한 사람입니다. 글썄...》

경비원은 사유를 설명하였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찬찬히 눈여겨보더니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을 떠올렸다.

《아주머니, 지배인은 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담장까지 넘어온걸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것 같은데 나도 좀 알면 좋겠군요. 제 이 공장 당비서입니다.》

《예?...》

어머니는 황황히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그가 자기의 싸맨 손가락을 눈여겨보자 어머니는 옷섶에 슬며시 감추며 공장에 찾아오게 된 사연을 말했다. 말끝을 맺을 때 어머니의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올랐다.

《갑시다.》

당비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읽었던것이다....

열흘후에 아버지는 인민경제대학으로 떠나갔다.

석회공장건설은 힘들게 진척되었다. 자재도 딸렸고 로력도 모자랐다.

제다가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서 점심을 못 싸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식량이 좀 생기면 아끼지 않고 밥곽을 두세개씩 싸가지고 나가곤 하였다. 다행히도 수련이네는 외할머니가 부업농사를 하여 저축해놓았던 식량을 보태주었던것이다.

어느날 할머니가 10리길을 걸어 찾아왔다. 마침 집가까이에 있는 강가에서 막돌채취를 하던 어머니가 점심식사하러 들어왔다.

할머니는 기다리고있은듯이 어머니한테 지칭구를 했다.

《집안꼴이 이제 뭐냐? 애한테 다 떠맡기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렇지.》

어머니는 탓하는 기색없이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또 오셨어요? 아버지는 좀 어때요?》

《요즘엔 염소랑 끌고 밖에 나가곤 한다.》 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쥐는 할머니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네 손이 험해졌구나. 연구소에 그냥 있을걸 그랬나보다, 애들도 고생시키지 않고.》

《어머닌 또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밤을 넣고 만들어진 설기떡을 한개도 먹지 않고 점심상에서 물러났다.

《어머니, 전 나가봐야겠어요. 언제 가시겠어요?》

《나야 아무때건 가지 않으리. 옛다, 이걸 들고 나가거라.》

할머니는 어머니가 사람들이 생각나서 떡을 먹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떡을 그릇에 담아 들려주었다.

집대문을 나서 총총히 걸어가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자박자박 들려왔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나와야 할가 부다.》

《할머니, 정말 이사를 나오겠어요?》 수련이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물었다.

《글썄, 어쨌으면 좋을지...》

수련이는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할머니는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수학시간에 학습장을 펼치던 수련이는 제 눈을 의심했다. 어제 밤 자기가 채 하지 못한 숙제를 누가 다 해준것이 아닌가? 어제 수련이는 숙제를 하다가 눈이 자꾸 내리감겨 아침에 일어나 마저 끝낼 생각으로 숙제장을 덮어버렸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생각을 깜빡 잊고 그냥 학교로 왔던것이다. 선생님이 숙제장을 검열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선생님은 오늘따라 별로 더 꼼꼼히 검열하는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했다. 수련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싶은 심정이었다. 선생님이 숙제장을 집어들었다. 잠시후 선생님의 목소리가 푹 숙인 수련이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수련학생, 모를것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와 물어봐야지 숙제를 대신 해달래면 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요.》

《예.》

수련이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들릴락말락 겨우 대답했다.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보이라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었다. 수련은 편지내용이 못내 궁금했다. 보나마나 오늘날 때문에 편질 썼겠는데 이 편지를 보이면 어머니가 근심할것이다.

수련은 종내 속지를 꺼내 펼쳐들었다.

선생님은 편지에 요즘 수련이의 학과실력이 떨어지고 이따금 학교에도 지각하는데 부모들이 관심

을 돌려달라고 쓰고있었다. 수련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대신 그런 일을 일으킨 오빠한테 짜증을 냈다. 장본인은 오빠였던것이다.

《다 오빠때문이야. 누가 숙제를 해달라고 했나. 오빠는 날 망신시켰어.》

《수련아, 내가 잘못했어. 널 도와주고싶어 그랬는데.》

《누가 그런거나 도와달래?》

수련이가 별말을 다 해도 오빠는 하나도 탓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다. 여느때보다 몸가짐이 무게가 있고 어른스러워지는 오빠다.

오빠는 수련을 정깊은 눈매로 이윽히 바라보다 그의 어깨에 손을 척 올려놓으며 한마디 했다.

《수련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수련은 그 말에 가볍게 코웃음을 내뿜었다.

《피— 오빠 별스레...》

수련은 오빠가 인차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간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후 오빠는 어머니가 자재구입을 위해 출장을 떠난 사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학교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오빠는 갔지만 수련은 어머니가 무척 원망스러웠다.

그후 출장지에서 돌아온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수련은 다시금 영영 울었다.

《엄마, 오빠 떠나갔어요.》

어머니는 잠자코 수련이의 머리를 쓸어주기만 했다. 수련이가 울려다보니 어머니의 눈가에 맑은것이 가득차서 금시 떨어지려 하고있었다.

《엄마, 우나?》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수련이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제판에 리해해보려 하였다. 어머닌 지금 몸시 마음이 아프겠지,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초소로 떠나는 자식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른 어머니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있을 때 어머니는 출장길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수련은 어머니가 돋보였다.

(오빠도 엄마를 리해해, 그래서 엄마에게 떠난다는 기별도 하지 않았고....)

뿡!— 기적소리가 다시금 밤의 대기를 흔들며 들려왔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까지

수련은 어머니의 마음을 매번 리해한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그는 아직 소녀였다.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노엽게 생각한적도 있었다.

그날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1년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등산이나 원족을 가는 날과 운동회날일것이다. 그날은 명절과도 같이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마음이 달뜨게 한다.

《엄마, 오늘 운동회를 보러 오지요?》

그날 아침 수련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수련은 지금껏 하루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해온 어머니가 그날만은 학교에 와서 운동회도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랐다. 예상외로 어머니는 선뜻 응했다.

《가겠대. 참, 너희 사람찾기를 한다지?》

《어머니, 꼭 오라고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달리라는 쪽지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 가마. 오늘은 너와 함께 뽀내기를 좀 해보자. 내 건설장에 나갔다가 인차 갈게 기다려라.》

수련은 날개가 돋친듯 사기가 났다. 한참 운동회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사람찾기경기차례가 되었다.

운동장에 나서며 수련은 주위를 두릿두릿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지 못한게 아닐까?... 아니야, 내가 보지 못했겠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수련은 출발선에 나섰다. 호각소리가 울리었다. 맨 선참 달러가 종이쪽지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달리시오.》

(야, 어머니와 함께 달리게 되었구나!)

수련은 종이쪽지를 머리로 높이 쳐들며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목터지게 찾는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쪽저쪽에서 다른 아이들이 찾는 선생님이며 인민군대아저씨, 탄부오빠들이 뛰어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수련은 속이 기름등잔처럼 바질바질 타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안타깝게 불려도 어머니는 나을념을 앓았다. 어머니는 종내 오지 못한것이다.

수련이는 입술을 꼭 깨물며 혼자서 달리었다.

(엄만 너무해요. 엄마는 일밖에 몰라요. 내가 큰것을 바라나요?...)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속에서 어머니가 툭 튀어나와 수련의 손을 잡아쥐었다.

《수련아, 빨리 뛰자!》

《어머니!...》

어머니는 제 먼저 수련이를 끌고 달리었다. 곧바로 오는 길인듯 잔등이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처럼 그대였다. 얼굴도 온통 땀투성이였다. 늦지 않으려고 막 달려온듯싶었다.

수련은 어머니와 맨 마지막으로 결승선에 들어섰다. 수련은 먼저 들어와 웃고 떠들며 좋아하는 동무들을 쏘아보며 애꿎게도 그들을 탕했다.

(흥, 어머니가 빨리 왔으면 1등은 내가 했겠는데.)

수련이는 어머니가 작업복차림을 하고 나타난것부터가 싫었다. 술한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새옷을 입으면 잘못될가...

그날 저녁 뽀로통해있는 수련에게 어머니는 미안한 낫색으로 말을 건넸다.

《수련아, 낮에는 참 안됐다. 한발 빨리만 왔어도. 돌운반이 걸려 거기에 나갔다고다니...》

수련이는 어머니의 말이 다 변명처럼 들리었다. 오빠가 초소로 떠나는 날 바래워주지 못한것도 또 집살림을 자기한테 떠맡긴것도 다 이해하였지만 오늘날만은...

《수련아, 석회로건설을 끝내고 어머니가 오늘 일을 다 봉창해줄게. 아버지랑 함께 통문대굴에도 가보고, 네가 요구하는건 다 들어주마. 좀 웃으렴, 요 새침데기.》

수련이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불을 살짝 튕겨 주어서야 열쇠를 잠그었던 입을 열었다. 그제서야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는지 방시레 웃으며 일어났다.

《자, 오늘 저녁엔 이 엄마가 맛있게 저녁을 해주마.》

그러던 어머니는 갑자기 《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부여잡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끙끙 앓았다. 어머니의 옷을 들추고 허리를 들여다보던 수련은 그만 예야 흠칫 놀랐다.

(아니?!...)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툭툭 부어오른 어머니의 허리는 푸릿푸릿 멍까지 들었던것이다. 돌을 지고 경사지를 너무 오르내린 후파였다.

금시 수련의 눈에 핑- 눈물이 고이였다.

(어머니는 이런 허리를 가지고 날 위해서 달렸구나. 난 정말 멍꽂이야. 이런 어머니를 탕하고 원망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 수련은 진료소에 달려가 의사선생을 데려왔다.

《몸을 너무 혹사시켰군요. 보름은 안정해야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칫하면 불치의 병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은 치료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무조건 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두번째번 당부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수련은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있는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여 염소를 끌고나갔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들어서던 수련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가 문기둥을 붙잡고 서있는것이였다.

수련은 염소고삐를 집어던지고 달려가 어머니앞을 막아섰다.

《엄마, 건설장에 나가려고 그러지요? 의사선생님말을 들어요. 그러다 정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련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했다.

《어머니는 일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허리에 동통이 오는지 입술을 깨물었다.

수련은 그만 성을 내고말았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래요.》

《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면서...》

어머니는 한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집대문을 나섰다. 아래입술을 깨물고 야속한 눈길로 어머니를 쳐다보던 수련이는 쏘살같이 달려갔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수련아, 너 울지 않니?》 울먹울먹하는 수련의 얘기를 다 듣고난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련은 대답대신 손등으로 눈굽을 찍었다.

《수련아, 아버지가 내려갈게.》

《아버지, 꼭 오세요.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엄마는...》

수련이는 설음이 콧물려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웅, 내 꼭 가마.》

아버지는 다음날 왔다.

《아버지!》

수련이는 책가방을 내던지고 두팔로 아버지목을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전화로 다하지 못한 그동안의 일을 종달새 삼씨까듯 재깅재깅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이야기가 펴 재미있는듯 얼굴에 줄곧 웃음을 담고 듣다 문득 물었다.

《수련아,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

수련이는 의아해하며 아버지의 목에서 팔을 풀었다. 아버지는 엄지손가락으로 수련의 반듯한 이마를 톡 튕겨주었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이 어머니 생일 인줄도 몰라?》

수련이는 손벽을 딱 마주쳤다.

《정말? 야참, 어머니생일을 깜박 잊었됐어요. 다 어머니때문이에요. 계속 생각하고있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음—》

수련은 유별나게 까만 두눈을 깜박이며 생각을 굴리었다. 그러더니 또 손벽을 마주쳤다.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지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아버지는 기타를 타고.》

《그게 좋겠다. 이제 수련이가 노래를 불러주면 어머니는 지금껏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릴게다.》

정말 자기의 노래가 어머니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말처럼 될수 있다면 수련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를 생각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오셨어요?》

여느날처럼 늦어 집에 들어서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난 집에 오면 안되오? 래일 휴식을 하길래 집일이 궁금해서 왔소. 당신은 날 아예 잊은 모양이구만, 전화도 한번 하지 않는걸 보니.》

《당신도 참… 저녁식사는 했어요?》

《안 먹었소. 오래간만에 왔는데 당신과 함께 먹어야지. 당신은 오늘 곱게 앉아만 있소. 수련이와 내가 저녁상을 차릴테니.》

《어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어보게.》

잠간사이에 밥상에는 여러가지 음식이 올랐다. 두다리를 펴고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고앉아있던 어머니는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번갈아보았다.

《오늘은 웬일이예요, 당신과 수련이가?…》

아버지가 슬쩍 턱짓을 하자 수련은 제격 벽에 걸려있는 기타를 벗겨내렸다. 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선을 튕겨보고나서 넋지시 수련을 쳐다보았다. 그러는 아버지의 얼굴은 짐짓 엄숙했다. 수련은 어머니앞에 나섰다.

《어머니생일을 축하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

수련의 아버지가 기타를 타며 후렴을 함께 불렀다.

...

넓고 푸른 들에는 오탁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눈굽을 닦았다.

《당신은 절 울리려고 수련이와 미리 약속했군요.》

그러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물결치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서도 인차 잠들지 못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수련의 귀가에 자장가마냥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재훈이가 군복을 입고 떠날 때 바래워주지 못했어요. 그 애가 어머니를 몹시 원망했겠는데…》

《나한테 편지가 왔소. 당신의 바쁜 시간을 빼앗고싶지 않아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그 앤 철이 다 들었소.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오. 허리병을 치료 안하면 종신병이 될수 있소.》

《수련이가 당신한테 전화를 했지요?》

수련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었다. 마당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아닌게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며칠 쉴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잠시라도 지체하면 땅이 점점 더 병들어가는것 같아 소스라쳐일어나군 해요. 수련이 아버지, 난 당신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큰 병원에서 절 따라 여기에 내려와서도 군말없이 뒤받침해주는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행복한 녀자라는 생각을 하군 해요.》

《새삼스레 그런 말은… 여보, 이 땅은 몇몇 사람한테만 필요한 물건같은게 아니요. 나도 수련이도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주는 혜택을 입고 살지 않소. 이 땅은 너와 나, 그 누구에게나 다 생명처럼 귀중한거요.》

(아버지는 잘 몰라. 아무럼 땅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할까?)

수련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면 아직 많은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했다.

가을나들이

어머니는 종업원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군량정사업소를 찾아갔다.

종업원들은 의연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었다.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하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리었다.

(먹은 소가 힘을 쓴다고 건설을 빨리 끝내자고 해도 식량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무렴 작지 않은 농업군에서 몇십명 되나마나한 사람들의 식량을 해결해주지 못할가?)

이렇게 되어 떠난 걸음이었다.

《나도 동무가 우리 군을 위해 자진해서 외진 산골에 들어가 석회공장을 건설한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요. 정말 딱하구만.》

량정사업소 지배인은 난처해하며 씨원한 대답을 못했다. 어머니는 량정사업소로 들어오면서 한쪽에 쌓아놓은 벼가마니를 보았던지라 물러서지 않고 바깥 달라붙었다.

《지배인동무, 생각을 곱씹다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고개를 넘기고있습니다. 다문 열마라도 도와주세요.》

《동무네만은 도와줘야겠는데... 여하튼 예비를 좀 짜내봅시다.》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깡그리 소모해버린듯 걸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만한 대답을 들은것만도 안도의 숨이 나왔다.

이때 누구인가 문을 두드렸다.

지배인이 대답도 하기 전에 두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지배인은 량미간을 찌프리며 대뜸 어성을 높이었다. 그들이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같지 않았다.

《그만큼 말했는데 또 왔소? 지배인이 쌀을 주머니에 감추고 주지 않소?》

중키에 목이 좀 발은 사람이 반죽종게 나왔다.

《지배인동무, 밖에 쌓아놓은 벼가마니는 도대체 뭘니까? 난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량정사업소가 지금껏 우리 공장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또 몰라도, 인정도 없음값음이라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신세를 갚겠습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며 본 그 벼가마니들을 두고 하는 소리같았다. 그들도 식량을 해결받자고 찾아온 것이었다.

《참새 눈에는 방아간만 보인다더니. 그제 탐나서 그러오? 그건 한알도 못 다치오. 애육원과 육아

원원아들한테 먹일거요. 아이들을 굶기면서 어른들 배채울 생각은 안하겠지.》

(아니, 그럼 그 벼가마니들이?...)

어머니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그리고 방을 나섰다.

《석회공장 지배인동무, 어텔 가오?》

지배인의 부름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머니는 황황히 방을 나와버렸다. 어머니는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내쳐 걸음을 옮겨 량정사업소를 떠났다. 내가 그 벼가마니에 미련을 가지고있은것이 어리석었구나....

어머니는 량정사업소로 떠날 때 누구도 모르게 온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자기의 행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실망해버릴수도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내가 현실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대하는것은 아닐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곤난하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일을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난 사람들을 나약하게 보았지만 결국 나약한 사람은 바로 나였어, 리기적이고.)

북쪽하늘에서 시꺼먼 구름이 타래지어 몰려왔다. 미구하여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버치로 퍼붓듯이 쏟아졌다. 비는 한시간가량 한본새로 쏟아지다가 멎었다.

어머니는 느닷없이 마음이 불안해졌다.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을것만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 걸음을 빨리 했다. 왜 그럴가? 아무리 마음을 누착히려고 해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건설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두눈으로 보면서도 믿을수가 없었다.

허나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것을 의식했을 때 가슴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던 석회로 하나가 폭격에 맞은듯이 반나마 허물어진것이 아닌가?...

웅기중기 앉아있던 사람들속에서 작업반장 장정환이 일어나 어머니한테로 터벅터벅 걸어와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제가 미처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막고싶었다.

불쑥 큰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누가 그런 말을 듣겠대요? 어떻게 한돌기한돌기 쌓았다고...》

반장은 체념해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떠있지 않았다. 악몽같던 방금전의 하늘은 영원히 사라져버

린듯 했다.

잠시후 어머니는 자신을 수습한듯 나직이 말했다.

《미안해요. 반장동무, 내가 너무 흥분했던것 같아요. 다 내 불찰이예요, 내 불찰...》

어머니는 건설이 끝나면 로돌레에 석축공사를 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야 장마철에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방지할수 있었던것이다. 석회로워치를 보아 장마철에는 물피해를 받게끔 되어있었다. 그런데 마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줄은 몰랐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몇걸음 허청허청 걸어가던 어머니는 갑자기 휘친 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지배인동지.》

장정환이 다급히 소리치며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틀째나 고열속에 앓았다. 가끔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치곤 했다.

수련은 어머니가 헛소리를 칠 때마다 《엄마》, 《엄마》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마구 헤덕비었다. 의사선생이 왔다갔지만 수련은 어머니가 그러다 영영 깨어나지 못할것만 같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이런 때 할머니라도 있었으면...

어머니는 닳새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얼굴에 병색이 돌았지만 어머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꼼꼼히 빗는것이였다. 건설장에 나가려는것이 분명했다.

학교에 가려고 문을 나서던 수련이는 어머니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의사선생님이 찬바람을 쏘이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더 있어요.》

《날씨도 차지는데 빨리 건설을 끝내야 하지 않니.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나 빨리 학교에 가봐라. 늦겠다.》

수련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발딱 일어나 벽에 걸린 거울을 벗겨들었다.

《엄마, 보라요. 얼굴이 얼마나 축났나? 어머니는 자기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아요. 석회공장 이 어머니건강보다 더 귀중한가요?》

수련이는 어머니를 놀러있힐 힘이 없는지라 소리내어 흐느끼기만 했다.

어머니는 수련이의 작은 어깨를 꼭 잡아쥐었다.

《수련아,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응? 어머니는 네가 큰 힘이 된다. 어머니한테 네 힘을 좀더 보태주렴.》

어머니는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날이 어두웠지만

어머니는 이윽도록 들어오지 않고있었다.

수련은 어머니의 저녁밥을 싸가지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수 없었다. 오늘 밤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입맛이 떨어져 아침식사도 하지 않은 어머니가 점심이라고 제대로 했을리 만무했다.

수련은 청두골로 가는 지름길을 잡아 걸음을 재촉했다.

문득 수련이는 한자리에 멈춰섰다. 불무지를 크게 피워놓고 빙 둘러앉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심취되어있었던것이다. 불앞에 앉아있어 그런지 어머니의 얼굴도 한결 혈기가 있어보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수련이는 마음이 좀 놓이였다.

어머니가 불무지에 나무가지를 툇툇 꺾어던져넣으며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은 농민들만이 가꾸는것처럼 생각하고있어요. 그게 아니예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땅을 마음속에 안고살아야 한다고 전 생깁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어야 해요. 우리 수령님께서도 한생토록 땅을 사랑하시고 땅을 가꾸시지 않았나요. 한생을 들길을 걸으시며 정원에서 시험농사도 해보시며...》

불길은 기세좋게 타오르며 밤하늘을 밝히었다.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층 무거웠다.

드디어 석회로건설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한쪽에서는 벌써 로에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있었다. 석탄도 실어왔고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돌을 닭알 크기만 하게 까서 무독히 쌓아놓았다. 건설장은 끓고있었다.

어느날 수련은 어머니의 점심밥을 싸가지고 갔던 길에 로동자들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화물자동차 한대가 건설장으로 굴러왔다.

뜻밖에도 차에서는 책임비서와 량정사업소 지배인이 내리였다.

책임비서는 마주오는 어머니한테로 크게 걸음을 질으며 다가왔다.

《애숙동무, 수고하요.》

《책임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는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어디 손을 한번 잡아보지요. 손이 무척 험해졌구만, 여기로 떠날 땐 이렇게 않았는데. 그새 우리가 동무를 잘 돕지 못했소. 내 량정사업소 지배인 동무한테 다 들었소. 동무도 너무하구만. 당원이 왜 당조직에 의거할 생각을 하지 않소. 식량문제

군관의 안해

럼 정 실

아장아장 첫걸음마 떼던 아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일어서거라
그때야 인민군대 된단다
병사의 용감성을 배워주는 엄마

아들이 들고온 5점맞은 시험지
처음 받는 표창장처럼
정히 안아보며
—공부를 잘해야지
그때야 아버지처럼 군관이 되지!
지휘관의 자질을 익혀주는 어머니

그는 군관의 안해였다
그 어느 어머니가 바라마지 않으랴만
자식이 잘되기를
하나 군관의 안해는 소원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식도 초소를 지켜 참되게 살기를!

나이찬 딸을 둔 군관의 안해는
어머니가 한생토록 남편을 따라
초소에 살며 익힌 경험들을
지참품으로 차곡차곡 넘겨준다

목달개 다는 법이며
땀젖은 군복을 빠는 법이며

짧은 기간 돼지를 살찌우는 법도
갖가지 남새 가꾸는 법까지...

이 땅에 미제가 있어
오늘도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있기에
오직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이 공민으로서의
애국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선군길에서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된 녀인들
자식들에게 군인기질의 첫 선생이 되었거니

아침마다 군대일과에 맞추어
아이들을 깨웠다
군관안해들의 자식들에 대한 요구성도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 그려보는 꿈도
선군시대를 빛내갈 꿈
선군은 정녕 우리 시대 인간들의 리상

초소는 넘려하지 마시라
10년 20년후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키워내는 일에
그들은 어머니이기 전에
령장없는 첫 지휘관!

만 봐도 그렇지. 이거 육부터 해서 안됐소. 애숙동무, 많지는 못하지만 식량을 좀 싣고왔소. 여기 이 야기를 관리위원장들한테 했더니 예비가 생기더구만. 그들도 다 동무들을 고맙게 생각하고있소. 하긴 동무들한테 잘 보이면 후날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거야 없지. 허허.》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었다.

《책임비서동지, 그땐 제가 생각이 짧아서...》

책임비서는 씨원스레 손을 뻗 내리그었다.

《그럴수 있지. 량정사업소 지배인동무, 석회로가 마치 옛성 같지 않소? 이제 저기서 석회가 짹짹 나오겠지. 애숙동무, 생각나오? 좋은 종자도 좋은 땅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하던 말이. 다음해 좋은 땅에서 농사를 푸짐히 지어 놓고 동무들을 초청하겠소. 그때 모두 가을나들이를 오우.》

《가을나들이!》

어머니는 입속으로 외워보았다. 생각만 해도 가

슴이 뿌듯해왔다. 모든 고생이 정말 옛꿈처럼 사라져버리는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이 펼쳐졌다. 이 땅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보름후에 잘 구워낸 소식회를 실은 첫차가 청두골을 떠났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스무해의 년륜을 새겼다.

수련의 어머니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늘까지도 해마다 수천톤의 석회를 구워내어 보내주고있다. 어머니는 늙어가지만 땅은 젊어지고있다.

어머니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수련은 어머니의 한생이 그 기념사진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들의 이름

박 성 일

꿈만 같구나 아가야
축복받은 내 아들이
너 아느냐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너의 이름 지어주신줄

아빠도 이 엄마도
그렇게도 뵈고싶던 원수님
우리 비행초소를 찾아주신 그날
친아버이의 정에 끌려
원수님품에 안겨 드린 청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뜻깊은 대회장에서 우리 원수님
네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길 걸으라고
《충도》라 이름짓자 하시며
아들을 잘 키우라 당부도 뜨거우신
하늘같은 그 은정에
이밤도 이 엄마는 너를 안고
꿈하늘을 난다

행복하여라 영광이여라
이 세상 만복을 꽃피우시는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의 축복을 다 받아안은

너와 우리 온 가정의 끝없는 이 영광
충도야 네 아직
얼마나 넓고 높은 행복의 하늘이
너의 꿈하늘에 창창히 비껴있고
그 얼마나 눈부신 태양의 빛발이
너의 먼먼 앞날까지 밝게 비치고있는줄
다 알수는 없으리

비바람 눈보라 폭풍이 몰아쳐도
당을 따라 변함없이
원수님따라 오직 곧바로
《충도》! 그 이름과 함께
충정의 붉은 향로는
너와 우리 가정의 좌표로 새겨졌더라

아, 이 가슴에 새길수록 뜨거운
원수님 지어주신 너의 이름
《충도》는
조국수호 수령결사옹위의 그 길에
아빠도 엄마도 곧바로 갈 충정의 불변향로!

너와 우리 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가고갈
선군혁명천만리의 영원한
충정과 위훈의 한길이란다

가 사

그네타기 즐거워라

최 성 근

가을바람 선들선들 모란봉에 불어오니
그네타의 녀인네들 울긋불긋 핀 꽃인가
연분홍저고리에 꼬리치마 곱게 입은
직포공들 쌍그네가 하늘높이 오른다네
에헤라 즐거워라 그네타기 즐거워라
반만년의 력사어린 우리 풍속 제일일세

굽어보니 룡라도는 웃음넘친 화원이고
흘러가는 대동강물 우리 짜는 비단갈네
금실은실 수놓은듯 아름다운 조국강산

선녀들도 부러워할 우리 사는 요람이네
에헤야 즐거워라 그네타기 즐거워라
선군시대 꽃피나는 우리 민족 자랑일세

한번 굴러 집집마다 고운 옷감 안고가고
다시 굴러 온 나라에 오색무늬 펼쳐가리
직기바다 갈매긴가 창공에는 방울소리
축복인양 그네타엔 환호소리 높아가네
에헤야 즐거워라 그네타기 즐거워라
세월 가도 변함없을 내 나라의 모습일세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뜨거운 해가 한가스레 아래를 내려다보며 넓은 제염벌을 사정없이 지저댄다. 이쯤되면 제염소마을은 해비침물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려고 새벽부터 들볶인다. 이러한 세기적폐단을 없애고 소금생산에서의 첨단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통합조종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7제염소에 내려온 김성국은 마침내 체계구성안을 끝내고 해당한 문건을 내각과 과학원에 제출하였다. 자료를 가지고 떠나는 승용차를 배려주고 돌아서던 성국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농장마을로 날아갔다. 순간 성국의 귀전에는 수십여년전의 음성이 들려왔다.

《성국이, 마음속의 별을 찾아보세요.》

청아하고 부드러운 처녀의 목소리...

성국에게는 수십년간이나 마음을 괴롭혀오는 큰 빛이 있었다. 첨단급의 통합조종체계에서 나라의 무시할수 없는 로장이며 과학원의 후보원사, 박사가 된 지금까지도 때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빛은 인민학교시절(당시)의 마지막 1년을 담임했던 처녀 선생을 아직까지 찾아뵙지 못한것이였다. 그 선생님은 지금 성국이 바라보고있는 제염소를 지나 스 농장마을에서 살고있다. 이젠 40여년이나 지났지만 더욱 또렷이 새겨지며 성국을 괴롭힌다. 여기까지 왔어도 찾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이 영원한 마음의 빛으로 되리라.

드디어 선생님이 살고있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성국은 또 주춤거렸다. 40여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보기나 하실가. 그걸 설명하고나면 이때껏 찾지 못한 변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다, 멀리서라도 보고싶었다. 수십년세월 한번도 잊은적 없는 선생님이였다.

성국은 걸기 시작했다.

성국이가 리광실선생님을 알게 된것은 우리 나라

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던 첫해의 인민학교 4학년에 올라서였다. 3학년까지는 마음씨 무뎠던 할아버지선생이 담임하고있었다. 구수한 옛말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어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속에 첫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던 성국은 눈이 말뚱말뚱해졌다. 낮모를 처녀선생이 방실 웃으며 아이들을 맞아주고있었던것이다.

《왜 그렇게 봐요. 어서 들어오세요.》

맑은 목소리였다. 쌍까풀진 커다란 두눈에서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환히 비쳐보는듯 한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고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예비종이 울린 다음 선생님을 기다릴 때였다.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재미나는 옛말을 들을수 없다느니, 남포교원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느니, 리합속에서 산다느니, 산수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느니, 처녀선생님에 대한 소감이였다.

선생님을 기다리기에 갑갑해난 성국은 엉뚱한 장난이 떠올랐다. 휴식시간 학교뒤산에서 잡은 손가락만 한 도마뱀이 종이에 싸여 필갑안에 있었던것이였다. 종이봉지를 꺼내들고 교탁앞으로 간 그는 백목통안에 그것을 넣어 교탁우에 척 올려놓고 제 자리에 들어왔다.

이어 선생님이 들어섰다.

《동무들, 래일은...》하며 백목을 찾던 선생님의 눈길은 교탁우에 놓인 백목통에서 떴었다. 백목통을 열던 선생님이 흠칫 손을 뻗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앞에 앉은 길남이가 돌아보며 힐기죽거렸다.

(저자식이?)

성국이 주먹을 들어보이는데 선생님이 불렀다.

《성국학생.》

《옛!》

성국은 와닥닥 일어섰다.

《앞으로 나오세요… 풀어보세요.》

선생님앞에 선 성국은 봉지를 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이 떨려나는 바람에 도마뱀이 교실바닥에 떨어지고말았다. 곧 교실에 벌둥지가 터진듯 소란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을 따라가는 성국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교원실은 들어가기가 딱 싫은데…

《이 학생이 교실유리를 깨 학생이구만, 이번엔 또 무슨 장난을 쳤소?》

성국이가 들어올 때부터 지켜보던 남선생님이 하는 말이였다.

《그래요?—》

처녀선생님이 놀라는것 같았다.

성국은 대번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될가, 전번 유리를 깬을 때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출경을 쳤던가. 누나도 꾸지람을 하고 동생들도 울먹울먹했었다.

성국은 혼자서 네 남매를 키우고 아버지의 연구사업(아버지는 무슨 연구사업을 하느라 늘 현지에 나가살았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눈에 선히 보였다.

갈마드는 불안감에 빠져 먼 산만 바라보고 섰는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들렸다.

《성국이, 두손을 펼쳐봐요… 이것 보지, 이런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될가? 대답해봐요.》

《버… 병에 걸립니다.》

《그건 왜 걸릴가?… 그것두 마저 말해야지.》

《나쁜… 세균이 자랍니다. 더 작은 비루스도.》 교실유리를 깬다고 하던 남선생이 밖으로 나가려다 서서 성국이를 보며 허— 했다.

《허, 제법인걸, 알면서도 장난하면 더 나빠.》

《…》

성국은 침을 꿀꺽했다.

교원실에는 성국이와 선생님만 남았다.

《전번에 교실유리는 어찌다 깬어요?》

성국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돌아났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선생님이 뺨람에서 무엇인가 꺼냈다. 금속판을 프레스로 찍어 만든 반짝이는 소련반반장의 열성자표식이였다. 선생님은 성국이가 마분지로 자작 만들었던 열성자표식을 떼고 새 열성자표식을 달아주었다. 낡은 열성자표식을 돌려주려던 선생님은 그윽한 눈길로 성국이를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건사했다가 다시는 장난하지 않는 착한 학생이 될 때 돌려주겠어요. 약속하지요?!》

《예.》

《그럼 돌아가세요.》

《예?》

성국은 외마디소리를 해버렸다.

도망치듯 교원실을 빠져나와 후— 한숨을 내쉬는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쭈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옷자락으로 땀을 씻으며 낡은 열성자표식은 버려도 되지만 다시는 장난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왜 싱겁게 끝났는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성국은 제염소마율이 끝나는 언덕길에 올랐다. 땀을 들이려고 가로수그늘밑에 들어서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머리우에서 까치가 깹깹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올라다보니 나무꼭대기에서 두마리의 까치가 둥지우를 날며 화답하고있었다. 빙돌던 까치들이 가지우에 내려앉는다. 그 까치들이 성국을 못 잊을 추억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성국의 눈길은 다시 농장마을로 향해졌다. 그 눈길에는 추연한 빛이 어려있다.

…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성국은 또 장난을 치고야 말았다.

학교운동장에는 나무들이 많았다.

무성한 나무들은 못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참새들은 하루종일 조잘거리며 이 나무, 저 나무 무리지어 노닐었고 이름모를 새들도 날아들었다. 아찔한 나무우듬지에 있는 까치둥지들이 이채로왔다.

어느 토요일이였다. 선생님은 큰비가 내린다며 모두 일찍 돌려보냈다. 학교운동장을 걸어나오며 성국이 다음날 일이 걱정되어 구름이 드리운 시꺼먼 하늘을 근심에 잠겨 바라보는데 길남이의 말이 그를 건드린다.

《래일은 참새고기만두를 실컷 먹게 됐구나.》

《체, 그렇게 많은 참새가 어디 있어?》

《저 백양나무에 있지 않니. 밤새 큰비만 내려봐라. 운동장에 잠자던 새들이 좌악 깔려.》

《참새가 떨어지겠대?》

《제까짓 재간있어? 날개가 푹 젖는데. 요전에 한바께즈 주었더니 어머니가 만두를 맛있게 해주더라.》

성국은 입만 찻찻 다셨다. 비맞은 참새를 잡아만두해먹었다는게 미심쩍기 그지없었다.

짜르릉!—

그날 밤 성국은 요란한 천둥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있었다. 성국은 길남이의 말이 생각났다. 정말 참새들이 떨어질가, 거짓말, 하지만 성이 나서 우르릉거리며 사정없이 퍼부어대는 비를 보니 그럴상도 싶었다.

(새벽에 나가볼테야. 길남이, 거짓말하면 없다.)

성국은 밤새 뒤척이다 어느결에 잠들어버렸는데 아침밥상 차릴 때까지 내쳐 자고말았다. 밥상에 마주앉아 숟가락을 들던 성국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의아해서 물었다.

《밥먹다 말고 갑자기 바께즈는 왜?》

《내가 오면 만두 빚을 준비나 하라요.》

성국은 바깥쪽을 들고 달리면서 생각했다. (웬걸, 참새가 떨어질까. 거짓말이지. 아니, 정말일지도 몰라.)

운동장에 들어선 성국은 맥이 탁 풀려 서버리고 말았다.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고 나무가지들이 드문드문 떨어진 운동장에는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들리고있었다.

빈 바깥쪽을 들고 터벌터벌 운동장을 나서던 성국은 길남이네 집쪽을 건너시 바라보았다. 마침 길남이가 토방에 서서 떠가는 구름장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성국은 속이 불끈거렸다.

《길남이, 이리 와.》

길남이가 어깨를 추스르며 다가왔다.

《너 운동장에 갔었구나. 얼마나 주었니?》

《곡상으로 채웠다. 너 거짓말 하겠니?》

성국은 바깥쪽을 흔들며보이며 따졌다.

《나 거짓말 안했어. 누가 먼저 주어갔겠지 뭐.》

《먼저 주어갔다구? 날 따라와.》

성국은 무작정 길남이를 이끌었다. 텅 빈 운동장은 여전히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울릴뿐이었다.

《자, 참새주는 발자국이 어디 있어?》

성국이 따졌다. 길남이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날아났겠지. 이렇게 흰한테 그냥 누워있겠대?》

《어디 날아났어?》

《저 까치둥지에 들어갔겠지.》

길남이가 계속 둘러쳤다. 끝내 성국은 분통이 터지고말았다.

《좋아, 까치둥지에 참새가 없으면 용서없다.》

바깥쪽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성국은 백양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물먹은 나무는 몹시 미끄러웠다. 나무가지도 오를수록 가늘어졌다. 바람이 휘몰며 휘친거리는 바람에 얼른 나무가지를 꼭 잡았다. 길남이의 집에 질린 말소리가 들렸다.

《성국아, 위험해. 어서 내려오라.》

(체, 네가 깨고소해하랴구?)

성국은 발뼘발뼘 계속 올랐다. 와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새 많은 아이들이 몰려서있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내렸다.

《어마나.》

처녀애들이 비명을 질렀다. 성국도 아찔했다. 이때였다. 귀에 익은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렸다.

《성국이, 덤비지 말고 침착해요.》

《!》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리는지 공포심이 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모두가 지켜본다는 생각에 자부심은 하늘끝에 닿은듯 했다. 성국은 끝까지 오르고야말았다. 부풀어오르는 흥분을 지그시 누르며 등지에 손을 놓으니 참새는 한마리도 없었다. 등지라도 떨어가려고 힘을 주었으나 어방도 없었다. 이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성국이, 이제 내려와요. 천천히, 천천히.》

성국은 등 떠서 나무를 내려왔다. 길남이가 납작해질것이다. 그런데 길남이는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급히 다가온 처녀선생님은 성국이를 그러안고 《사고가 생기면 어쩔변 했어요.》 하며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띄웠다.

저녁에 길남이가 찾아왔다.

《성국아, 좀 나오렴.》

《왜 그래?》 성국은 으쓱해서 마주섰다.

《이자 선생님한테 갔잖어.》

《어째서?》 성국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지 뭐. 내 말을 다 들은 선생님은 웃기만 하시더라.》

《!》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서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 오시지 않겠니.》

《뭐?》

《다짜고짜 따지더구나. 〈선생이 성국이를 부추겼다는게 사실이요? 전번에 도마뱀소동을 일으켰을 때도 감싸주었다면서? 그렇게 두둔하기만 하면 애가 이답에 빛이 되겠소, 버릇만 굿히지. 가정수첩이라는건 왜 있소? 교원과 부모사이 학생교양대책을 세우자는거지.〉 아, 이렇게 다긋더니 나중에는 〈내가 나이만 젊어도 성국이의 버릇을 똑 떼는건데. 잘만 가르치면 크게 될 애를 못쓰게 만들겠소.〉 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가시더구나.》

성국은 급히 다그쳐 물었다.

《선생님은 뭐라시던?》

《그저 듣기만 하셨어.》

성국은 생각이 깊어졌다. 할아버지선생님은 내가 큰 사람이 될수 있는데 광실선생님이 그저 감싸주기만 한다는거지, 나는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은 왜 욕하지 않았을까? 큰 사람이 되는걸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장난꾸러기로 내버려두자는걸까. 이때부터 성국에게는 선생님에 대한 알지 못할 섭섭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어쨌든간에 절대로 장난꾸러기가 되지 않을테야.)

참새사건이 있는 후부터 성국은 길남이와 가까워졌다. 대상하고보니 형제가 많은 자기와 달리 외아들인 길남이는 무척 심심해했다. 그의 아버지는 농장사무원이고 어머니는 상점판매원이다보니 늦게 퇴근했던것이다. 첫날 그의 집에 놀러갔을 때 성국은 놀랐다. 그의 집 옷방에는 두 벽을 차지하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던것이다. 장안에 가득찬 책들중에서도 제일 부러운건 웬일인지 목침만큼 두꺼운 책들이었다. 성국은 그중 한권을 뽑으며 물었다.

《길남아, 이걸 봐도 되니?》

성국에게 보여주려고 저쪽장에서 만화책들을 뿔뿔히 길남이가 심드렁해서 대답했다.

《마음대로 해라. 난 그 책만 보면 머리가 빠개지는것 같애.》

막상 책장을 번지니 알지 못할 공식과 부호들만 가득하였다. 되대로 책장을 번지던 성국은 《천문학》이란 소재목에 흥미가 끌렸다.

《천문학이란 천체와 그것들의 체계, 그 구조와 운동, 물리적특성 및 발전법칙을 연구하며 그 법칙을 인간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부문이다.》

성국이 중얼거리자 길남이가 의아해했다.

《너 알수 있니?》

《응.》 대답하고불판이었다.

《그럼 가져가서 보렴.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책이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

이때부터 성국의 마음은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순서로 행성들이 돈다. 달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위성이다. ...

성국에게는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야말로 강철의 심장을 지닌 영웅들처럼 생각되었다. 몇몇 아이들이나 지켜보던 나무오르기보다 온 세상사람들이 지켜보는 별나라탐험이 얼마나 멋있을가!

다음날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고있었다. 그 시각 성국은 창밖을 보며 어디론가 날아가는 새들과 함께 우주를 향해 날고있었다.

《길남이와 성국이 100미터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기를 합니다. ...》

(나와 길남이가?)

성국은 우주비행선을 타고 먼저 달에 간다. 달에는 공기도 없다 한다.

《...길남이는 한걸음에 1.5미터를 뛰고 성국은 1미터를 뛸니다. 만약 길남이가 1초에 두 걸음을 뛰고 성국이 세 걸음을 뛸다면 누가 빨리 갔다올까요? 우리모두 함께 풀자요.》

(길남이가 따라와? 난 달까지 왔는데 ...)

이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국학생.》

창밖을 내다보던 성국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빨리 갔다올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른 길남이가 대들었다.

《아닙니다. 내가 빠릅니다.》

《하하하.》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이 터졌다. 함께 웃으시던 선생님이 두 아이를 달랬다.

《이건 진짜경기가 아니예요. 달리기경기는 운동장에서 하고 이젠 문제를 풀자요.》

길남이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앉았으나 성국은 자신있게 다시 대답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제가 1미터 이겼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몹시 놀라는 어조로 물었다.

《예, 달리는 속도는 같아도 길남동무는 보폭수가 크기때문에 귀환점에 가서 0.5미터 더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성국의 씩씩한 대답에 선생님은 여전히 놀라는듯한 눈길을 보냈다. 아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은 이어 성국이앞으로 다가왔다. 성국은 흠뻑했다. 책상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장난감들이 너저분했다. 종이비행기며 나무로 깎아만들던 로켓트, 필갑안에 칩 자리잡고있는 고무총파워들. 그것들을 눈여겨보시던 선생님이 돌아섰다. 후- 하고 안도의 숨을 쉬던 성국은 할아버지선생님은 추궁했을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큰 사람 만들려고. 이 선생님은 정녕 나를 쓸모가 없는 아이로 보았을가.

그후 국어시간에 모르는 단어를 물을 때였다. 먼저 길남이가 일어섰다.

《말.》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말이란 단어는 여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말, 사람이 타고다니는 짐승 말, 낱알같은 것을 되는데 쓰는 말, 내물에 자라는 말뚝.》

다른 아이들도 연방 물었다.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것 같았다. 그런데 길남이가 또 일어섰다. 대사, 대사관, 나중엔 중이니 스님이니, 길남이가 모른다고 물어보는 물음마다가 성국이를 자극했다.

하늘을 나는 공상에 잠겼던 성국이라도 뉘름 일어났다.

《우주.》

《우주?》

선생님이 처음으로 반문했다. 성국이를 잠시 바라보시던 선생님이 설명했다.

《우주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과 하늘을 올려보세요. 이 모든것이 우주랍니다.》

《아닙니다.》

《?》

아이들의 눈길이 성국에게 향해졌다. 선생님도 이상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럼 성국학생이 설명해요.》

성국은 호기심이 어린 아이들이 혹시 듣지 못할가봐 큰소리로 설명했다.

《우주란 영원한 시간의 흐름속에 있는 세계의 끝없는 공간과 그속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물질들의 총체입니다.》

《응? 건 또 뭐야?》

괴상한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방실거리며 지켜보던 선생님도 정색한 낯빛으로 성국이를 지켜보았다. 동안이 지났다. 이윽고 선생님이 되물었다.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란 뭐예요?》

《예?》

성국은 껌했다. 책에 적혀있는것을 암송했을뿐인 것이다. 선생님이 성국이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성국의 책상우에는 장난감은 없었다. 대신 누나가 뚜껑을 껌쳐 써워준 수첩이 있었다.

선생님은 그 수첩장을 한장한장 번지기 시작하였다.

성국은 자기가 쓴 글들을 잘 기억하고있었다.

첫장에는 《나의 희망은 천문학》, 다음장에는 《인류는 하늘의 돌이 무수히 떨어지건말건 우주를 정복할것이다.》 이렇게 써여있었다. 두번째 글은 책에서 베껴낸것이었다.

이때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아이들이 벌써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생각깊은 표정으로 성국이를 바라보더니 《그럼 모두 휴식해요.》라고 말하며 먼저 교실을 나섰다.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란 뭘가?)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던 성국은 누나에게 물어보았으나 누나 역시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허튼 소리 그만하고 누나를 도와 토끼풀이나 하렴.》하고 말할뿐이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고싶었으나 《손상 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묻지 못했다. 그 나날의 선생님의 모습은 그후 성국의 군사복무나날에 자주 떠올랐다.

성국이의 군사복무는 성스러운 군무생활이기도 했으며 끝없는 탐구의 나날이기도 했다. 그는 하늘의 날씨를 관찰하는 관측수였다. 하늘의 조화는 비행대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텅 비여있어보이는 하늘에서는 매우 복잡한 물리적인상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었다. 입대하여 처음으로 받는 전문상학시간이었다. 강의자인 지휘관은 상학뒤끝에 과제들을 제시했다. 바람과 폭풍, 저기압과 고기압의 발생, 태풍의 이동경로... 성국이 맡은 과제는 고공운도분포상태와 구름발생원리였다. 그는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 구름은 더운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생기는것이다. 답을 정리하던 성국은 단열팽창과 이슬점이라는 단어에 의문이 갔다. 그는 지휘관에게 물어보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먼저 들어가 받은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있었다.

이때 갑자기 아득히 먼 곳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국이도 물어보나요?》

...

성국은 오래 앉아있는것이 질색이었다. 문제풀이도 몇문제 풀면 되겠는데 50문제, 100문제, 나중엔 500문제, 1 000문제풀이경쟁까지 한다. 이런것은 장난이 심한 성국에게 몹시도 괴곤했다. 《손상 당한 자존심》이 생겨난 그날에도 성국은 수학시간에 우주비행선을 타고 별나라를 날고있었다.

《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울렸다. 성국은 정신을 차렸다. 그전에 성국이 울랐던 까치등지까지 거리를 계산하고있었다. 설명을 끝낸 선생님이 손가락에 묻은 백묵가루를 털며 말했다.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예》, ... 《예》...

이런 열성들은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언제나 먼저 물어보는 애는 길남이었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이 자리, 저 자리 옮겼다.

성국은 선생님이 책상을 스칠 때 일어섰다.

《선생님,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잴니까?》

책상을 지나치던 선생님이 돌아섰다. 성국이의 속을 들여다보는듯 한 선생님의 눈길에 밝은 웃음이 비졌다.

《성국이도 물어보나요?》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아무 미련도 없는듯이 그를 지나쳐 다음책상으로 갔다. 길남이랑 여러 아이들까지 히죽거렸다. 성국의 얼굴은 빨갛게 단화로앞에 선것처럼 달아올랐다.

(나를 외면하느냐.)

그날 수업은 몹시도 지루하게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성국은 방구석에 벌렁 누웠다. 저녁상을 차렸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나 밥상에 먼저 앉아 제 몫을 다 없애고 동생들 밥그릇을 넘실대던 그가 누워있는것이 걱정스러운지 어머니가 물었다.

《성국아, 어디 아프냐?》

성국이가 나았으며 불쑥 내뱉었다.

《엄마, 나 아버지 있는데 가서 공부할래.》

《너 정신있는 소리냐?》

《선생님이... 날... 미워... 해.》

성국은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그건 무슨 소리냐? 바르게로 말해라. 너 또 장난을 쳤지?》

어머니가 방비를 거꾸로 쥐고 다가왔다. 누나와 동생들의 눈이 켜해졌다. 뒤로 앉은걸음치던 성국은 벽에서 멎었다. 그는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말을 다 듣고 한동안 생각하던 어머니가 일어섰다.

《네 말을 들어선 뭘가 뭘지 모르겠구나. 가마에 돼지물을 안쳤다. 다 끓으면 식혀서 돼지에게 줘라.》

어머니는 누나에게 이르고 집을 나섰다. 이윽하여 돼지물 끓는 소리가 났다. 누나는 부엌으로 나가고 동생들은 여기저기 누워 잔다. 어머니를 기다리기 갑갑해난 성국은 밖으로 나왔다. 학교까지는 5분도 안되는 거리였다.

성국은 불이 켜져있는 교실로 발뼘발뼘 다가갔다. 선생님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성국이가 무엇을 물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저런 엉터리없는 녀석이라구야, 쯔쯔.》

어머니가 혀를 찼다.

《그 엉터리가 얼마나 엉뚱해요. 성국이 어머니, 성국이는 지금 우주를 정복하고있어요. 글썄 어린 가슴에 저 무한대의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흥분된 말을 어머니는 부정했다.

《원, 우주라니요? 그 앤 철딱서니가 없어 그럴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싶지 않습니다. 성국이의 엉뚱한 공상과 행동을 장난으로만 보고 추궁하고 놀려다써 생각할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이번에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고마운 시책을 펼친것이 무엇때문인가요. 전부 국가가 부담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성국이같은 애들을 찾아내고 키워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상에 앞세우자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디마디가 간절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미심쩍은지 기웃거리는데

《그렇게 된다면야... 성국이가 그렇게 될까요?》

《공상할줄 아는 성국이는 얼마든지 가능할겁니다. 문제는 품을 들여 공부하지 않는건데, 그래서 오늘 성국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성국이가 디디고 분발하길 바랐어요. 용서하세요.》

《원, 그러지 마십시오. 녀석은 그것두 모르구...》

《사실 교원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성국이를 대하고보니 저의 어깨가 가볍지 않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궁지도 크구요. 호호. 성국이 어머니, 이젠 제가 성국이에게 주려고 구한 참고서들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듯싶었다. 성국은 갑자기 숨차울라 창가에서 물러섰다. 멀찌감치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도 가슴은 계속 후드득거렸다. 선생님은 외면한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공상을 현실로 펼칠 힘을 키워주고있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있었다. 성국은 어머니앞에 나섰다. 어머니는 성국이의 어깨를 꼭 껴다.

《성국아, 너는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운다!》

《!》

성국이가 받은 책들은 당시 농촌마을에서 보기 힘든것들이었다. 어떤것은 선생님이 대학기간 보던것이였다.

이때부터 성국은 묻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힘으로 풀어낼 때 느끼는 기쁨은 몇갑절이나 큰 것이였다...

성국은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양열은 전자기파형태로 지구에 떨어진다. 파장은 단파이므로 대기의 열흡수는 19프로밖에 안된다. 지구에 떨어진 단파가 땅표면을 가열하면 열반사가 진행되는데 대기는 이 열을 42프로까지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더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대류운동이 진행된다. 이를 단열팽창된다고 한다.

단열온도경도는 고도 100미터당 약 1℃, 수직온도경도는 0.6℃정도 낮아진다. 이 차이가 이슬점에 이르면 구름이 형성된다. 낮은 층에서는 물김형태, 가운데층에서는 물김과 얼음조각형태, 높은 층에서는 얼음조각형태로 구름이 형성된다. 그러나 상승하는 대기속에 수증기와 응결핵이 될 티끌자들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은 성국이의 해답을 깊은 생각속에 듣고있었다. 그후 성국은 전투기술기재창안제작에 동원되어 창의고안명수로, 발명가로 이름을 떨쳤고 그 공로로 전사의 영예훈장1급을 비롯하여 많은 메달들을 가슴에 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성국이가 살던 마을은 많이도 변했다. 아담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나오고있었다. 상점에 들어선 성국은 살포이 좋은 단고기를 사고 당과류들과 술도 한병 곁들여쌌다. 걸을 때마다 손에 들린 단고기구렁이가 락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사연깊은 단고기였다.

...신록이 짙은 어느 여름날이였다.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다양한 행사를 조직했다. 성국이네는 제강소견학을 갔다. 그날은 어머니가 연구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날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연구사업을 받들어주려는 어머니의 극성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어머니는 전날부터 아버지면회와 자식들 견학준비로 바빴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드릴 닭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음식을 미처 만들지 못해 새벽차를 타고 먼저 떠나는 성국이에게만은 남새속을 넣은 증기빵 열개가 차례졌다.

기차를 처음 타보는 성국은 마냥 기뻐했다. 그것도 천리마의 고향으로 간다. 하루에 천리를 날으는 말을 탄 사람들! 선생님이 전설처럼 들려준 이야기였다. 어둠에 잠긴 차창밖을 명상에 잠겨 바라보는 성국이에게 길남이가 손을 내밀었다.

《자, 왕사탕이야.》

벌써 길남이의 한쪽볼이 블록했다. 성국이라도 가방을 열어제꼈다.

《남새속빵이야.》

《남새속빵?!... 맛있겠구나.》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결국 어머니가 싸준 점심은 빵 두개로 줄어버렸다.

구석진 촌에서 살던 성국이의 눈에 비낀 제강소는 굉장했다. 쇠물이 이글거리는 전기로, 도가니에서 쏟아져내리는 불보라, 부어진 피, 피는 다시 압연직장에서 제품이 된다. 6만톤공칭능력을 초과하고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낸 곳이다. 성국에게는 긴 쇠장대를 휘두르는 용해공들은 화점을 막는 영웅전사들로, 압연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적진을 짓밟개는 인민군대 땅크병들 같았다. 고작 농장수리반에서 호미, 낫을 버리는것밖에 보지 못한 성국은 모든것이 신비한 황홀경이였다.

견학을 마치니 12시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제강소

구내에 올랐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돈시켰다.

《혈을 맞춰요. 식사는 공원에서 하겠어요.》

성국은 주춤거렸다. 점심이란 빵 두개뿐이었던 것이다. 점점 걸음이 떠진 성국은 훌쩍 대렬에서 빠져나와 숨어버렸다. 나무에 기대고앉아 빵 한개를 게눈감추듯 먹어치운 성국은 다른 한개를 마저 먹으려다 기차를 타고갈 때의 일이 걱정되어 침만 꿀꺽하고 도로 넣었다. 저녁은 식당에서 먹기로 조직되어있었다. 공원을 바라보니 선생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식사하는것이 보였다.

(들키지 말아야겠는데. 까짓거, 들키면 뭐래, 아는 사람을 만났겠다고 하지 뭐,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면회만 안갔어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스쳤다. 이게 무슨 꼴인가.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면회만 안 갔어도 이렇게 구점스럽게 않을것이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 아버지한다. 새벽차를 타고 떠나올 때도 그렇다. 다른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바래주는데 자기는 겨우 두살우인 누나가 나왔다. 그때도 어머니 닭곰을 익히다며 부엌을 지키고있었다.

생각이 별나게 번져가자 성국은 얼른 도리머리했다. 감히 아버지에 대해 생각한것이 불손하게 생각되어 얼굴까지 달아올랐다. 이때 《성국아.》하는 길남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차! 까짓거...) 성국은 씨엥씨엥 올라갔다.

선생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성국이,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겠습니다. 잡썰보십시오.》

빵을 꺼내들며 속에 없는 말을 하자니 더듬거려졌다.

《저거, 남새속빵이구만요.》

선생님이 칭찬하자 길남이가 난땡 손을 내민다.

《나도 하나 주렴.》

성국은 그만 짜증이 났다.

《아는 사람을 만났겠다고 아니.》

《길남인 빵을 좋아하는게지.》 선생님이 웃으며 빵을 내밀자 길남이는 럽치도 없이 넉떡 받는다.

(배뽕룩이 같은거.)

성국은 슬그머니 부아가 나서 빵을 맛있게 먹어대는 길남이를 쏘아보았다. 저녁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으련만. 성국이의 기대대로 오후참관시간은 빨리 흘렀다. 느리나무에 기대고 감상글을 쓰는데 선생님의 부름소리가 들렸다.

《모두 모이세요.》

성국은 나는듯이 달려가 제일 앞줄에 섰다. 식당에 이르러 급해나서 먼저 들어가려는데 선생님이 그를 불러세웠다.

《이것 보지, 벡타이가 기울어졌구나. 단추는 다 채웠나요? 바지주름도 살펴야 해요.》

바지주름은 왜 살핀단, 결국 마지막에 선생님과 함께 앉게 되었다. 저녁식사는 단고기국과 밥이었다. 성국은 부지런히 수저를 놀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도 그의 목구멍을 괴롭히지 못했다. 한

참 술가락놀림끝에 땀을 흘치는데 선생님이 자기의 국그릇을 거의다 거덜이 난 성국이의 국그릇에 쏟았다. 어쩔새없는 순간이었다.

《선생님?》

《성국이, 나를 좀 도와줘요. 난 네발짐승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해요.》

선생님은 딱한 표정을 지으며 밥도 맹물에 몇순가락 말고는 성국이에게 넘겼다.

《선생님, 전...》

《아까운걸 버리겠어요?》

메스꺼워나는듯 선생님이 겨우 술가락을 놀리는 행동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기껏 배가 부른 성국은 자기가 점심을 번졌다는 생각을 감감히 잊게 되었다.

어둠이 깃들었다. 성국이네는 공원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다. 성국이의 곁에는 선생님이 앉아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강선에서 살수 없을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를 타고싶습니다.》

선생님은 《천리마?》하고 뇌이더니 성국이의 어깨에 누나처럼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성국이,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봤어요?...》

선생님은 성국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난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란 말에는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아끼면 어디서나 천리마를 탈수 있지만 덧없이 흘러버린 날과 달, 세월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국은 친근하게 들리는 선생님의 그 말이 자기에 꼭 필요한 말처럼 심중하게 생각되었다.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갔다.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한 높은 봉우리를 향해 천리마진군을 계속하고있어요. 이 벅찬 속도에 떨어지지 말자면 성국이라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우리 조국의 창창한 태일은 성국이와 같은 세대가 높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데 있어요. (갑자기 북쪽하늘을 가리켰다.) 〈천문학자〉 선생, 저게 무슨 별일까?》

성국은 《천문학자》답게 대답했다.

《작은곰 성좌의 북극성입니다.》

《옳아, 그런데 저 별이 왜 반짝일가요? 참 신기하지요? 성국이도 저 별처럼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면 과학계의 큰 별이 될수 있을거예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성국은 기가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아니예요. 저 하늘의 별도, 쏜살같이 달리는 로케트도 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거예요. 성국인이제부터 마음속의 별을 찾아보세요. 꼭 찾을거예요.》

선생님의 말은 마디마디가 확신에 넘쳤다. 선생님은 성국이가 무슨 학자나 박사로 생각되는 모양

이었다.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인가? 성국이의 가슴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마음속의 별을 찾자! 그게 뭐가.)

기차는 밤이 깊어서야 고향역에 도착했다. 뜻밖에도 어머니가 마중나와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견학이 재미있었니?》

《예, 굉장해요. 전기로두 이만하구 공장구내에도 기차가 왔다갔다하구. ...》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밥상부터 펼쳤다.

《이거 닭곰이구나. 아버지한테 안 갔됐어요?》

《어서 먹어라, 배고팠지?》

《아니. 자, 봐요. 아직두 배가 불룩한거.》

성국은 배를 쭉 내밀어보이며 자초지종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국은 말하다말고 물었다.

《어머니, 우나?》

《아까 불찌가 눈에 튀었잖아.》

(거짓말하누나.)

하지만 영문을 알수 없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 그날 아버지가 섭섭해하는것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

《자존심이 센 그 애가 얼마나 괴로웠겠소. 닭곰을 도로 가져가오. 재삼 당부하지만 성국이네를 잘 돌봐주면 난 오히려 더 기쁘오.》

이것이 닭곰이 되돌아온 사연이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은 두발가진 짐승고기만 잡숫는대요.》

《들었다. 아침에 닭곰을 갖다드려라.》

성국은 아침일찍 리합숙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다른 선생님이 나왔다.

《누구예요? 오- 엉뚱한 학생이군요. 동무네 선생님은 세면장에 갔어요. 그건 뭐예요?》

《어머니가 보냈습니다.》

《아니, 닭곰이구나. 호호호.》

(닭곰을 보고 웃기는 왜 웃는담.)

한참 웃고난 그 교원이 보자기를 도로 쫓다.

《동무네 선생님은 두발가진 짐승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해요. 몸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고기를 먹어도 딱 한가지, 단고기밖에 못 먹어요.》

《예?》

성국은 두눈이 다 멍그래졌다.

《믿어 안 저요? 이담 단고기가 생기면 대접해 봐요, 시벨전 양념까지 듬뿍 쳐서. 그럼 곱배기 두 청할거예요. 호호호. 명심해요, 단고기! 알았어요?! 호호.》

성국은 웃고 떠들며 청산류수같이 번지는 교원의 말을 멍청해서 듣고있었다. 담임선생님은 성국이가 점심을 건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성국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일부러 메스꺼워하던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삼삼히 떠올랐다.

성국에게는 그 추억이 《마음속의 별》을 새겨주던 그날의 그밤과 함께 깊이깊이 새겨져 세월이 갈수록 존엄높은 생을 걸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

여주었다.

그래서 성국은 자기 손으로 대접하게 될 단고기, 조미료도 듬뿍 준비한것이다.

아담한 살림집마당가에서 몸집좋은 할머니가 울바자앵두를 따고있었다.

《할머니, 문제를 다 풀었어요.》

《오냐, 간다.》

듣기 좋은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돗자리를 깔 마당에서 아이들이 오구구 모여앉아 공부하는것이 보였다. 다반에 잘 익은 앵두를 가득 채운 할머니가 돌아섰다. 성국은 그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할머니가 성국을 본다. 눈가에 패인 잔주름들, 흰 머리칼이 함치르르하던 옛적의 칠혹머리를 가리웠으나 쌍까풀진 두눈만은 처녀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을 수정같이 밝히던 눈이었다.

성국은 뜨거운 감개속에 인사말을 터쳤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뉘신지?... 아니, 성국선생이 아니나요?!》

불현듯 선생님의 눈빛이 번쩍했다.

《선생님!》

성국은 선생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다반을 급히 잡았다. 선생님이 성국이의 두팔을 쓸어내린다.

《이렇게 왔구만요, 이렇게...》

《선생님, 늦어서 미안합니다.》

《원, 무슨 말씀올... 참 애들아, 멍청하니 보기만 하지 말고 어서 인사를 해라.》

아까부터 낯선 손님을 이상스레 바라보던 아이들이 달려와 꾸벅꾸벅 인사했다.

《마을애들이예요. 수업만 끝나면 이렇게 밀려와 성화를 먹인답니다. 어서 앉으세요. 성국선생, 참, 아직 식전이겠구만요.》

선생님은 곧장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성국은 그를 만류했다.

《선생님, 제 뭘 좀 가져왔습니다.》

성국은 선생님에게 들고온 구력을 넘겨주었다.

《출장여가에 들렀겠는데 뭘 이런걸 다 들고다니나요. 애들아, 간식이다. 아니, 이건 단고기가 아니예요?!》

《생각나십니까? 제강소견학갔던 날 제 선생님 국까지 다 먹어치웠지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렵니다.》

《우리 할머니 단고기를 못 잡쥬요.》

성국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앞뜰나온 애가 제격 대답했다. 선생님이 그 애의 머리를 꼭 누르며 놀라 바라보는 성국에게 미안쩍은 웃음을 지었다.

《내 손자라우. 사실 혈압이 올라서 삼가했어요.》

성국은 어깨가 푹 꺼져내렸다.

《그렇게 되셨군요. ...》

《그럼 뭐래요. 저애들이 있지 않나요.》

손을 들어 황황히 저어보인 선생님이 구력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허리가 불편해보이는것이 성국의 눈길을 끌었다. 부엌에서 나온 선생님이 토방에 마주앉아 성국의 팔을 또 어루쓸었다.

《이렇게 찾아왔구만, 찾아왔어.》

《선생님,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성국은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

《다신 그런 말 말아요.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선생이야 어릴적에 참 엉뚱했지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수업시간에 창밖을 내다보기만 하다가도 질문하면 다 대답했어요. 아이때 뭐가 되겠다고 했는지 생각나겠지요?!》

《천문학박사!》

성국이대신 공부하던 아이들이 합창했다. 귀를 강구고있는 모양이었다.

성국은 고마왔다. 선생님의 기억속에 새겨졌다는것이 아이들의 말속에서 쟁쟁히 울리고있는것이다.

《너석들, 가만 있지 못할가. 교원생활 전기간 선생은 항상 나의 자랑이었어요. 지금도 텔레비존에서 재간둥이들이 나오면 얼른 선생을 생각하군해요. 그래 어디 오셨됐나요?...》

성국은 출장오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과학원에서 큰분이 오셨다더니 성국선생이었구만요. 참, 내 정신 봐라.》

선생님은 무엇을 잊은듯 급히 옷방으로 올라갔다.

의자에 올라 옷장우에 얹혀놓은 색날은 사품함을 내려놓은 선생님은 자그마한 열쇠를 열었다. 먼눈으로 피곳 그속을 들여다보니 잡동사니같은 별의별 물건들이 가득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며 글씨편습종이, 나무로 깎은 권총이며 수류탄파위들, 쪽지편지 같은것도 있었다. 선생님은 그속에서 흰 천에 싼 자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 펼쳤다. 뜻밖에도 그속에서는 성국이가 그 시절에 자작만들어 달았던 마분지열성자표식이 나졌다.

《선생님은 이걸 아직까지 건사하셨습니까?》

성국은 너무도 놀라 선생님과 열성자표식을 일나간 눈으로 자꾸 번갈아보았다.

《생각나나요?! 우리 약속했됐지요. 다시 장난을 하지 않을 때 돌려준다구. 사실 무슨 의미로 했던말은 아니였는데 돌려주자니...》

《!》

성국은 가슴이 뻘근해졌다.

...성국은 또 장난을 치고야말았다. 이번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어느날 어슬쩍에 집에 들어가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와있었다. 아버지가 온 날은 기쁜 날이다. 이날이면 두부를 앗는다, 메밀국수를 누른다 하면서 명절을 천다.

성국은 아버지한테 매달렸다.

《아버지, 오셨나요?!》

아버지는 《성국이나?》 할뿐 아무 말씀 없었다.

어머니도 슬그머니 외면했다. 영문을 몰라 두리번하는데 누나가 눈짓했다. 성국은 밖으로 따라나갔다.

《성국아, 우린 아버지따라 이사간다. 래일이 마지막공부야.》

《영? 왜 이사간다는거야?》

성국은 가슴이 철렁해서 소리쳤다.

《쉬- 아버지, 어머니가 피로워하겠어.》

마지막날 공부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다. 좋은 선생님과 헤어진다는 생각, 정든 동무들과 갈라져야 한다는 쓰린 생각에 속에는 재만 가득 쌓였다. 공부가 끝난 후 학교문을 나서며 그래도 동무들과 웃으며 헤어지자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길남이의 말소리가 신경을 자극했다.

《너희들 들었니?》

《뭘 말이야?》

《성국이 아버지가 연구사업하다가 실패했대.》

《실패? 왜?》

(저 자식이?...) 깜짝 놀란 성국은 다짜고짜 길남이를 닦아세웠다.

《자식, 다시 말해봐, 다시.》

《소문이 짜해. 너의 아버지 실패해서 소환된대.》

《뭘야?》

분별을 잃은 성국은 주먹을 휘둘렀다.

《아-》

길남이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코등을 싸쥐었다. 째새로 코피가 흘렀다. 이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학생들, 이리 오시오.》

이때 한 선생님이 중앙현관앞에서 그들을 손저어 불렀다. 가슴이 철렁해난 성국은 생각할 새도 없이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라-》

한동안 멍청해있던 아이들이 떠들어대며 따라왔다.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있었다. 성국은 농장강냉이밭으로 속 들어갔다. 길옆에 몰려선 아이들이 떠들어댔다.

《성국이, 나와.》

《너 선생님한테 대줄래.》

(마음대로 해.) 성국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발만 벗어나면 건설작업반이 나진다. 마당에 가득 쌓인 통나무무지속에 《지하실》이라고 이름지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까지 숨어있으면 된다.

발을 벗어난 성국은 멍하니 서버렸다. 제재는 언제 다 했는지 통나무 몇대밖에 없었던것이다. 할수없이 개울을 따라 올리걸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시간이 흘렀는지 둔덕에 올라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던 성국은 아찔해서 주저앉았다.

길남이가 자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학교정문으로 들어가고있었던것이다. 성국은 자기가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다는것을 깨달았다. 1년에 한두번 집에 들어오나마나한 자기 아버지와는 달

리 그의 아버지는 길남이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운동회때마다 한번도 어김없이 길남이를 앞세우고 나라날 때면 시샘이 난다. 학급에서 체기되는 일들도 발벗고나서서 해결해주곤 하여 선생님도 얼마나 반겨맞는지 모른다. 저녁마다 공부도 함께 해준다는 아버지, 방학이면 꼭꼭 평양구경시킨다는 아버지였다. 학급에들속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을 가본 아이는 길남이밖에 없었다. 이런 길남이의 코피를 터쳐왔으니 무사할것 같지 않았다.

성국은 개울을 따라 호수가로 내려갔다. 학교뒤 산아래에 있는 바다자리호수였다. 낮이면 해수욕으로 떠들던 호수는 조용했다. 성국은 제방쪽에 앉아 어둠이 깃들기만을 기다렸다. 노을이 불타던 서녘에서 땅거미가 슬금슬금 기어오더니 사위를 덮어버렸다. 호수가의 물만이 반짝이며 성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할 땐 몰랐는데 고요한 밤이 되니 강냉이잎에 스친 얼굴과 팔부위가 달아오르며 막 쓰러났다. 모기들까지 앵앵거리며 무섭게 달려들었다. 성국은 사프를 벗어내고 모기를 쫓기 시작했다. 갓 떠오른 초생달마저 자기를 애처롭게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이때 갑자기 성국이를 찾는 목소리가 가락이 맞지 않게 합창이 되어 울렸다.

《성국아—》，《성국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리고 누나의 목소리도 들렸다. 길남이와 그의 아버지목소리까지 들렸다.

성국은 눈을 꼭 감았다. 아무래도 나서야 할것 같았으나 비실거리며 나섰다가 후회하기란 딱 질색이었다. 성국이를 찾는 목소리는 멀어졌다가까와졌다 하며 사라질줄 몰랐다. 모기까지 더 성가시게 국성을 부렸다.

(에잇.) 성국은 불시에 서러워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 난 무엇때문에 숨어 다녀야 하나요. 이젠 다 아버지때문이야요. 길남이 아버지는 제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나를 잡으려 다니는데 난 아버지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무언때문에 고생스레 연구를 하면서 이 아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아버지 운동회에 한번두 온적이 없지요? 전학갈 때는 아버지때문에 증기빵밖에 못 싸갔어요. 에이, 씨. 성국은 울기 시작했다.

꼭꼭, 소리를 죽여가며 울던 그는 설음이 복받쳐 올라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없는 애처럼 수모를 받는것이 원통하기 그지없었다.

《성국아.》

《헉...》

사프를 구겨 눈을 싸안고 울어대던 성국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길남이 아버지가 서 있었다. 후닥닥 일어난 성국은 달아나려고 흠칫하다가 곧 서버리고말았다. 길남이 아버지너머로 길남이와 선생님이 서있었던것이였다.

길남이 아버지가 다가왔다.

《성국아, 너 울고있었구나. 길남이 이녀석, 어

서 와서 용서를 빌어라. 어서 빌지 않았어?》

길남이가 쭈뼛쭈뼛 다가왔다.

《성국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순간 성국이는 어리둥절해졌다.

《성국아, 나의 용서도 받아라. 자, 이젠 네가 좋아하는 책이다.》

길남이 아버지는 어리벉벉해있는 성국에게 옆구리에 끼고있던 책을 내밀었다. 천문학에 대하여 적혀있는 길남이 아버지가 몹시 아낀다는 책이였다.

《성국아, 눈물을 닦아라. 너의 아버지가 운동회에도 오지 못하고 저 바람세찬 곳에서 연구사업을 한건 무엇때문이였겠니. 우리모두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너의 아버지는 학급아이들의 아버지들중에서 제일 훌륭한분이란다. 우리 길남이가 철이 없어 그랬는데 내가 대신 용서를 비마. 그리고 성국아,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자, 어서 받아.》

얼결에 책을 받아든 성국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목놓아불렀다. 성국이의 목이 켜거낸 소리는 고요한 호수가의 물면을 따라 길게 울려갔다. 선생님의 손길에 초생달빛과 함께 성국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고있었다.

성국은 길남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를 용서해주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자기야 분명 길남이의 코피를 터뜨려놓지 않았던가. 이 사연은 후에 길남이한테서 받은 편지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성국아, 난 그때 선생님이 그처럼 분해할줄 몰랐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니. 〈길남이 아버지, 나라에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왜 실시합니까.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앞세우자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조국의 과학기술을 어깨에 당당하게 떠메고나가야 할 수재형의 학생이 어린시절의 가슴아팠던 쓰라린 추억때문에 신성한 과학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서슴없이 외면하게 될가봐 교육자로서 정말 참을수 없단 말입니다.〉

넌 상상도 못할거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땀을 뺀는지... 모든건 다 나때문이였어. 다시 용서를 빌어.》...

그후 성국은 선생님과 헤어졌다.

성국에게는 선생님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 이처럼 멀고도 멀었다. 그에게는 의무가 있었다. 그 의무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스쳐지날수 있는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울수 없는 사랑의 노래를 새겨준 누구도 빼앗지 못할 보답의 의무였다.

성국은 후더워진 눈길로 주름깊은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실 이걸 편지에 넣어보낼가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잊을수 없는 제자의 모습이 허울도 남기지 않고 훨 사라져버리는것 같은게...》

성국이의 손에 물날은 열성자표식을 넘겨주는 선생님의 손이 몹시도 떨렸다.

《할머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문제풀이를 끝낸 아이들이 너도나도 몰켜들었다. 하나하나 보아주며 차근차근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에는 긍지와 사랑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어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교원생활을 시작할 때 선생은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받았는데 저 애들은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지금 학교에선 교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젊은 교원들이 나를 초청하곤 하는데 난 항상 선생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요.》

《예?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성국은 리해되지 않아 고개를 기웃했다.

선생님의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어렸다.

《난 믿었어요, 선생이 큰일을 할 것이라고. 믿음은 눈이나 귀에 있는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지 않아요. 난 선생이 큰사람이 돼서 꼭 찾아오리라 믿었어요. 아니아니, 이미전에 찾아왔다고 생각돼요. 또 영원히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해요.》

《!》

성국은 코마루가 정해왔다. 언제까지나 기다리실 선생님의 드립없는 믿음이 수십여년동안 성국이의 심신을 괴롭힌 빛이었고 또 힘이기도 했다.

《할머니, 다 풀었어요.》

문제를 또 다 풀어낸 애들이 선생님에게 매달렸다.

성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애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 앞에 더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리고 12년제의무교육의 더 높은 날개를 달은 새 세대들을 위한 대학교재도 새로 써야 하는 그로서는 무척 바빴던것이다.

《선생님, 제 가봐야 하겠습니다.》

《단고기가 끓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의 놀란 얼굴이 성국을 지켜보았다. 성국은 미안스레 팔목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구 시간이...》

선생님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다. 성국은 속으로 말했다. 용서해주시시오. 선생님, 언제나 찾아오겠습니다. 어디서나 찾아오겠습니다.

성국은 열성자표식만은 차마 가져갈수 없어 슬그머니 토방구석에 놓았다.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나눈 성국은 급히 걸기 시작했다. 영원토록 선생님에게 빚진 심정으로 살것이라는 생각이 걸음을 다우치게 했다.

아이들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박사선생님-》

《?》

아이들이 뒤질세라 달음박질을 쳤다. 달려온 아이들이 성국이의 주위에 몰려섰다.

《박사선생님, 이걸 못 가져갔습니다.》

앞뜰이 나온 선생님의 손자애가 성국이가 놓고간 열성자표식을 들고있었다. 그것을 받아든 성국은 얼른 마을쪽을 살폈다. 선생님이 언덕위로 올라오고있었다. 한손을 허리에 짚은것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다. 언덕에 오른 선생님이 손쳐어주고있었다. 허리에 짚었던 손을 눈가로 가져가는것이 보였다. 한생 저렇게 제자들을 바래왔으리라.

성국이의 눈에도 맑은것이 맺혔다. 성국은 아이들이 불세라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열성자표식뒤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그것을 다시 짚 성국은 《이걸 할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하고 손자애의 손에 쥐여주고는 급히 돌아서 걸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멈출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유 래

창자가 끊어지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간혹 몹시 슬프거나 애가 타는것을 《창자가 끊어지다》로 표현하곤 한다.

이 말은 창자가 타서 끊어지는 정도의 커다란 슬픔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어떤 장사군이 길을 가다가 어미없는 빈굴에 원숭이새끼가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장사군은 귀여운 원숭이새끼를 덥석 안고 강가로 나가 배에 올랐다. 이때 먹이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던 어미원숭이가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어미원

숭이는 손에 쥐었던 먹이를 내동댕이친 후 정신없이 새끼를 부르며 달려갔다. 얼어지고 넘어지며 강을 따라 수백리길이나 달려간 어미는 마침내 배를 따라잡고야말았다. 사랑하는 새끼를 부르며 배안으로 뛰여든 어미원숭이는 새끼를 와락 부둥켜안은채 그만 그 자리에서 숨지고말았다. 어미원숭이의 가공한 정상에 동정이 간 장사군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만 예야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있었다. 이때부터 몹시 애가 타거나 슬퍼서 내장이 끊어지는듯 함을 가리켜 《창자가 끊어지다》로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

시 초

남흥의 하늘은 왜 붉은가

박 상 민

폭포이야기

비료공장에 들어서면
온통 폭포이야기
랑만넌친 남흥사람들
더운 가슴이 쏟아놓는 폭포이야기

봉탄직장 성형기앞에서
자랑스레 터치는 반장동무의 말
비료생산의 첫 공정이 폭포처럼
온 공장이 비료폭포를 쏟는다는 이야기

온 하루 아니 온 한해를 듣는데도
새롭고 놀랍기만 한 남흥로동계급의 정신
그 심장이 뿜어치는 붉은 마음 비료로 되었던가
결사관철전에선 이런 폭포도 모자라는듯

흘린 땀 방울방울이
출하장에서 알알이 여물어 쏟아지고
남흥의 비료맛이 달고달아
저 열두삼천리별도 난알산을 쌓는다는 이야기

아, 애국의 한마음이
비료폭포의 원천이라고
목메여 터치는 남흥로동계급의 이야기는
행복의 폭포이야기로 메아리치고있구나

탄이 비료로 될줄이야

탄이 비료로 될줄이야
과학의 재간에 놀라면서도
그때도 못미더워 눈비벼 다시 보네
흰쌀같은 하얀 비료 이 손에 정히 담네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그 말씀
남흥의 하늘가에 찌렁찌렁 울리는듯
출하장에 솟은 비료산들에 메아리치네

귀기울이면 울려오는
우리 장군님의 믿음의 말씀

기존기술에 매여달리지 말고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기치 높이 들라신
그 뜻에 충실한 남흥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

저기 탄광막장에서 울리는
발파소리처럼 남흥땅을 진감하는가
내 가슴 후련토록 폭포처럼내리는
흰쌀같은 주체비료 눈부시네

탄이 비료로 될줄이야
누구나 출하장에서 감탄해도
나는 다르게 말하고싶네
아, 탄이 쌀로 될줄이야

랑만 그리고 위훈

언제봐도 화려한 합숙방
맑은 창문을 쓰다듬는 햇빛을 바라보며
갓 스물 봄꿈에 젖은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랑만 그리고 위훈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랑만
즐기고 누리는 랑만이라면
이렇게도 가슴벅찰수 없답니다
시련을 이기는, 행복을 창조하는 랑만
위훈으로 줄달음치는 남흥의 랑만을 말합니다

궁지로 가득찬 처녀의 가슴
수령님 잡아주신 터전위에 일떠선 공장
장군님 믿음속에 자력갱생하는 공장
원수님사랑속에 첨단을 돌파하는 공장
대를 이어 누리는 영광속에 솟구치는 랑만이랍니다

탄부들의 땀이 어린 석탄으로
농민들의 가슴 달굴 주체비료를
선군의 랑만속에 폭포처럼 쏟아낼 때
처녀의 위훈은 비료산우에서 빛난답니다

우리 장군님 지어주신
청춘원과 체육관에서 터치는 랑만
고마운 어머니당에 진정을 바쳐가는 랑만
그것이 없으면 위훈도 없다는 처녀의 말

아,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자란
만병초같은 이 나라 장한 청춘이 아니고야
어찌 이런 위훈의 진리를 심장으로 퍼넌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주신 파업관철이
삶의 목표이고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처녀의 말

여기서 울리는 비료가 쏟아지는 소리
저 벌에 울려가면 오곡이 자라는 소리가 되고
사회주의농업전선에선 쌀의 노래로 울려 퍼지리

수령님과 남흥

오시면 기쁘시여
쉬이 떠나지 못하시던 수령님
하얀 비료 쏟아지는 출하장에서
온 나라에 솟는 난알더미 그려보시던
수령님 그리움에 불타는 남흥

한줌 비료에도
수령님께로 달리는 마음담으며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농업전선의 병기창으로 솟아있을 남흥

장군님께선 늘 남흥을 안고
조국수호의 최전연에도 가시였다
사회주의경쟁바람 불려주시는 농장별
관리위원장들에게도 소개해주시였다
남흥의 주체비료 그 달디단 맛을...

행복이었다
크나큰 영광이었다
위대한 장군님 모실 때마다
수령님 생각으로 눈곱 뜨거운 남흥사람들
그 마음 헤아리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사랑의 자욱 새기고 떠나시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신 남흥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자고
남흥로동계급의 소원을 풀어주자고
최상의 믿음 다시없을 영광을 주신 장군님

아, 수령님과 남흥
그리움에 불타는 남흥로동계급이
김일성훈장을 수여받던 날은
주체비료 높이 쌓고 수령님을 또다시 맞이한
날이었다

남흥의 하늘은 왜 붉은가

은빛관들의 숲우에
노을이 비껴든다
붉은빛을 받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무수한 관망들이 붉은기처럼 빛을 뿌린다

하늘을 태우는 노을은
남흥로동계급이 추켜든 붉은 기폭인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파업관철로 뿜어내는 심장의 불길로
이 하루 저 하늘에 노을이 불타는가

우리 수령님과 류다른 인연을 맺고
우리 장군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기대앞에서도 땅을 안고 오곡을 가꾸어온
남흥의 냇이 저 하늘에 다 띄어져있다

결사전이란
총폭탄이 튀는 싸움터에만 있던가
—생산을 멈추지 말라!
압축기 수리전투는 생사판가리싸움
한 수리공이 쓰러지면 다음 수리공이...
돌격로를 열어 고지를 탈환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

그날 쓰러진 수리공의 품에서
붉은 천에 싸인 입당청원서를 꺼내든 세포비서
젖어드는 눈가에 비껴든것은 노을타는 하늘
그 하늘에 빛나는 붉은 태양

어느 애어린 처녀가 말했던가
승리의 기치를 받든것은
죽음도 두렵없는 미래를 그려보는 랑만이라고
땅에 새겨지고 저 하늘 가득 띄어진
남흥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이 쌓은 비료산

흰눈같이 희게만 볼수 없다
알알이 비료속에는 붉은 피방울이 뿜다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농업전선의 병기창의 힘찬 동음이 하늘에 메아리친다

아, 남흥의 하늘은 왜 붉은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을 삶의 목표로 세워
세계를 굽어보는 조선로동계급의 배짱이
낮에도 밤에도 저 하늘을 불태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어찌 붉게 타지 않겠는가



리 성 식

일은 그야말로 공교롭게 됐다.

늦저녁때 회의를 끝내고 지구부장들을 내려보낸 지 반시간도 못되어 구성통호사업소 부장에 대한 신소편지가 총국일군한테 전달됐던 것이다.

...

부장 김영철은 기관이 자체로 살아나간다는 명목 하에 비경지농사와 집짐승기르기 등 부업을 우선시 하면서 종업원들을 그 일에 내몰고있습니다. 그러다나니 기관의 기본사업이 지장을 받는 엄중한 후파가 초래되었습니다. ...

총국일군은 당장 손전화기로 김영철부장을 찾았다.

인차 통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위치가 어디요?》

《원산관광도로를 달리는중입니다.》

《원산엔 왜 가요?》

《돼지먹이첨가제때문에 좀...》

《기본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한 회의를 방금 했는데 동판지같이 돼지첨가제 뭐요? 한심하다니까.》

총국일군은 김영철이 이미 멀리 간지라 되불러 들일수 없어 전화를 꺼버렸다.

한생의 주로

(주인공의 이야기)

매미처럼 생긴 반집차는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따라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좌석등반이에 옷몸을 기댄 김영철부장은 무료감에 시달리다가 피곤하여 눈을 감았다.

부릉거리던 차동음이 귀가에서 잦아들더니 어디선가 꿀꿀대는 소리가 울려왔다. 이어 뿌옇게 흐려지던 시야에서 환영이 일어났다. 널다란 방안에서 오픈거리던 새끼돼지들이 앞발을 쳐들고일어나 콩

당콩당 춤을 춰대더니 별안간 지붕을 터치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는것이였다. 배개만 하던 새끼돼지들이 어느새 중소만큼이나 몸집이 부풀어나며 풍선처럼 하늘로 둥둥 떠다닌다.

《잘한다! 새 비육첨가제가 은을 냈구나. 좀더 커라, 좀 더... 하하...》

환희에 들떠 두팔을 휘젓던 김영철은 제 몸도 허공으로 붕 날아오르는 바람에 《엇쿠-》하고 헛소리를 치다가 눈을 떴다.

쪽잠결에 지나친 꿈이였다. 아마도 평시에 늘 사업소의 축산발전때문에 신경을 써오고 또 지금도 총국에서 조직했던 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새로운 비육첨가제도입을 위해 원산농업종합대학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런 환영이 일어난것 같았다.

김영철은 절로 씩 웃음을 지었다. 까짓거, 꿈이면 어떻고 공상이면 어떻단 말인가. 돼지들이 순식간에 푸둥푸둥 살져오르는데 실지 그렇게만 되면야 한해에 돼지고기 20톤이 아니라 50톤도 생산하지 않으리.

한창 마음이 흥떡이는데 손전화기호출음이 울렸다.

김영철은 허리춤에서 손전화기를 꺼내 수신단추를 눌렀다.

전용현당비서의 기쁨어린 음성이 울려나왔다.

《순둥이가 방금 열마리를 낳고 마지막태줄을 끊었습니다.》

《첫배치곤 상당하구만요!》

김영철이 기쁜 내색을 하는데 전용현이 불쑥 화제를 바꾸는것이였다.

《지금 위치가 어디니까?》

《신평으로 가는 로상입니다.》

《새벽에야 원산에 들어서겠는데 눈을 좀 불이 십시오. 그러다 부장동지의 병이 도질가봐 걱정됩니다.》

《원, 제 생각이나 할거지. 순동인 정립동무네한테 맡기고 비서동문 어서 집으로 가시오다. 자정이 지난지가 언제래 아직 돼지우리에 있는거요.》

통화가 끝난 다음에도 김영철은 한동안 심정이 흐트해 앉아있었다. 전용현당비서! 지내볼수록 믿음이 가고 힘들 때면 의탁하고싶은 사람이다.

시량정사업소 수매과장을 하던 김영철이 룡호사업소 부장으로 임명된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어 온 나라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북소리를 한창 울리던 2002년도였다.

문건인계를 끝내고 현장료해를 나간 김영철은 막연하여 숨이 다 막힐것만 같았다. 현장실태가 너무도 한심했고 종업원들 생활형편도 어려웠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을 극도로 악화시킨 원쑤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번졌고 일시적인 난관에 손뎌를 놓고 주저앉아 하루살이식으로 동면이나 해온 일꾼들이 민망스러웠다. 그럴수록 자신이 지닌 책임감으로 해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영철은 대담하게 낡은 창고와 휴게실들을 허물어치우고 새롭게 현대적으로 짓는것으로부터 사업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이리저리한 난관이 겹쳐들었다. 자재, 로력, 시간...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던 때였다.

애써 자재를 구해들이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한채, 두채 건물도 짓고 주변정리도 새 세기 맛이 나게 알뜰하게 한 후 이어 구내 건조장을 꾸리었다.

그 나날에 김영철은 기관사업이 잘되자면 종업원들이 발동되어야 하고 종업원들이 발동되자면 뭐니 뭐니해도 그들의 생활조건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여 어려해 걸려 현장쟁신을 끝낸 후 비경지농사와 축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현장주변의 돌서덕비탈지를 개간했고 서산천의 버들숲도 옥답으로 만들었다. 한편 축산반을 따로 내와 염소와 돼지도 길렀다.

김영철은 한개 기관을 맡아 운영해나가면서야 사람이 힘들다는게 어떤건지 실지로 체험했다. 정말로 힘들었다.

그럴 때 김영철의 어깨에서 짐을 내리워 함께 걸머지는 사람이 있었다. 전용현당비서였다. 인민군대에서 중대정치일군까지 한 경력이 있는 전용현은 사람이 짹짹하면서도 주대가 있고 내밀성이 강해 좋았다.

김영철이 기업소특성에 맞는 부업인 돼지를 한해에 몇마리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백마리 길러낼 작정을 하고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과 미생물첨가제에 의한 사육법도입을 받기하자 전용현이 먼저 찬성해나섰다. 그래서 신심이 생겼다.

헌데 정작 일판을 펴자고보니 겨울이 눈앞에 있었다. 10월 중순... 이제 극상 한달이면 추위가 시작되겠는데 그 짧은 기간에 집짐승우리를 지어낼

것 같지 못했다.

그래 주저하는데 전용현이 은근히 힘을 주었다.

《부장동진 앞에서 내달리기만 하십시오. 뒤통리 내가 할테니.》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전용현은 김영철이 기업소의 기본임무수행에 몰두하는 속에서 축산에도 품을 들이느라 바빠하자 그를 대신해 직접 건설시공을 맡았고 만약 미달하는 부서나 성원이 있을 때는 자신이 그들과 같이 화불을 켜들고 밤을 밝히면서라도 집행하군 했다.

좋다, 당비서가 있는데야... 김영철은 배심이 든든해져 크게 일판을 벌렸다. 했건만 립동추위가 닥쳐와 동해에서 도루메기가 터져나오고 눈쫂이 날리자 이걸 어쩔담? 하며 겨우 기초양생이 끝난 집짐승우리와 종업원살림집터를 걱정스럽게 돌아봤다.

그때 전용현이 전에없이 담배불까지 붙여 권하면서 슬쩍 충고하는것이였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부장동지가 뒤를 돌아보느라하면 기관전체의 시간이 낭비되고 걸음이 떠집니다.》

그 말에 속이 긴장됐다. 김영철은 옳다, 이왕지사 내친 걸음은 결사의 각오로 밀고나가야 한다 하며 일을 내밀었다. 보온식양생법을 받아들여 강추위속에서도 건설을 진척시켜 12월말엔 새끼낳이실 24칸, 비육실 24칸을 갖춘 온실식집짐승우리 두동을 멋있게 일떠세웠다.

하지만 집짐승우리가 좋다 해서 축산이 절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돼지종자확보, 먹이장만, 과학기술적인 사양법도입... 그렇게 오금이 쏘도록 뛰여다니고도 일부 웃일군들의 폴리해와 종업원들의 불평불만과 비난을 받을 때면 손뎌이 싹 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애써 자래운 새끼낳이용어미돼지들이 관리공의 잘못으로 죽어나갔을 때 김영철은 정신육체적파로를 못이겨 자리에 쓰러졌다. 병마가 기다린듯 쇠약해진 그를 덮쳤다. 끝내 허탈이 오고 자포자기에 빠졌다. 며칠동안 앓던 그는 자기는 큰일할 재목이 못된다면서 사임문건을 제출했다.

어느날 시당에 갔던 전용현당비서가 그 사임신청서를 대수롭지 않게 사업노트에 끼워든채 집에 누워있는 김영철을 찾아왔다.

전용현은 약꾸레미를 이불안에 밀어넣으며 심각해서 뇌이는것이였다.

《부장동진 우리 기관의 세대주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어떠하다는거야 잘 알겠지요? 술한 종업원들 아니,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번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김영철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났다. 해방후 보안간부훈련소를 나오고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때에는 인민군 대대장으로 용

감히 싸웠으며 전후에 제대되어서는 영예군인의 몸으로 공장지배인사업을 성실하게 해온 아버지! 늘 생산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와 올망졸망한 자식들(아들 셋, 딸 둘)문제때문에 아글타글 애쓰며 고생하던 아버지를 추억하느라니 그 나날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강의한 의지와 열성을 발휘하게 하였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 순히 기관책임자, 가장으로서의 의무나 책임감때문은 아닌것 같았다. 의무나 책임감이란것도 정과 사랑으로 안받침될 때라야만 드림이 없고 헌신적인 노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옳다, 사랑! 바로 그것이였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애쓰는것은 사랑하기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종업원들을 사랑했다면 지금처럼 너희들끼리 살아가거라, 난 힘들어 가장노릇 못하겠다 하며 나앉지는 않았을것이다.

김영철은 자기가 하마터면 사회와 집단에 필요없는 존재가 될번 했다는 깨달음에 소스라치며 자각했다. 자신을 제때에 깨우쳐준 전용현당비서가 고마웠다.

그날부터 아픔이 멎고 누워있기가 불안해 종내 자리를 털고일어나 사업소로 나갔다...

김영철은 차가 들추는 충격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가만 있자... 이 사람이 돼지에 정신이 팔려 중요한걸 잊고있겠군 그래.)

김영철은 손전화기를 꺼내 호출단추를 눌렀다.

얼마후 수신음파를 타고 안해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보세요.》

점차 또렷해지는 음성에서 애뜻함이 느껴진다. 불과 2시간전에도 위병이 도지지 않게끔 식사를 제 시간에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해오던 목소리다.

김영철은 부부간의 정회에 젖어들다가 《거 있잖소, 영미(전용현의 딸)가 래일부터 경공업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겠는데 아침일찍 뭐 좀 준비해가지고가 먹ियो. 그 애 어머니가 요즘 본가에 가 없어 그래.》 하고 명령조로 말했다.

《...》

묵묵부답이다. 피곤하게 자던 사람을 깨워놓고 극상 한다는 소리가 남의 집 애한테 뭘 해먹이라는 소리냐? 이런 내심이 느껴졌다.

김영철은 더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전화기를 껐다. 피로가 엄습해와 웃음을 반쯤 눌렀다. 차속도가 굼뜨게 여겨지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종업원들에 대한 고기능급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청천강 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매달 큰 돼지 다섯마리씩 지원하기로 계획했는데 그걸 실행하자면 한시바삐 종합적인 집집승우리도 일떠세우고 새 비육첨가제도 도입해야 했기때문이다.

김영철은 초조한 눈길로 앞쪽을 바라보았다. 끝을 알수 없는 길이 닥쳐왔다가는 지나가고 또 닥쳐오군 한다. 멀고 힘들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였다.

생활의 언덕

(명영희의 고백)

솔직히 말해 난 그때 섭섭했어요.

그즈막에 우리 집안 사정도 말이 아니였답니다. 시집간 딸딸 정심이는 임신 막달이 되어 당장 산원에 실려가야 될 형편이지, 둘째 정환인 군의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배치문제도 궁금하지, 어머니 여든뎡생일도 박두했지, 동파로 인해 창고벽은 켠뼉 깨졌지...

밤늦도록 그러루한 가정일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겨우 풋잡이 들었던 날 깨워 한다는 소리가 글썽...

송수화기를 들고 굳어진 나는 왜서인지 지난날이 떠오르며 마음이 심란해지더군요.

내가 정심 아버지(김영철)와 가정을 이룬것은 스물여섯해전인 1987년 가을이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벌써 그렇게 되였군요.

결혼식날 밤 정심 아버지는 나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쏘아부으며 속삭였했어요.

《내 꼭 필요한 사람이 될테요.》

그 말이 나에겐 가정과 안해한테 충실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려왔어요. 난 가볍게 머리를 저었어요.

《남자가 가정에 묻히면 큰사람이 못된대요.》

구성남자중학교(당시) 축구선수였고 군대때는 런던축구선수였던 정심 아버지는 비록 체격은 작아도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직장일이나 집단을 위해서는 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느라 집일은 영 무관심했어요.

난 정심이, 정환이 두 아이를 낳아키우고 시부모를 돌보고 집세간살이를 꾸리느라 힘에 겨웠지만 군소리없이 정심 아버지의 뒤바라지를 해왔어요.

이 나라의 가정주부들이 다 그러했듯이 고난의 행군은 나에게도 형언키 어려운 육체적부담과 정신적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생일을 쇠는 시부모들의 밥그릇에, 등산가는 아이들의 밥곽에 산나물범벅을 담아줘야 하는 이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량정사업소에 일다니는 남편이 현미라도 한키로 꿈져안고 들어올가 해 그의 손을 쳐다보곤 했겠나요.

어느날 저녁 멸진 죽 한공기로 끼니를 예운 정심 아버지가 심각해서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제 엄마의 주머니가 비였다는걸 알면서도 행여나 해 청일대는건 칠없는 소행이지만 어른들이 나라창고가 비였다는걸 알면서도 가만 앉아혹시나 해 국가공급을 바라는건 량심없는짓이요. 이럴 땐 가정이나 기관이나 자체로 힘껏 일해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 하오.》

그 조용하면서도 엄한 욕은 나를 정신차리게 해

주었어요. 비로소 난 가정주부로서 할바를 깨달았던 것이예요.

나는 뒤늦게나마 집집승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돼지도 기르고 닭도 쳄답니다. 처녀때 친정어머니의 돼지기르기를 방조해온것이 큰 밑천이 되었어요.

집집승부업이 은을 내 점차 가정살림이 펴이었고 시부모공대와 자식들 뒤바라지도 험해졌어요.

몇해 지나자 동네에서 생활이 팽팽은 죽에 속했답니다. 살림이 펴이니 이웃간 친척간 서로 오가기도 편해져 좋더군요.

세월은 류수라더니 가정 하나를 일떠세우느라 고 불랑거리는데 10년이 훌쩍 지나가 애들은 사회와 군대로 나갔어요. 또 어느새 나이들이 들어 정심이는 시집갈 때가 됐고 정환이는 병사생활을 끝내고 군의대학 학생이 되구요.

참, 정심이 아버지는 썩 이전에 중요한 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임명됐어요.

남편의 직위가 높아졌고 사업권한이 커졌지만 난 애당초 그한테 의탁할념을 내지 않고 제 손으로 자식들의 앞일을 풀어나갈 준비를 착실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우리 집에서 생겼답니다.

남편이 글썽 정심일 시집보내려고 애써 장만한 가구들과 어미돼지를 사업소의 부업밑천으로 쓰려고 실어내가질 않았겠어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질치는 어미돼지를 걷어내고 기분 좋게 사육거리며 멀어지는 반집차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느라니 가슴이 막 허벼지더군요.

《엄마, 근심마. 나 시집갈 때 저런거 하나두 없어요 돼.》

딸애의 그 말이 종내 나를 울렸어요.

난 집집승부업을 새로 시작하드십이 해 한해만에 종축돼지와 가구를 다시 장만했습니다.

그즈막에 알맞춤한 대상자가 나져 정심이 약혼도 이루어졌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던 어느날 정심이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두어키로썬 썬쳐들고 들어오더군요.

《우리 기관에서 생산한거요. 오늘 수십명 종업원들한테 첫 공급을 했소. 비경지농사도 팽팽게 됐소. 매 세대들에 공급할 겨울나이용석탄도 해결했고. 여보, 전엔 참 안됐소.》

이러며 시름없이 웃는 남편을 보느라니 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고까움이 저도 모르게 봄눈처럼 녹아버리질 않겠어요. 그 순간엔 내가 세대주네 기관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 큰 보탬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어쨌든간에 기업소가 부흥해서 그 종업원들의 세대들도 잘살게 되니 기쁘더군요.

돼지고기며 여러 음식들을 푸짐히 차려놓고 가족이 오붓이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할 때 난 한결 썩

썩해진 태도로 정심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기관을 그만큼 추세웠으면 이젠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몸상태가 말이 아니예요.》

그러자 정심 아버지는 할일이 가득한 때에 쉬엄쉬엄이 뭐냐며 나를 나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많은 일을 제끼면 그만큼 나라의 부담이 덜어진단 말이요.》

나라의 부담이란 소리에 난 가슴이 띠끔해졌어요.

나라가 부흥해야 매 가정들도 잘살게 된다는 정심 아버지의 말에서 난 깨달아지는바가 컸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일을 힘차라는것 뒤받침해왔어요. 기관책임자의 안해구실, 종업원들의 누이나 어머니구실을 하기가 간단치 않더군요.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생활도 방조할때, 화목장에서 뜻밖의 사고로 몸을 상한 축산반장네 아들도 보양할때, 젊은 종업원 여성들의 산후시중도 들면서 가족들과 같이 사업소 비경지 곡식까지 가꾸면서 여러 잡다한 일을 맡아 하느라니 너무 힘들어 내 남편이 차라리 부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날 밤도 온종일 밖의 일에 시달리고난데다 가정일로 해 머리가 아프던중인데 전화를 걸어온 남편이 누구네 집자식한테 뭘 어쩌라는 말을 명령조로 던지고는 전화를 뚝 끊어치운게 고까워 심정이 자연히 애달파졌어요.

내가 어둡던 창밖만 내다보며 잠을 못 자고있는데 전화종이 다시 울리더군요. 난 정심 아버지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 랑해를 구하러 그러는줄 알고 한참 앵돌아졌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헌데 수화기에선 의외로 전용현당비서의 음성이 울려나오질 않겠어요.

《매일 10시경에 차를 가지고 가겠으니 정심이 입원준비를 하십시오.》

이튿날 중낮때 정말로 승용차가 집앞에 와 서서 경적을 울리더군요.

당비서동지와 리학제세포비서동지가 내렸어요. 뒤따라 건설자재와 로력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들이닥쳤어요.

《정말 안됐습니다. 부장동지네 집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이러며 그들이 산모용참미역이며 산꿀이며 애기포단들을 나한테 안겨주고 창고수리도 시작할 때 난 가슴이 뭉클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다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난 그날에야 비로소 기관과 종업원들을 위해 바친 남편의 헌신에 대해 눈물겹게 느꼈어요. 그 헌신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나요.

인간의 정

(한 여성노동자의 일기)

그 남자는 갔다. 그는 나의 한생에 다시 만나지 못할 좋은 대상자였다.

허나 나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 38살의 과년한 내가 무슨 배심으로 그런 괴이한 결단을 내렸는지 나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다.

실망한 그 남자가 뉘다리고개너머로 사라진 후 나는 인차 현장으로 향했다.

서산마을 한끝의 산코숭이를 돌아서자 과일동산 탁에 아담히 들어앉은 현장건물이 한눈에 안겨왔다. 정다운 나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어려서 랑부모를 잃고 친척네 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남달리 성미가 거칠었다. 중년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살아오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그리운것이 정이었다.

2010년 초봄이었다.

어느날 50살안팎일 갱뽕하게 생긴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가 인사말삼아 《동무가 일도 잘하고 손이 걸여 집짐승을 잘 기르다가에 데려가려고 왔소.》하고 뇌이길래 나는 의아해 어디서 온 누군가고 물었다.

《난 룡호사업소 부장이요.》

하지만 웃는 그에게 나는 오금을 박았다.

《절 데려다가 집짐승관리를 시킬 잡도린데 짐승 부업이란 뭇려면 한해에 번창하고 안뭇려면 한달새에 망해요. 만약 일이 안되는 경우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내쫓진 않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거요, 내가 있는 한.》

아무리 뜯어봐도 그가 실없는 사람같진 않았다. 인정이 내비치는 서글서글한 눈이 나의 마음을 은근히 꼬당겼다. 이렇게 나는 그와 만났다.

내가 기업소에 들어갔을 때 현장은 이미 개건확장된 상태였고 축산반은 갓 무어져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축산반이라야 반장, 관리공 합쳐 세사람에다가 돼지 일곱마리, 염소 열세마리, 토끼 스물댓마리가 전부였다.

나는 부엌과 방이 있는 단층건물에서 숙식하며 돼지를 맡아 관리했고 허영철반장과 김정림아주머니는 가까운 과일동에 집이 있는지라 출퇴근하며 축산반일을 했다.

나는 처음에는 성수가 났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차 일이 힘들어졌다. 토끼나 염소는 식욕이 앓남한데다가 온순해서 사양할 재미가 있건만 돼지란 놈은 먹성이 건데다가 습성 또한 계정스러워 보기만 해도 욕이 나갔다. 뜨물을 금방 췌는데도 또 먹을것을 달라고 폴안이 떠나갈듯이 꽤엑- 꽤엑- 고아대며 날뛰는 주둥이 넘적한 어미돼지가 미워 한 번은 나무박죽으로 때려주었다.

그때 허영철반장이 달려와 내 손에서 나무박죽

을 빼앗았다.

《어디다 매질하는거요?》

《왜 그래요? 교양 좀 주느라 그러는데 참을성도 없는 이 민한것.》

《돼지가 글을 알아, 말을 알아? 돼진 짹짹 때려먹어야 공순해져. 교양은 돼지가 아니라 동무가 받아야겠소.》

이러며 성을 내던 허영철반장은 기관부업밀천을 장만하기 위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벗고나서 돼지와 염소, 토끼종자들을 마련한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었다.

방금 나한테 쥐맞은 새끼날이돼지가 부장동지네 집에서 팔시집갈 때 쓰려고 기르던 돼지이며 그걸 내놓고 아주머니가 몹시 서운해했다는 말을 들은 나는 자신이 경망스레 여겨져 허를 깨물었다.

그날 저녁 돼지우리안에 들어앉아 어미돼지의 상처난 귀박죽에 약봉대를 감아주며 애처로워 한숨을 짓는 김영철부장동지를 보았을 때 나는 죄의식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축산반의 짐승들을 함부로 욱박지르거나 망탕 욱하지 못했다.

내가 사업소에 입직한 후 인차 축산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우선 집짐승우리가 크게 개건되고 과학적인 사양법이 도입되어 다량생산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 종자좋은 새끼받이를 해 돼지원천도 확보했다. 정림아주머니가 정식 돼지관리공으로 임명되어 나를 협조했다.

부장동지는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돼지마리수를 타산하여 전망성있게 새끼날이용 24칸, 비육 24칸으로 늘인 후 사철 정상적인 고기생산을 위해 비닐막막온실식집짐승우리를 건설해주었다. 한편 토착미생물에 의한 첨가제를 도입해 돼지기르기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였다. 관리조장인 나를 위해서는 조리실결방을 숙소로 꾸리고 가구비품과 액정텔레비존을 일식으로 갖춰주었다. 하여 나는 불편없이 안착된 생활을 하며 돼지판리에 전념할수 있었다. 차츰 일이 재미나기 시작했다.

동지달 강추위때 새끼날이돼지 세마리가 한시에 새끼를 낳은 일이 있었다. 복초를 깔은 우리안에 랭기가 뻗쳐 돼지도 관리공도 야단을 치는데 부장동지가 자기 집을 고쳐지으려고 장만해왔던 나무판자들을 실어다가 깔아주고 난로에 불까지 때주어 난사를 면했다. 그때일을 교훈삼아 우리안 절반을 1.2미터정도 깊이 파고 복데기를 다져넣음으로써 그게 부식되며 자체 열을 내게 해 실내온도도 보장했고 농사에 쓸 진거름생산량도 늘었다.

그런데 한창 성과를 올리던 때에 중돼지가 장독엍에 걸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자칫하면 다른 돼지들도 전염되어 죽어나갈판이라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져 어쩔바를 몰라했다.

이젠 끝장이로구나 하며 손뭉을 놓는 때에 부장

동지와 전용현당비서동지가 수의방역소와 종축장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기술협의를 하여 장독해소법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써 48시간만에 병걸렸던 돼지를 회복시켰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직접 목격하는 과정에 나는 정신적으로 키가 자랐다. 기업소일이 내 집 일처럼 여겨지며 그 실행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해에 수천키로의 돼지고기를 생산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건설자들에게도 보내주었다.

고기구력을 들고 퇴근하던 종업원들이 현순동무, 수고했소, 고맙소, 잘 먹겠소 하며 친절히 인사할 때마다 나는 쑥스러워 얼굴을 못 들었다. 더 많은 돼지를 길러 그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싶었다.

나는 돼지들이 날이 다르게 커가고 마리스가 늘어나는데서 희열을 느끼며 사양관리에 더 열성을 냈다.

그 나날에 우스운 일화를 빚어내기까지 했다.

작년 가을 돼지를 잡던 날이었다.

여러달동안 애지중지하며 품들여 자라온 비육돼지들이 죽는것을 본 나는 자연히 격해졌다. 발버둥치는 돼지를 깔고앉아 식칼로 먹을 찌르는 허영철 반장이 밍광스러워 나는 달려가 그를 확 밀쳐 넘어뜨렸다.

그 통에 위기를 모면한 돼지가 마당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참만에야 영문을 모른채 일어난 허영철이 나한테 눈을 흘겼다.

《동무 왜 그래? 갑자기, 뭘 잘못된게 아니요?》

《정신나간건 내가 아니라 반장동지예요.》

《내가 왜 정신나가.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이고 뭐고 몰라요. 가슴이 떨려 못 견디겠어요. 돼지가 막 불쌍해요.》

우리가 역증을 내며 밀치닥질을 하는데 김영철부장이 그곳에 나타났다.

《부장동지!—》

나는 울음을 터트리며 달려가 김영철부장의 팔소매를 잡아흔들었다.

《너무합니다. 어찌면 사람들이...》

나의 눈곱에선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그러는 나를 굽어보던 부장동지가 젖어든 음성으로 뇌이는것이였다.

《난 오늘 기쁘오, 성장한 최현순동물 보게 돼서. 사실 그때 내가 동물 데리러 갔던것은 관리공시킬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다른 생활처치로 시대의 락오자가 되어가는 한 젊은 녀성의 운명이 걱정돼서였소. 동무가 동거하던 집 할머니는 나의 친척되는분이었소. 그래서 현순일 알게 됐지. 현대 이제 현순동문 번영하는 이 땅에 자기 몫을 남

긴 인간이 됐구만.》

나는 눈물을 거두고 일어났다.

《저의 몫은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입니다.》

《비록 작아도 그건 나라에 필요한 몫이거던.》...

사연많은 지난날을 추억하며 집집승우리에 이른 나는 인차 작업복을 갈아입고 돼지들의 상태를 돌아보았다. 두동의 건물에 총 마흔여덟칸 우리마다에선 새끼돼지, 중돼지, 어미돼지들이 득실거렸다. 살이 통통 오르며 허리가 늘씬해지는 비육돼지들을 어여뻐 살펴본 후 새끼낳이돼지들이 있는 1호동 우리에도 걸음을 옮겼다. 매해 봄, 가을마다 새끼를 열두마리씩 꼭꼭 낳군해 막 굶기만 한 예쁜이, 사양공의 말을 척척 잘 들어주는 순둥이, 볼수록 오목오목 정이 들게 생긴 오목이, 익었건설었건 거칠건갈건 가림없이 잘 먹어대는 먹성이, 배가 고프건 부르건 늘 짹짹대기만 하는 고함이, 칸벽을 찍하면 뛰어넘어 옆우리 돼지물을 빼앗아먹는 세찬이와 날파람이 그리고 털빛갈에 따라 검둥이, 얼룩이, 점박이로 불리우는 어미돼지들이 주둥이를 너부적이며 나를 반기였다.

한창 흥에 걸던 나를 숨가쁜 웨침소리가 멈춰세웠다. 뒤쪽출입구에서 김정림이 뛰쳐들어왔다.

《현순이, 큰일났어. 글썸 발발이가...》

《왜 그래요, 언니?》

《발발이가 죽어가. 그제 저기서 지금 막...》

김정림은 영문을 몰라하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토끼사얏뜨락에 덩지 큰 발발이가 네다리를 뻗은채 모로 누워있었다. 허영철반장과 김성식세포비서가 돼지에게 록두물을 먹이는중이였다.

《가스중독이 왔소, 중독이...》

허영철이 힐끔 나를 흘려보며 내뱉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해졌다. 요전때 내가 먹이첨가제용으로 배양한 토착미생물들이 사달을 일으켰기때문이다.

나는 속에 짊이는데 있어 허를 깨물었다. 한달전 《그 남자》를 알게 된 후 마음이 싱숭생숭해 지내며 균배양을 제대로 못했던것이다. 밥이 든 나무함을 원래대로 선아봉에 묻어야 했으나 거리가 멀다고 하여 그보다 가깝고 낮은 절골산에 묻었다가 꺼내왔었다. 그제 사달을 일으키게 분명했다.

나는 사색이 되어 김정림의 손목을 잡아흔들었다.

《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 예?》

그러다가 허둥지둥 조리실로 뛰어갔다. 얼마전에 배양해놓은 곡자를 한웅큼 집어들고 비비다가 아니, 이게 아니지 하고 멍청하니 서있었다.

뒤따라온 김정림이 구석에 놓인 배불룩한 마대를 내앞으로 들고와 헤쳐보였다.

《부장동지가 비상용으로 보관했던 곡자야. 이거면 새 곡자를 생산할 때까지는 일없어.》

《그럼 부장동지도 내가 배양한 곡자가 잘못됐다

는걸 알고있어요?》

《응, 현순동무가 요즘 사생활문제때문에 심란해 하다나니 그렇게 됐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은 후 제가 직접 밥을 해 함에 넣어가지고 선아봉으로 갔단다.》

나는 죄책감으로 해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진정을 못하고 여기저기로 헤덤비며 돌아쳤다. 좀전까지만도 꿀꿀— 꿀꿀— 하며 정다운 속삭임처럼, 선물좋은 음악처럼 들려오던 그 소리들이 나를 원망하고 욕하는 웨침처럼 느껴졌다.

돼지가 해독되어 피어나는것을 본 나는 선아봉을 향해 떠났다. 한시바삐 부장동지를 만나 잘못을 용서받고 내가 할 일을 찾아하기 위해서였다.

해는 벌써 서산머리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선아봉은 향하리와 동석리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험산주봉이다.

내가 향하리입구인 절골을 지나는데 앞쪽에서 빈 배낭을 멘 김영철부장이 나타났다. 바삐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온 다음 보니 얼굴에 땀이 번들거렸다.

나는 부장동지를 대할 면목이 없어 길가로 비켜서서 주땃거렸다.

《이거 현순동무 아닌가!》

부장동지가 먼저 반색하며 다가왔다. 나를 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새 비육첨가제도입때문에 그 먼 원산까지 다녀오느라고 고생한데다가 오자마자 밀린 본신임무수행여가에 종합적인 집짐승우리 건설까지 하느라 몹시 수척해진 그를 대하니 죄책감으로 해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내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잘못을 빌었으나 부장동지는 알아듣지 못한듯 허허 웃기만 했다. 그러다가 손에 들고오던 망울진 화분을 나한테 넘겨주며 어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등을 밀었다.

《농장온실에서 얻은거요. 벌써 꽃송이가 맺히기 시작했단니까. 가져다 살림방에 놓으라구. 녀자가 사는 방에 꽃 한송이 없으니 어디 된 일인가?》

생활을 잘하라는 질책이다. 호된 꾸중이 아니라 고운 꽃으로 감화교양을 하는 그 진심에 탄복될수록 자신이 더욱 부끄럽게 여겨졌다.

절골을 다시 지나와 산언덕길에 올라서니 양지바른 골안에 오붓이 들어앉은 사택지구와 현장건물이 한눈에 안겨왔다. 골안과 앞벌에선 저녁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고 파일둥너머 산머리에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있었다. 길가 숲속에선 봄평의 구성진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건듯 불어치는 산바람에선 씩스레한 햇풀냄새가 풍긴다.

《벌써 봄이구만. 참 좋은 계절이 시작됐소!》

김영철부장이 희열에 넘쳐 뇌였다.

그 순간 나는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 느낄줄도 안다던 명언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동안 이른봄 저녁의 정서를 부감하며 앞서건던

부장동지가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그 동무네 공장지배인과 당비서한테 내가 전화를 했소. 그를 우리 기업소에 옮겨오게끔 합의보았소. 그러니 아예 단념할 생각은 말라구. 이제 새 집짐승우리기초타입이나 끝내곤 한숨 돌릴새에 사택지구에 동무네가 살 집을 짓기로 했소. 고기대풍도 마련하고 새살림재미도 누리고… 참 좋은 시절이 다가온단니까.》

김영철부장은 사뭇 흡족하여 호합지게 웃으며 활개쳐걸는다.

애뜻한것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었다. 내 인생이 행복의 문안에 들어선다는 느낌으로 해 숨이 벅차올랐다. 정든 고장, 정든 일터, 정든 집… 그 소중한 세계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졌다. 그 애착은 정이였고 사랑이었다.

보조를 맞추자

(총국일군의 이야기)

총국 박과장은 신소를 받은 며칠후 시간을 내어 구성룡호사업소에 료해하러 내려갔다. 김영철네 사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매달 돼지고기와 닭알을 정상공급하고 땀감까지 보장한다기에 총화 때마다 모범단위로 내세우며 칭찬을 해왔는데 그게 기본임무실행에 지장을 주는 부업의 산물이라니 편향을 시급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차가 룡호사업소현장에 도착한것은 한낮때였다.

점심식사전에 종업원들이 마당에 몰려나와 와야야 떠들면서 배구를 치고있었다.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의 남녀들이 혼성팀을 무어가지고 격렬한 공방전을 벌려대는데 살같이 오가는 공을 내려치고 올려받고 하는 숨씨들이 전문선수들 못지 않았다.

체육열풍이라… 아주 좋군!

박과장이 뒤집을 진채 흐뭇해서 지켜보는데 날과람있게 생긴 전용현당비서가 그를 알아보고 마중했다.

《부장동문 원산갔다 왔소?》

《예, 어제 도착했습니다.》

《현대 왜 안 보이오?》

《좀전에 세멘트운반때문에 역에 나갔습니다.》

박과장은 전용현당비서와 철민부원을 데리고 곧장 사무실로 가 총국과 관리국에서 떨어진 지령들과 그에 따르는 실행정형을 알아봤다. 모든 지령은 드팀없이 집행됐었고 문건정리도 빈틈이 없었다. 다음 현장창고로 나가 생산품의 보관상태와 실지 재고량을 문서의 수량과 맞춰봤다. 사개가 맞아떨어진건 물론이고 통풍과 건조조건을 구비한 현대식창고들은 기막히게 멋있었다.

속으로 만족해하던 박과장은 《동무네가 부업을 어떻게 하길래 소리가 나는지 좀 보지요.》하면서

제 먼저 집집승우리쪽으로 향했다. 먹이가공시설을 갖춘 조리실과 온실식호동안의 48칸우리마다에서 득실거리는 큰 돼지, 중돼지, 새끼돼지들 그리고 산기슭에 잇달아지은 토끼우리, 닭우리, 염소우리들을 돌아보고는 혀를 찼다.

《여보, 이젠 웬간한 목장 째먹겠소.》

박과장은 짐승우리를 떠나 공원처럼 꾸려진 현장 구내를 한바퀴 돌아보면서는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수종좋은 나무들로 수림화된 주변산밭들, 실개천 흐르는 한쪽 공지를 따라 줄줄이 드리운 포도넝쿨, 살진 잉어, 붕어들이 떼지어 노니는 양어장, 산삼, 만삼뿌리를 씻으며 흘러내린 자연수 샘터 주변에 정각처럼 들어앉은 휴게실...

금강산의 만물상을 형상한 기암괴석이 우죽비죽 솟은 샘터결에 석고로 빚은 몸매날씬한 선녀가 청자병을 살짝 반쳐들고 서있고 그 병주둥이에서 장생불로수갈다는 자연수가 뿜어지는걸 본 박과장은 뉘그러다가 몇모금 달게 마셨다. 속이 썩 열리는 느낌에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선녀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인다.

《여기 주인들의 수고에 대해 우린 알아야 해요.》

휴게실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콩비지밥에 산나물국으로 식사를 하고난 박과장은 사무실에서 각 부서의 성원들을 만나 김영철부장에 대한 료해담화를 했다.

리학제(세포비서)

《우린 그 누구의 강요에 못이겨 야간작업에 나온적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스스로가 이해하고 펼쳐나선거지.》

김철민(부원)

《사업소의 기본임무실행을 위해 누구보다도 머리를 쓰고 애타게 뛰어다닌건 부장동지입니다.

관리과 부원들이나 현장 창고원들이나 직권보다도 실무에 놀리워 부장동지의 말만은 껌짝 못하고 따릅니다.》

허영선(현장 로당원)

《물론 로동행정시간외에 공사를 하자니 힘들었습니다. 첼첼 그래서 의견들도 더러 있었고요. 하지만 고생한게 후회되진 않습니다. 그 덕에 종업원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많은 지원도 하게 됐으니 까요.》

라런미(현장근무조 조장)

《부업일천을 장만하느라 제 딸 시집보낼 가구까지 내온 부장동지가 결혼하는 우리 근무조 처녀들한테 아글타글 애써 가장집물을 갖춰줄 때마다 우린 울었습니다.》

...

저녁무렵 마지막으로 신소자를 만났다.

신소자는 제깍에 본격하여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 기관의 소임이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 시시한 부업파위에 정력을 소비하며 본신사업에 지장을 주니 어디 잘된 일입니까.》

《내 보긴 시시한 부업갈질 않던데... 그 덕에 생활도 향상되고 또...》

《우리 로동자, 사무원들이 뭐 잘먹고 잘살자고 직장출근을 합니까. 나라를 떠받들고 혁명을 하기 위해서지.》

탕—

박과장이 사무탁을 내려쳤다.

《여보, 혁명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오.》

신소자는 아연하여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박과장은 저으기 격해져 어성을 높였다.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상에 부럼없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요. 본신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구실을 대며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투쟁을 시끄럽게 여기는건 혁명하기 싫어하는 건달뱅이태도요. 항상 봐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말 많거던.》

《...》

박과장은 더 말하지 않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현장의 북쪽 산턱에선 종업원들이 파외작업으로 종합집집승우리공사를 벌리고있었다. 이미 쌓아올린 벽체에 미장도 하고 내부꾸리기도 하는중이었다.

혼합물을 이겨 맞들이에 담아주고있는 전용현당비서한테 다가서며 《저녁밥들이나 자시고 일하지.》 하고 말하는데 그가 손가락을 입가에 올려대며 모닥불쪽을 눈짓하는것이였다.

박과장은 그제야 모닥불가에 앉은채로 쪽잠을 자는 김영철을 띄어보았다. 세멘트가 묻은 작업복차림인 그는 며칠전에 보았을 때보다 형편없이 축났는데 손가락에는 피묻은 천조각이 감겨져 있었다.

박과장은 심정이 찌릿해졌다. 아직은 해가 지면 쌀쌀한 날씨라 김영철이 감기라도 들까 걱정되어 자기가 입었던 덧옷을 벗어 그한테 씌워주었다.

(이런 일군이야말로 우리 총국에 아니, 나라에 필요하지!)

×

민족최대의 명절인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구성룡호사업소에는 좋은 일이 겹쳐들었다.

기관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종업원들이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종합집집승우리도 완공됐고 사무실들과 현장이 한층 더 갱신되였다.

늦어진 영결식

주체90(2001)년 11월 11일 재미동포 홍동근 선생이 조국에 체류하던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미국에서 그의 가족이 조국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일찍부터 깨끗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온 홍동근선생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이 남달리 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7월 친히 홍동근선생을 접견해주시고 그가 하고있는 집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홍동근선생은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그리스도교 목사로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한 공로있는 애국자였다. 이미 도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와 《백두산의 노래》를 집필하여 만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는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김일성주석덕성일화 100》을 쓰기로 결심하고 불철주야로 집필활동을 벌리었다. 그러한 나날에 선생은 방대한 자료작업을 마치고 초고를 탈고하였으며 마지막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긴장한 집필활동을 하던중 오랜 기간의 병환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을 마주한 채 조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11월 17일 홍동근선생의 가족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친 그의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어 《통일신보》에 부고를 내도록 하시고 조의식장을 해외동포영접국(당시)에 꾸려놓고 조의를 표시하며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선생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영결식은 11월 19일에 진행되었다.

이렇듯 고인과의 영결식은 근 10일간이나 늦어져 수록만리 이국땅에 있던 유가족들이 고인의 령전에 도착한 다음에야 거행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은정에 접한 선생의 안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배려에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복사는 늘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조국땅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 그 소원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풀어주시었습니다. 저의 주인은 태세의 천당이 아니라 장군님의 품에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명절전날에 리동무가 김영철을 조용히 찾아왔다.

《부장동지, 제가 그새 많은 잘못을...》

최의식에 잠겨 말을 채 번지지 못하는 리동무를 지켜보던 김영철은 너그러운 태도를 취했다.

《사람이 일해나가느라면 때론 불평도 부릴수 있고 우에다 의견을 제기할수도 있는데 뭘 그러오.》

그 소리에 리동무의 눈이 켜해졌다.

《그럼 부장동지는 다 알고있었습니까?》

《책임자가 자기 기관내의 일을 모르면 되겠소. 리동무가 과외작업에 동원될 때마다 〈부장이 제 명성을 얻으려고 종업원들만 못살게 군다.〉고 투덜거린거랑 총국에 신소한거랑 대체루 알고있소.》

이러며 껄껄 웃던 김영철은 리동무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어서 들어가 집사람들과 오붓하게 불고기나 하며 명절을 즐기라구.》

김영철의 손에 떠밀려 밖으로 나온 리동무는 뼈

아픈 자책에 휩싸이였다.

뜻깊은 4.25인민군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수십마리의 돼지를 비롯한 원호물자를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 실어보낸 날 저녁에 김영철부장과 전용현당비서는 나란히 복숭아꽃만발한 구내길을 거닐었다.

《오늘 큰일을 하나 제졌는데 어찌 신색이 무겁습니까?》

전용현이 김영철이쪽에 걱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러자 김영철은 생각깊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이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가 하고 속궁리를 하는중입니다.》

《허허, 스스로 짐을 걸머지는데 부장동지를 따를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제 어깨에 짐을 걸머져야 그만큼 국가의 부담이 덜어질게 아닙니까.》

래일의 보다 좋은 날씨를 예고하듯 서편하늘가에 선 저녁노을이 붉게 타고있었다.

승리와 패배의 두 전통에 대한 철학적 해명

박정봉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변한다고 한다.

산천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지만 이 땅우에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영원히 불변의 진리로 남아있는 위대한 전통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승리의 7.27로부터 시작된 이 법칙적인 두 전통!

이 두 전통은 탁월한 수령이 계시면 중중첩첩 시련이 겹쌓여도 백전백승하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패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진실하여야 할뿐아니라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지난날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한 미제의 침략야망은 오늘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신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초《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정예향 작, 《조선문학》주체102년 8호)는 승리와 패배의 역사적인 두 전통을 예술적 화폭으로 시화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의 오만한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 력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의 승리에 대하여 느낀 시인의 격동적인 사상감정을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먼저 시인의 감정정서를 시초의 생리에 맞게 상대적인 독자성을 떠도록 펼쳐보이면서 작품의 총체적인 종자해명으로 지향되고있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작가가 아무리 현실생활을 올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눈과 심장을 가지고있

어도 작품의 특성에 맞게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지 못하면 그 의의를 옳게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형상의 전과정에 종자해명에 맞는 대상들을 골라 진실하게 그려야 이야기를 한 굵으로 전개시켜나갈수 있고 문제의 중심을 생활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보여줄수 있으며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게 잘 그릴수 있다.

서정시 《별》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푸른 잔디우에 꽃으로 장식한 붉은별을 보며 느끼는 시인의 체험세계를 꽃과 별이라는 시적발견속에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

오, 조국위해 바친 영웅들의 삶인가
전승기념탑 푸른 잔디우에
꽃으로 피어난 붉은별!

...

꽃과 별!

동구길에 피어난 들국화를 품어안고, 처녀가 가슴에 안겨주는 해당화를 고이 받아안고 전선으로 떠난 용사들!

이들의 손에 소중히 쥐고있는 꽃송이는 그대로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처녀였고 잃을때야 잃을수 없는 사랑하는 조국이였으며 인생의 참된 삶과 보람,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였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다시는 식민지노예살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기어이 지킬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조국수호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다.

하기에 그 꽃을 가꾸며 군용물통의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기울였고 그 꽃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조국에 바쳐싸운것이 아닌가.

전화의 그 나날 피로써 가꾼 꽃, 목숨으로 지킨 그 꽃이 오늘은 전승기념탑 푸른 잔디우에 붉게 피어나 별주단을 펼쳐보이고있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발견을 명시하고 《꽃으로 피어나며 향기풍기는 별.../ 별이 되어 빛나면서 피고 피는 꽃...》이라는 시어를 통해 진정한 별은 이렇게 빛나고 진정한 삶은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미국의 가공한 물골을 해학적으로 그려 내면서 백악관주인과 새 조선전쟁작전방안연구에 미쳐돌아가고있는 호전적인 컴퓨터능수들, 현대기술을 뽐내며 《정렬》한 미국제무기들에게 제발 조선에 오지 말라고 하는 절절한 당부가 펼쳐지고있다.

...

지금 우리 죽은자들의 현명한 눈에
뚜렷이 보이는것을 대드릴테니
당신들의 이마에 무엇이 찍혀있는지 아시오?
놀라진 마시오 그것은 다름아닌
《영원한 패배》라는 락인입니다

...

금별이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무기들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장성세를 뽐내며 조선전쟁에 나섰다가 《패전장군》, 《해골장군》, 《백다귀장군》으로 불리우며 간신히 살아 쫓겨간 미제의 패전물골을 그대로 내비치고있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서뽐리 덤벼드는 미제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싸움은 무기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과 필승의 신념, 뛰어난 전략과 명활한 전술로 한다는 절대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시인은 이러한 사상을 자기의 주정을 통하여 밝힌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백악관의 주인나리》에게 하는 미군로획무기의 교훈적인 당부를 통하여 펼쳐보이고있다.

...

—싸움은 무기로만 하는것이 아니요
그것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우리 미국엔 그것이 없소
무조건 달아빠고 무조건 항복하시오

...

이처럼 시에서는 사상과 신념으로 만장약된 조선인민군에 비한 미제의 사상정신취약성과 시대착오적인 사상관점은 미제의 영원한 패배의 근본요인이라는것을 확신성있게 주장하고있다.

한편 시 《물우에 뜬 미국》은 전승기념관에 끌려온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참관하는 시인의 감정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의 기본정서를 이루는것은 《푸에블로》호의 처지는 곧 미국의 처지라는것이다.

시의 첫머리에서 노래된 패자의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동해에서 대동강으로, 다시 대동강에서 보통강으로 끌려온 침략선 《푸에블로》호의 가공한 처지는 승자가 마음먹은대로 끌고다녀도 그 고분고

분함을 숙명으로 받아안아야 하는 미국의 물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여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궁지높은 조국!

시에서는 《미국을 딛고서》 행복의 웃음짓는 세세대들의 모습과 패자의 숙명을 지니고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수치에 몸을 떠는 《푸에블로》호의 모습이 대조적인 형상으로 펼쳐지고있다.

시인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원할 승리자의 기쁨과 패자의 슬픔이라는 사상정서적핵을 밝혀냄으로써 시초의 총체적인 종자를 해명하는데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있다. 그런가하면 시 《승리의 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전승기념관이 승리의 집으로 노래되고있다.

...

우리에게 있어라
보기만 해도
궁지로 이 가슴 한껏 부푸는
아, 그 모습 웅장한 전승기념관
새로 일떠선 승리의 집이

...

전화의 그날의 포신이 아직도 들어있고 그날의 작전도 오늘도 펼쳐져있는 전승기념관!

이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혁명사적관일뿐아니라 미제의 역사적인 패배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역사의 증견장이다.

그날의 최고사령부인양 섬멸의 작전도를 그대로 펼쳐놓은 전승기념관이 있어 승리로 자랑찼던 어제가 있고 승리로 전진하는 오늘이 있으며 승리로 더욱 밝은 래일이 있는것이다.

시인은 《영원한 승리의 세월을 더해주며/우리의 태양이 안아올린 승리의 집》으로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이어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과 드팀없는 의지를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시초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시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이다.

서정적주인공은 펄펄 휘날리는 《승리》상의 공화국기발에서 시상을 골라잡고 그것을 우리의 승리와 결부시켜 시적정서를 펼쳐나가고있다.

...

펄펄 휘날리는 《승리》상의 공화국기발
노을타는 하늘가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인듯
한껏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으로
내 그 글발을 읽는다

《승리》!

...

시인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어린시절 철없이 바라보던 푸른 하늘이었고 서투른 솜씨로 그리던 105프랑크의 람홍색공화국기였으며 초소로 바래워주던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의지이며 진리인 승리를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으로 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시형상에 그대로 펼쳐지고있다.

시인은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억제력을 가진 강국으로 더욱 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승리는 승리를 낳고 우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거침없이 곧바로만 달려나가기라는것을 토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

오, 승리 너는

태양의 축복받은 이 땅 이 민족의

위대한 전통이며 유산!

...

승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며 유산이다. 이것이 이 시의 사상정서적핵인 동시에 시초의 종자이기도 하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만을 아로새겨온 승리의 기발인 공화국기발이 영원히 휘날리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와 함께 산다는것이 시인의 주장이다.

시인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미체가 이 땅 위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몰아온다면 천금보다 더 귀중한 조국통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를 전투명령으로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결의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이처럼 시초에 들어있는 모든 서정시들은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형상적묘를 가지고 시초의 종자를 해명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작품은 또한 시의 사상정서적인 내용을 풍부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시문학의 사상에예술적 특성을 잘 살려낸것이다.

모든 문학작품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시문학에서는 사상적인 내용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예술적형상이 충분히 안받침되어야 한다.

시는 서정적주인공이 자기의 주관적인 사상감정을 토로하는 문학형태로서 시인의 감정정서가 기본을 이룬다.

생활에서 환기된 감정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펼쳐 보이는가에 따라 시작품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그려내고 노래하면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시초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에서 시인은 다양한 시형상으로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예술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시형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생동한 대조로 시의 형상력을 높이고있는것이다.

전승기념탑 푸른 잔디위에 꽃으로 피어난 붉은 별이라든가 조선의 공훈무기들앞에 선 야외무기전시장의 미군로획무기들, 포로의 수치로 몸을 떠는 《푸에블로》호를 딛고 웃는 아이들, 하늘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발과 《승리》상의 기발과 같은 생동한 대조적형상들은 작가의 시적발견인 동시에 시초의 예술적형상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시적발견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깊이있는 탐구, 그의 사상감정과 높은 예술적기량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발견이 없는 글은 문학작품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적발견이 없는 시는 사실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시라고 말할수 없다.

시인의 주정이 기본으로 되고있는 시에서 시적발견은 시인의 개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시초에서 시인은 이와 같은 시적발견을 생동한 대조적인 형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기의 창작적개성과 예술적기량을 잘 보여주었고있다.

시인의 개성은 대구법을 리용한 언어형상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전선으로 떠나며 용사들 안고갔던/고향의 동구길 그 들국화/떠나는 군용렬차를 바래우며/처녀가 안겨주던 그 해당화》, 《못다 누린 그들의 청춘이 향기풍기고/못다 산 그들의 삶이 꽃으로 활짝 폈으니》, 《꽃으로 피어나며 향기풍기는 별.../별이 되어 빛나면서 피고피는 꽃...》, 《이렇게 빛나야 진정한 별이다!/이렇게 향기풍겨야 진정한 삶이다!》(시《별》중에서), 《그날에 쳐들었던 멸적의 포신/아직도 내리워지지 않고/그날에 퍼놓았던 섬멸의 작전도/아직도 펼쳐져있는 집》, 《우리의 존엄이 지켜지고있었구나/우리의 래일이 펼쳐지고있었구나》(시《승리의 집》중에서), 《너는 미체를 쳐부신 영웅조선이/저 우주에 새긴 진리/싸우면 언제나 이긴다는/조선의 자랑스러운 선언》,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삶보다 소중한 정의를 지켜》, 《우리의 자랑스런 인공지구위성을!/핵시험의 장쾌한 피성을!》(시《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중에서)과 같은 대구법을 리용한 생동한 언어형상은 이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보다 뚜렷이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시작품의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시형상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매 서정시들의 양상이 서로 다른 사상정서에 맞게 각이하게 설정되고있는것이다.

현실에 있는 생활을 반영하는데서 작품의 내용에 맞게 특이한 생활들을 독특한 정서적색갈을 띠도록 선명하게 그려내는것도 중요하다.

밝은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보다 경쾌한 밝은것과 락천적이면서 밝은것이 다르고 아름다우면서도 밝은것, 숭고하면서도 밝은것이 또 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의 양상은 천만가지로 나타나야 한다.

시 《별》에서는 전승광장에서 먼저 간 용사들을 추억하는 숭엄한 양상을 띠고있다면 시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미군로획무기들이 백악관주인에게 교훈적으로 당부하는 해학적인 양상을 보여주고있으며 서정시 《물위에 뜬 미국》에서는 《푸에블로》호를 딛고 웃는 아이들의 락천적인 모습과 패전의 수치로 몸을 떠는 《푸에블로》호의 비극적

인 형상의 결합으로 시의 양상을 펼치고있다.

한편 서정시 《승리의 집》에서는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이 기본양상을 이루고있으며 서정시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에서는 지나온 승리의 력사를 추억하며 승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어갈 천만군민의 격동적인 사상감정이 시의 기본정서를 이루고있다.

시인은 이처럼 각이한 시적대상들에 맞는 독특한 양상을 시형상에 구현함으로써 시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강조하고 시작품의 예술적특성을 한계단 더 높이고있다.

참으로 이 시는 승리와 패배라는 법칙적인 두 전통에 대한 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시화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원쑤적멸의 성전으로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작품으로 된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인민대중에게 보다 신속하고 보다 생활적으로 인식시키는 정책적대가 확고히 서고 예술적으로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단 평

붉은 오각별의 형상을 통해 본 탐정, 추리수법의 활용

전 윤 희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는 시대와 함께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때문에 우리 인민의 새로운 미감에 맞는 소설형상을 창조하자면 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에 언제나 새롭게 탐구리용해야 한다.

단편소설 《붉은 오각별》(김혜인 작)은 지난 시기의 도식적인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새로운 형상수법을 적극 받아들여 리용함으로써 우리 문단에 또 하나의 이채로운 꽃을 피워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모방과 도식, 반복과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작가는 지난 시기에 주로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에서만 리용되는것으로 알려졌던 탐정, 추리형상수법을 일반소설창작에 받아들임으로써 소설의 극성을 한층 강화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작품

을 읽을수 있게 함으로써 사상예술적풍격과 예술적 흥미를 일층 돋구어주었다.

소설은 도혁명사적관 학술실장 《나》(김동훈)와 신흥혁명사적교양실 학술연구원 김경혁이 반세기라는 력사의 안개속에 묻혀있던 《붉은 오각별》의 진짜모습을 밝혀내는것으로 사건을 엮고있다.

작품이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것은 그 내용을 탐정, 추리형상수법의 하나인 주인공을 감추어놓는 수법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엮어나 간데 있다.

소설은 사건을 전진시키에 있어서 1940년대 초엽 신흥지구에서 살았던 목격자들과의 담화과정을 회상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개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나》가 신흥군 서곡리 수리봉 남쪽릉선에서 무명의 유해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조사의뢰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은 처음에 해발 천여미터나 되는 산꼭대기에 정히 안장된 유해, 총상자리가 뚜렷한 녀성의 시신인 그 유해가 범상치 않은것임을 암시한다.

독자들은 그가 누구인가? 혹시 항일유격대의 녀대원은 아닌지? 하는 호기심을 품는다.

이 호기심은 최신과학기술적방법에 의해 제작된 유해의 모방사진을 본 김기수로인의 증언으로 하여 뒤집혀진다.

김기수로인은 이 녀인이 지난날 자신이 마소처럼 혹사당하던 신탄목재회사 회계원으로서 뼈속까지 왜몰이 든 악착한 친일분자라고 단죄한다.

그의 류다른 머리모양까지도 상세히 기억하고있던 로인은 이녀는 이름까지도 아까이마 호시에로 창씨개명한 나쁜 녀이라고 확고히 말함으로써 모두를 아연케 한다.

증언자들이 늘어날수록 호시에의 정체는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난다. 더우기 신탄목재회사 함바식모를 했던 신복레로인의 증언은 그가 틀림없는 왜놈의 앞잡이임을 확증해준다.

이른새벽에 노동자들을 강제로 산판에 내몰고 방에서 발견한 좌익서적에 대한 모호한 그의 태도, 복레를 보고 애인인 근택이가 리산이와 가깝게 밀려다니지 않게 하라고 영문모를 경고를 하는 호시에, 산판에까지 올라와 기어이 책임자인 리산을 체포하게 하는 호시에의 모든 행동을 직접 보고 체험한 신복레로인의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독자들은 여기에서 정말로 호시에는 인민의 저주를 받을 악착한 친일분자로 단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설은 며칠후 다시 《나》를 찾아온 신복레와 당시 신흥지구인민무장대 소대장이었던 백남석 그리고 회사사장 후지마의 사무실 심부름군이었던 백명식의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들의 견해를 또다시 뒤집어놓는다.

신복레는 작년에 사망한 남편인 양근택이 언제인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한다.

해방전 어느날 양근택은 날로 악착해지는 후지마놈의 강요에 의해 인적드문 탕귀흠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다. 사장놈에 대한 불만으로 나무를 찍다만 근택은 그대로 눈우에 드러눕고말았다.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란 그는 가만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혁피를 띠고 각반을 두른 사람들이 힘겹게 언땅을 파고는 웬 시신을 묻는것이였다.

한줌, 한줌 흙을 뿌리는 그들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흐르고있었다. 그때 양근택이 나무하러 갔던 탕귀흠이 바로 오늘날 유해가 발견된 바른골

이라는것이였다.

또 백남석의 증언으로 《붉은 오각별》조가 밀정놈에 의해 모두 희생된 사실도 알게 된다.

군상업관리소 부소장인 백명식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호시에는 차거운것 같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처녀였다고 회상한다.

여러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조사결과 드디어 《나》와 경형은 반세기 력사의 두러운 안개속에 파묻히였던 《붉은 오각별》조, 수령결사옹위의 붉은 오각별들을 찾게 된다.

혁명성이 제일 강한듯 하던 리산이가 다름아닌 밀정 《사꾸라》이며 바로 이놈에 의해 사령관동지를 모시게 될 밀영위치가 드러나게 될 위험이 조성되자 서슴없이 한목숨 바쳐 밀정놈을 처단하고 밀영의 반대방향으로 놈들을 유인해가는 녀전사, 적의 탄환에 치명상을 입고도 기어이 비상련락장소까지 기여와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암호를 남겨 사령부의 안전을 수호한 녀투사의 정신세계는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아까이마 호시에— 그가 바로 《붉은 오각별》조 조장이였다. 그가 희생된 후 사령관동지를 모실 밀영의 안전을 위해 가짜밀영을 만들고 적들을 유인하다가 조원모두가 희생됨으로써 이들의 위훈은 력사의 이끼속에 묻히였고 이름 한자 남기지 못한 무명전사들로 되였다.

소설은 뒤가 잘 알리지 않는 구성방식으로 녀투사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을 지니게 되었다.

만일 작가가 처음부터 주인공의 정체를 명백히 유격대공작원으로 밝히고 순차적으로 사건을 펴나갔더라면 지금처럼 예술적흥미가 있게 이야기를 끌고나가지 못했을것이다. 더우기 주인공을 마지막까지 감추어놓았다가 절정부분에 가서야 드러내놓음으로써 독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작품의 극적흥미를 돋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단편소설 《붉은 오각별》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형상수법을 대담하게 리용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독자들의 사랑도 받게 되었다.

또한 일반소설창작에서도 얼마든지 탐정, 추리형상수법을 활용할수 있으며 그것의 능숙성에 따라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과 교양적의의도 더 높아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소설창작에서 도식적인 틀을 결정적으로 깨버리고 높은 정책적안목과 창조적립장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고 전 소 설(19세기)

갓을 팔아 마신 술(매립음주)

김 재 국 작
최 흥 록 윤색

무릇 술이란 총명한 사람도 멍청이로 만들고 젊
은 사람도 미치광이로 만드니 그 술이 해로운지
아닌지는 이제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
늠할것이라.

경기도 양주땅에 리생이란 한 량반자가 살았는데
그의 가문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당당한 권문세
가였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 리생의 대에 이르러서
는 가문이 엉망이 되더니 자그마한 고을의 현감벼
슬도 나오지 않았다.

헌데 우스운것은 이 리생이 자기를 그 무슨 의정
이나 판서쯤으로 여기며 조상이름을 팔아 제 생색
을 내며 다닌다는것이였다. 낮도 코도 모르는 사람
을 만나도 하는 첫 수작이 가판이였다.

《우리 증조부는 정1품 보국승록대부에 우의정
을 하였고 조부는 육조판서를 두루 걸쳐 령상을
하였고 우리 부친은 포도대장에 어영대장을 겸하
셨은즉 우리 가문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권문
세가로다! 내 비록 초야에 이렇게 묻혀있지만 이
제 상감께서 수일간에 상경하라는 명소패를 내리
실것인즉 나야말로 천륜을 도통한 현인군자가 아
닌가.》

이런 리생에게 남없는 두가지 특이한 재간이 있
었는데 그 하나는 그닥 세지도 않은 주량에 술이라
면 천리밖이라도 찾아가는 지독한 술꾼이라는것이
고 다른 하나는 일단 술이 몸에 들어가면 제 이름
도 잊어먹는 건망증이 살아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다는것이였다.

누가 초청하지도 않았건만 어떻게 뉘새를 맡았는
지 온 고을을 메주뚫듯 편답하며 제사집, 상가집,
잔치집, 생일집 하여튼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리생
이였다. 꼭두새벽부터 그 집에 주인마냥 올방자를
척 틀고앉아 술 내오라, 안주 내오라 호령질인데
입이 있어도 다물어야 하는 량반의 세상이요, 또
노루친 막대기 석삼년 우려먹는다고 자기를 권문세
가의 후손이라 으시대는 리생이 눈에 박힌 티처럼
밧건만 집주인들은 어쩔수없이 술이며 안주를 대접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리생이 한번 거동할 때면 웃지 못할 희비극
이 개구리밀구멍의 실뱀처럼 따라다니는지라 고을
의 늙은이건 아이이건 리생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마리가 터져 허리를 분지르곤 하였다.

어느해 가을, 서울에 가서 승지벼슬을 하던 이웃
집 김진사댁 맏아들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다가 그
만 한강에 빠져죽어 상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술렁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백리밖 술집에서 풍기는 술냄
새까지 맡는다는 리생이 그 소리를 듣고 곱게 지나
칠수 없었던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이른아침 집을 나서는 리생에게 마음고운 안해
가 《오늘이 시아버님제사날인데 제상에 놓을 과
실을 좀 사오세요.》하며 은전을 넣어주었는데 리
생은 문밖을 나서자바람으로 술생각에 옴하다나니
힘들게 남편에게 말을 댄 안해의 부탁이 북망산으
로 날아가버렸다.

김진사네 상가집에 찾아간 리생은 고인을 생각
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집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
고 제 본색그대로 상좌에 넉넉 틀고앉았다. 서너
잔 술이 들어가자 리생은 그만 상가집이라는 생각
은 꼬물만큼도 나지 않고 취흥이 도도해지기 시작
하였다. 그러다가 풀어진 계슴츄레한 눈으로 좌중
을 둘러보고야 다시 상가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취흥이 한창 도도하고 세상이 록두알만큼 작아보
이는지라 리생은 불쑥 추도사를 하겠다고 벌떡 일
어섰다.

그러지 않아도 상가집에 찾아와서 《주량은 도량
이고 주색은 영웅호걸이라.》 떠벌이며 술을 연거
퍼 들이키는 리생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던 김
진사네 식구들은 리생이 애사를 한답시고 일어나자
눈이 켜해졌다.

(아니, 또 무슨 어망창한 일을 저지르려고 저러
나?) 하는 눈빛이건만 리생은 권문세가집 자손, 초
야에 묻혀있는 현인군자답게 목청을 뽐냈다.

통쾌하게 마셨도다 천잔의 주정 높은 술을
통쾌하게 죽었도다 부모처자 다 버리고

통쾌하게 마시고 통쾌하게 즐기다 죽었으니
부러운것 없구나 아쉬운것 더욱 없구나

리생의 입에서 행어나 무슨 소리가 나오나 해서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지켜보고있던 안식구들과 손님들이 아연해졌다. 까마귀입에서 무슨 소리가 더 나오랴만 그래도 갓 서른을 넘긴 아들이 절명한 것이 너무도 가슴에 웅이처럼 댕혀 눈물짓던 김진사부부는 리생이 비명에 죽은 아들을 추모하는 애사를 한다가에 귀를 씻고 숨소리마저 죽이고있다가 리생의 그 소리에 텐겁을 하였다. 너무도 해피망측한 녀두리에 어안이 병병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두눈을 습벅였다.

김진사의 머느리가 리생의 그 소리에 기가 막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애고대고 소리를 지르며 행악질을 해대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기차라, 생때같은 사람이 술때문에 익사했는데 저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는고?! 죽은 사람더러 잘 죽었다고 하니 저게 어디 사람의 심보냐? 앞길이 저 푸르청청한 하늘같이 구만리인 내 남편이 죽은것이 저 사람에겐 흥부네 집에 박씨를 물어온 제비처럼 반갑다더냐? 저게 바로 물에 빠진 사람 꼭뒀을 누르는 놀부의 심보가 아니고 무슨 심보냐?! 아이고— 어머니—

저 미친 사람을 빨리 내쫓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통이 터져 죽겠소.—》

한바탕 복작소동이 일고 리생은 상가집에서 쫓겨나고말았다.

김진사네 상가집에서 매맞은 들개처럼 비실비실 쫓겨난 리생은 순간에 술이 다 깨는듯 한 느낌이였다.

후줄근해가지고 골목사이로 뻗은 고살길을 내려 큰길에 나선 리생은 아차 하고 머리를 쳤다.

(허참, 변고로다. 오늘이 돌아가신 부친의 제사날이 아닌가. 녀편네가 장거리에 가서 제상에 놓을 과실을 사오라고 했던걸 내가 그만 깜박 잊었구나.)

부랴부랴 장거리로 향하는데 갑자기 아래배가 아파나기 시작했다. 상가집에 가서 정신없이 술이며 안주를 집어먹다나니 위에 부하가 왔던것이였다. 당장이라도 뒤가 막 나올것 같았다.

급해맞은 리생이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스럽게도 뒤간이 길옆에 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뒤를 볼 때 갓을 벗고 보는것이례상사이건만 리생은 갓을 벗어 손에 들고 뒤간으로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술만 마시면 건망증이 살아나니 이제 이 갓을 다른 곳에 벗어놓으면 혹 뒤

를 본 후에 훔 잊어버릴수 있겠다, 그러니 이 갓을 뒤보는 뒤간우에 걸어놓았다가 뒤를 다 본 후에 일어나느라하면 분명 이 갓이 내 머리에 부딪칠것인즉 그러면 내가 이 갓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쓰고 갈수 있느니라.)

하여 리생은 뒤간에 들어가서 갓을 뒤간우에 걸어두었다. 뒤가 마려워 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뒤간이 길옆에 있어서 다급함을 모면하게 된것이 흡족하였다. 시원스레 방사하고나니 그 기분이란 이루 다 말할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바쁜것이 대통로에서 뒤마려운것이라 일렀구나 하며 일어나는데 무엇이 제머리를 톱 치거늘 눈을 올리고보니 땀시나는 통량갓이 있는것이였다.

(이크, 이게 웬 떡이냐? 오늘 아침 깨나니 눈섭이 별스럽게 떠다 했더니 내가 이런 좋은 물건을 하나 얻자고 그랬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갓을 여기에 두고 잊어버리고 갔는고?) 하고 생각한 리생은 그 갓을 손에 들고 큰길에 나섰다.

이때 리생의 친구 하나가 지나가다가 보니 리생이 갓을 쓰지 않고 손에 들고가는것이 아닌가. 땀머리바람에 갓을 들고 활개짓을 하며 걸어가는 리생을 보는 순간 친구는 대뜸 짐작키우는것이 있었다.

(저 사람이 방금 상가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어떡가는고? 분명 술을 마셨으니 그 건망증이 되살아나 자기의 갓을 남의 갓인줄 알고 쓰지 않고있는것이 분명한데 오늘 내 저를 좀 골려먹을가.) 하고 생각한 친구는 리생을 소리쳐불렀다.

《여보게, 이 사람, 나 좀 보세요.》

생각지 않게 좋은 갓을 얻고 썩썩 걸어가던 리생이 그 소리에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러냐?》

《자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불쑥 나타난 친구가 어디로 가는가고 묻자 리생은 순간적으로 주춤거렸다.

가만, 그러고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중이던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 나 말인가, 음— 어디로 가던가?!》

《왜? 건망증이 다시 살아났나? 어디 가서 또 술을 마신게로군. 그런데 자네 손에 든 갓은 웬 갓인가?》

《응, 이거 말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먹어 락심해있던 리생은 친구의 그 물음에 다시 양기를 되찾고 암담앞에 우쭐해 서있는 수탉마냥 거드름을 부리며 뜨직 뜨직 입을 열었다.

《친구 이 사람아,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오

늘 아침 깨나니 내 눈섭이 별스럽게 까분다 했는데... 하, 그래서인지 내가 뒀간에서 뒤를 보고 일어나는데 무엇이 내 머리를 치지 않겠나. 이거 웬놈이야 하고 올라다보니 이 갓이 뒀간우에 놓여있더구만. 어떤 량반인지 정신이 좀 여차했던가보네. 갓을 다 벗어두고 가는걸 보니 그 사람의 건망증이 날 찢쳐먹겠네그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값나는 이 갓이 내 손에 걸려든것일세. 이 갓의 주인이 안되였지만 오늘 십여냥은 길에 땡개친셈일세.》

친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레 누르며 한수 더 뒀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갓을 얻었은즉 자네 정말 복이 있소그려. 이 갓은 본래 자네의 물건이 아니니 차라리 그 갓을 장에 내다 팔고 갓 판 돈으로 우리 둘이 술과 고기를 사서 먹는것이 어떻겠나?》

친구가 갓을 장에 팔자고 하는 말에 리생은 자기가 부친제상에 놓을 과실을 사려 장거리에 가는 중임을 생각해내고 너무 기뻐 희색이 만면해서 씩씩해졌다.

《그때?! 하긴 공짜로 생긴 물건은 차라리 팔아 술사서 마시는것이 낫지. 마침 장거리에 나가려는데 그렇게 하세나.》

리생은 흔연히 대답하고 친구와 함께 저자에 나가 갓을 팔아 여덟냥을 받아 술집에 들어갔다. 술과 고기를 사서 싫도록 먹고나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다.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을 힐끔힐끔 결눈질해보건만 리생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술을 다 마시고나서 친구가 갑자기 정색해서 리생을 나무람하는것이였다.

《아니, 이제 보니 자네 맨상투차림이구만.

량반이란 사람이 망측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큰 술집에 갓도 쓰지 않고 체면없이 오다니, 망신이로다. 부끄럽지도 않나?》

친구의 꾸지람을 듣고 리생이 와들쭉 놀라며 체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이 없는 맨상투차림이 아닌가. 리생의 얼굴이 삼시에 울상이 되었다.

《내 머리가 전보다 가볍다 했더니 갓이 없었구나! 그리고보니 뒀간에서 얻은 갓이 내 갓이었구나. 제 갓인줄 모르고 그걸 팔아 술을 사먹다니...》

혼자서 중얼거리던 리생이 문득 깨도가 되였는지 얼굴을 험악하게 찌그리며 친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야, 이놈아! 이자 보니 네놈이 형편없는 흥측한 놈이로구나! 아까 나를 만났을 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그런 말을 하니 날 조롱하

는거냐? 처음부터 내 갓인줄 알면서도 그걸 팔도록 꼬드기고 또 갓판 돈으로 술과 고기를 먹게 하고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이 천벌을 맞을 시궁창같은 놈아, 네 먹은 술값과 고기값은 네가 다 내라!》

온 술집이 떠나갈듯 소래기를 지르니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우르르 모여 들었다.

친구가 모여온 사람들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니 모여든 사람들이 손벽을 치며 허리를 끌어안고 깔깔 돌아갔다.

창피를 당한 리생은 사람들의 폭소를 피해 뒀문으로 빠져나갔다.

허참, 내가 제 갓을 팔아 술을 사먹다니? 허거픈 웃음이 나왔다. 당장 어데 가서 갓을 구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두손으로 옷맵시를 더듬는데 무엇인가 볼록한것이 손끝에 미치는것이 아닌가.

피춤에 손을 넣어 꺼내보니 은전이 아닌가. 이쿠, 죽을수 생기면 살수가 생긴다더니 내 몸에 돈이 있었구나. 그러고보면 하늘도 무심치 않구나.

리생은 그길로 갓을 사쓰고 뒀골목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은즉 그 돈이 부친의 제상에 오를 과실을 사라고 안해가 준 돈임을 어찌 알았으랴. 결국 부친제상에 오를 과실을 살 돈으로 리생은 제갓을 샀던것이였다. 그후의 이야기는 더 쓰지 않으련다.

리생이 갓을 팔아 술을 사먹은 이야기는 한입두입 건너 온 양주방에 짜하게 퍼졌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이이건 늙은이건 양천대소하지 않은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먼발치에서 리생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런 동요를 부르며 놀렷다고 하니 자기의 갓을 팔아 술을 사먹은 리생의 이야기는 못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스스로 알지로다.

갓 벗어 뒀간에 걸었네
머리에 갓 부딪치니
이쿠 웬 갓이나
얼싸 좋다 팔아 술마셨지

내 갓이나, 네 갓이나
누구의 갓이나
량반 팔아먹는 갓
량반 꼴탕먹인 갓

류다른 느낌, 새로운 모습

방 호 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문학창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많은 시와 노래들이 창작되어 우주정복의 패승을 노래하고 인민의 환희와 긍지를 소리높이 터치고있다. 그 기쁨에 환희를 잇달으며 류다른 느낌으로 안겨오는 한편의 시작품이 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102(2013)년 8호에 실린 시초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여》(허수산)이다.

시초가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오게 한 시적형상의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라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져야 시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사 풍년을 안아올수 있다.》

시초는 세계를 진감시킨 선군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와 관련된 여러 생활들가운데서 위성과학자들의 평양체류의 나날들에 대한 정서적체험과정에 새로운 시적의미를 발견하였다. 기쁨에 기쁨이 덧쌓여져 승화된 기쁨, 크나큰 기쁨이 다름아닌 환희이다.

시초에서는 6편의 시들을 통하여 첫 실용위성발사로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를 기쁨의 련속과 승화의 과정속에 정서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시초의 첫시는 너무도 뜻밖의 놀라운 소식에서 환기된 《우리의 기쁨》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첫째 마감달 날씨도 유난했던 12월 12일 정오의 온 강산에 울려퍼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성공의 감격적인 소식, 그것은 하많은 사연을 담고 우리 인민에게 안겨진 기쁨이었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려 12월의 눈길을 헤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고 몸소 발사명령까지 내리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바로 그이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이 안아올린 오늘의 대경사, 오늘의 승리임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눈물겹게 새겨준 격동의 순간이었다.

하기에 시인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소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드리신 충정의 보고이며 그 보고야말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담긴 가장 크고 값지고 눈부신 우리의

기쁨이라는 시적결론을 내리고있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는 다름아닌 원수님의 로고속에 이루어진 인민의 기쁨이라는 사상이 환희를 이루고있는 첫 기쁨이 격동으로 충만된 시인의 심장에서 뿜어졌다.

이 기쁨은 두번째 시 《그것 없인 못살아》에서 보다 깊이있게 해명되고있다.

우리 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드리신 충정의 보고—우리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

좀 어렵더라도

나라의 국력

민족의 존엄

만방에 떨침을

자신의 생활과 행복의 전부로 안고사는 인민

...

바로 이것이다.

5천년민족사가 이루지 못했던 민족번영의 영원한 담보를 가진 기쁨이고 《목숨보다 재부보다 귀중한/ 조국의 영예 민족의 존엄》없이는 배불러도 살수 없기에 그리도 크나큰 우리의 기쁨이다.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인은 선군조선의 강한 국력과 민족의 존엄이야말로 우리의 제일 큰 기쁨이라는 시적발견과 함께 이 존엄과 영예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선군조선의 인민들이라는 시적결론을 내림으로써 시형상의 무게를 보장하였다.

첫 기쁨에 대한 해명과 승화로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가 무엇인가 하는것이 이제는 밝혀졌다고 말할수 있지 않는가.

아니, 승화는 되었지만 그것 역시 아직은 시인이 주장한 환희가 아니다.

시인은 그 환희의 의미를 위성과학자들의 평양초청의 나날들을 묘사한 나머지 4편의 시들에서 더욱더 승화시키고있다.

세번째 시 《그대들은 누구더냐》에서 시인은 《우주를 정복하였지만/ 환영과 초청엔 초행길인듯》한 위성과학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면서도 평범한 보통공민들이라는 발견이 갖는 생활적인 시형상으로 즐거운 견학의 나날을 보내는 영웅들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환영속에 《우리의

기쁨》을 승화시키고있다.

그 환영이 네번째 시 《홍겨운 명절의 나날이었다》에서는 온 수도의 환영으로 이어졌다.

영웅중 영웅 그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청받고
평양에 와 지낸 나날은
평양시민 우리들도
날마다 홍겨운 경사의 나날들이었다
...

명절, 여기에 기쁨을 환희어로 승화시킬수 있는
형상적바탕이 있다.

기쁨으로 차고넘친 날이 다름아닌 명절이 아닌가.
그저 명절이 아니라 《애국자 승리자들이 쇠는
명절》이라는 시적발견은 기쁨에서부터 환희어로
시초가 안고있는 사상적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는 다
리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또 있다.

...

애국자 승리자들이 쇠는 명절이
어떤것인가를 보여다오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싶구나

이것으로 시인은 시초를 통해 말하려고 한 사상
적결론을 암시해주었다.

다섯번째 시 《인민야외빙상장 얼음판우에서》에
서는 그 암시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앞선 시들에서 평양초청의 나날에 대한 위성
과학자들의 생활이 일반화되어 다 펼쳐지지 않
았는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하많은 생활들가운데서 빙상
장묘사가 따로 필요했는가.

그 이유를 우주정복자들이 스케트를 타는 즐거
운 모습을 보며 시인이 내린 이 시의 시적결론에
서 찾게 된다.

...

스케트를 타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더 즐겁다
온 평양이 더 젊어지고
더 큰 기쁨을 앞에 두고
크게 웃고 떠들던 인민야외빙상장의 하루여!

더 큰 기쁨을 앞에 두고, 이것이 빙상장 얼음판
을 빌어 시인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낸 인민의 환
희이다.

고향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큰 꿈을 꾸던 어린
시절처럼 《광명성》은하세계를 우주가득 펼칠 더
큰 꿈을 앞에 두고,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를 앞
에 두고 시인은 그저 스쳐지날수 없었다.

그래서 약속하듯 말하였다.

그대들이 더 큰 승리를 마련할 때 평양의 기쁨은
더 커지거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나라, 온 평양
사람들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고, 더 위대한
승리를 기다린다고...

마지막시 《환송》에서는 나-평자가 앞질러 결
론한 이 시초의 사상적결론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
였다.

...

아, 이제 그대들과 언제 다시 만날가
그대들이 더 큰 승리를 마련할 때
평양의 기쁨 얼마나 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나라 온 평양사람들은
그대들을 기다린다
그 기쁨 함께 나눌 그날을 기다린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 더 위대한 승리 불러
오리!

선군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
기와 더불어 태어난 우리의 기쁨, 그것은 더욱
더 위대한 승리를 불러올 환희, 하늘에 닿은 인민
의 환희라는 시초의 사상적결론이 정서적으로 해
명되었다.

시초는 이것으로 끝났으나 남긴 여운은 자못
크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여》라는 제목이 새로
운 모습으로 안겨온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말한다면 생활에
대한 시인의 사색의 세계가 높았고 그 사색의 산물
인 시적발견이 새롭고 무게있는것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의 깊이
이자 곧 새로운 시적형상의 비결이라는것이다.

격동적인 현실이 주는 단순한 충동과 흥분에만 머
무르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사색함으로써
그것에 담겨진 시대의 본질, 생활의 본질을 정서적
으로 파악하는 여기에 시창작의 비결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쳐내
닫는 선군조선의 현실은 어제오늘도 격동적인것이였
지만 매일은 더욱더 가슴씩차고 휘황찬란하리니.

그 장엄하고 위대한 현실이 우리 시인들로 하여
금 새로운 명작폭포를 안아오게 할 영원한 원동력
으로 될것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오늘의 벅찬 현실을 직접
창조하고있는 생활의 주인공이며 낯은 창작경
향에 물들지 않은 신진창작력량이다.》

김 정 일

시 묶음

나는 이 땅의 광부다

어머니의 기쁨

리 영 명

해빛도 눈부신 어머니날 이 아침
신문에 크게 난 혁신자
다름아닌 이 아들의 모습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못 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지하막장에
아버지처럼 굴진공으로 내세우며
얼마나 얼마나 뜨거운 정을
어머니는 나에게 기울여온것입니까

늦잠꾸러기 나를 깨워
출근길에 어엿이 내세우던 그 손길
첫걸음마 익혀주던 시절에 이어
그 어떤 암벽도 뚫고나가는
광부의 걸음새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전야근 후야근 교대를 앞두고
늘 버릇처럼 닦아놓던 안전등
지하의 보물을 속속들이 비쳐가던
그 불빛은 언제나 이 아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눈빛이 아니옵니까

년간계획 앞당겨 끝내느라
때없이 늦어지던 밤
머리우에 이고오신 푸짐한 밤참을
온 소대가 달게 나눌 때
어머니얼굴에 피어나던 그 웃음이여

아, 부강번영 펼쳐가는 내 조국에
없어서는 아니될 쇠돌을 두고
금별의 생을 빛낸 아버지처럼
이 아들도 떼떽이 내세워온 어머니 그 진정
광부의 어깨너머
번쩍이는 쇠돌산이 다 말해주거니

어머니날 이 아침
축하의 인사말 고르고고르는
이 아들의 속마음도 헤아리신듯
어머니 하시는 말씀 가슴을 울립니다
—혁신자로 자라난 네 모습보다
더 훌륭한 축하가 나에겐 없구나

나는 이 땅의 광부다

손 강 춘

오늘도 세차게 광맥을 뚫는
나의 착암기야 너도 들었지
원수님 모시고 또다시 진행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의
가슴 후련한 아침보도를

한사코 이 땅을 핵참화에 잠그려는
백년속적 미제

가까이든 멀리든 그 어디에 있든
그리고 그놈들의 본거지까지
송두리채 죽탕칠 불줄기의 탄두들이
에서 캐낸 쇠돌로도 부어졌기에

석수에 땀에 온몸이 젖어도
이처럼 기꺼웁구나
또 하루 계획을 돌파했어도

나에겐 도무지 성차지를 앓구나

저 멀리 은하과학자주택지구
청천강 레성강을 가로지른 언제들...
땅우의 모든 창조물들에
아낌없이 가닿을 내 사랑 쇠돌이다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감히 어찌보려는
미제와의 최후결산에
또한 더욱 엄엄히 맞설
무적의 힘을 빛는 증오의 불덩이로
쌓이고쌓이는 이 쇠돌이다

뿔자! 뿔고나가자!

앞으로! 앞으로!

땅속의 무진장한 이 쇠돌로
땅우의 무한대한 사랑과 증오의 세계
승리의 환희로 받들어올리며
무한대의 정신력을 펼쳐가는
나는 어엿한 원수님의 광부

경제와 핵무력건설
그 위대한 병진로선을
두어깨에 떠멘 힘있는 척후대
보란듯이 솟구치는 천하제일강국에
뿌리처럼 뿌리처럼 든든히 놓인
오, 나는 이 땅의 광부다!

광부의 그리움

윤 금 영

그리움은 갱구길에 설레이는
코스모스 꽃바다에 실려오는것입니까
낮에도 그림던 원수님
밤에도 그리워 잠 못듭니다

그리움은 광차마다 가득실어내는
쇠돌산마다 쌓이는것입니까
어제도 그림던 원수님
오늘도 그리워 한달음 달려잡니다

북변의 기계공장 구내를 걸으시면서도
포병들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면서도
언제나 광부들을 생각하시며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으로
나라의 맡아들로 내세워주시는 원수님

그 사랑있어 들끓는 막장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 두려움없는 광부들입니다
광산에 원수님 모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리움에 쇠돌산이 높이 솟아납니다

진정 그리움은

대비약 대혁신의 날개입니다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드높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사회주의 최후승리 앞장에서 이끄시는
원수님의 불멸의 자욱자욱 따라서며
오늘은 오실가 래일은 오실가
간절한 우리 마음 원수님 뵈올날
아이들처럼 손꼽아 기다립니다

꽃이라면 고운 꽃 어디에나 피워놓고
오시는 그 길우에 꽃바다 펼쳐놓고
한생에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맞이하렵니다
쇠돌로 원수님을 억척으로 받들어갈
광부의 맹세도 삼가 아뢰립니다

아, 천길지하막장 걸어가는 이 시각도
우리의 가슴마다 환하게 어려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그이 품에 한달음에 달려가 안길
한없는 그리움에 불타는 광부의 마음이어

드리고싶어라

조 만 국

십심산골 두메의 광산마을에
대원수님들 오셨던 뜻깊은 날이 오니
대원수님들 태양상 찾아
사람들 발걸음 그칠새 없어라

귀여운 아이들의 가슴에도 꽃다발
눈곱젖은 로인들 손에도 꽃다발

내 고향은 온통 꽃의 바다인데
광부 나는 어이하여 꽃다발에
쇠돌산의 무게를 얹어 안고온것인가

부강조국건설을 쇠돌로 받들어가는
나라의 맡아들 광부들이 사는 집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 찾아주셨던 우리 집

힘한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신 나의 할아버지
바로 그 광부의 손자가 캐낸 쇠돌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쇠돌로 당중앙을 억세게 받들어갈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
년간계획 앞당겨 완수한 이 쇠돌

드리고싶어라
이 세상 그 어느 화려한 꽃다발보다도
아름다운 보석의 광채를 뽐내는 이 쇠돌
두손 모아 삼가 드리고싶어라

대원수님들의 영생을 축원하는 그 마음
원수님따라 혁명의 천만리 끝까지 갈 그 맹세
굳세고 변함없는 쇠돌이 다 말해주기에
광부는 오직 쇠돌로만
충정의 꽃다발을 엮어야 하거니

끝없이 흐르는 꽃물결속에 서서
우러르니 환하신 대원수님들의 그 미소
우리의 밝은 앞날 축복해주시는가
아, 광부 나는 정녕 영생축원의 꽃다발에
땅속 억만보화 다 담아 드리고싶어라

연 단

가사창작에서 세부형상과 정서적표상

차 명 철

이 땅 그 어디서나 새로운 조선속도가 창조되고 있다. 날에 날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지고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정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누구나 달려며 사는 오늘이다.

이 벽찬 시대의 숨결에 심장을 뚫이고 이 환희로운 시대적화풍을 격조높이 구가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우리 시인들에게 있다.

시대가 바라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짙 차넘치게 하는 명시폭포, 명가사폭포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문학 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하시면서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어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사람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어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자면 가사창작에서 인민들의 생활에 발을 붙이고 그들의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새롭고 약동하는 생기를 주는 생활세부들을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가사에서 세부형상은 정서적표상이 강하게 안겨오도록 씌여져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사에서는 표현으로 한뼘 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한덩어리의 생동한 화풍을 펼쳐놓으면서 많은것을 련상시키고 깊은 여운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고전적명제에는 서정성을 기본특성으로 하는 시가작품에서 서정이란 곧 생활정서라는 의미가 밝혀져있다.

생활정서란 시인이 인간과 그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감득하게 되는 감정표현이다. 즉 정서적체험을 통한 감정표현이다. 가사는 실제적으로 이 생활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형상을 이루게 된다. 가사의 생활정서는 시인의 사상감정과 그의 미학적의도가 비껴있는 그런 생활정서이다. 여기에 가사가 생활정서의 노래로 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것이다. 가사에서 생활정서는 객관현실에 대한 시인의 시적체험, 정서적체험에 의하여 얻어지게 된다.

주체의 문예리론에서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시가작품의 서정은 그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인것만큼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생활에 대한 비반복적인 정서적체험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생활에 대한 비반복적인 정서적체험만이 가사의 개성적특성을 살릴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가사에서 사상은 독특한 생활세부들이 주는 정서적감흥속에서 표현된다. 시인들이 가사를 창작할 때 상을 포착하는 구체적인 생활정황과 계기도 바로 생활의 세부인것이다.

그런데 가사에 표현된 생활세부는 객관현실에 있는 세부자체가 가지고있는 의미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세부에 새롭게 부여된 시적의미에 있다.

작시법의 요구에 따라 운이나 글귀를 맞추는것

만으로는 가사에 열정과 정서가 넘치게 할수 없고 또한 사상만 호소해서는 시의 정서적작용력을 높일수 없다.

가사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주장은 글자 맞추기나 절구성에서가 아니라 형상의 힘, 다시말해서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은 창작자에게 강렬한 정서적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주장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일수 있게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그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세부형상과 결부되지 않은것이 없지만 가사는 짧고 제한된 형식을 가지고있는 특성으로부터 생활세부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이 매우 어렵다.

가사창작에서 세부형상을 잘하자면 한쪽의 그림과도 같이 정서적표상을 강하게 주면서 인상깊게 써야 한다.

그 대표적인 가사로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들수 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당기여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
당기여

그대 불갈고 즐기찬 열정
필릭임소리 나래퍼는 조국의 노래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
당기여

우린 민노라 오직 그대를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
당기여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당기여

형상이란 곧 그림이라는 말이 있다. 즉 눈에 보이는것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가사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행복의 상징인 조선로동당기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 그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고 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뜨거운 헌신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이 가사에서는 우리의 당기를 자기를 낳아 키운 어머니를 바라보는것과 같은 아름답고도 숭고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라는 가사의 첫 구절은 진실하면서

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세부형상으로 되고있다. 이 세부의 견인력은 그 세부자체가 표현하고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의 당기에 대한 절절한 감정인 동시에 당기가 안고있는 뜨거운 사랑과 정을 내포하고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세부형상은 가사의 2절에서 《그대 불갈고 즐기찬 열정 필릭임소리 나래퍼는 조국의 노래》로 표상되고있다. 이 세부형상은 우리의 당기가 안고있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힘,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을 꽃피우는 끝없는 열정을 노래한다.

가사가 아무리 시인의 심장의 호소이고 철학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눈앞에 생동한 형상으로 우뚝이 떠오르는것이 없다면 메마른 론리만이 남게 된다.

가사에는 그림과도 같은 생동한 화폭이 안겨와야 정서적표상을 강하게 주고 여운을 줄수 있다.

전시가요들인 《아무도 몰라》(정서춘), 《샘물터에서》(최로사)는 전체 형상이 그대로 한쪽의 그림으로, 매 절이 바뀔 때마다 영화의 화면처럼 생동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생활적인 세부들로 차넘치는 명가사의 본보기작품으로 되고있다.

시대의 본질이 체현되어있고 시대의 전형적인 감정이 깃들어있는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 거기에서 환기된 생활정서를 감명깊게 노래할 때 그 가사는 높은 정서적감흥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정서는 시인의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현실에 있는 모든 생활, 모든 대상이 다 감정정서를 불러일으키는것은 아니다.

생활을 체험하는 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정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로부터 구체적인 생활의 본질적인 세부를 발견하는 각도가 차이나게 되며 결국 각이한 세부형상이 산생되게 된다.

생활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체험되자면 시적체험이 비반복적인 생활정서적체험으로 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한 생활과 다른 생활이 구별되는것은 그 생활들이 가지고있는 생활세부들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생활에만 고유한 세부들에 대한 정서적체험만이 생활정서적체험으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가사의 풍만하고 독특한 생활정서를 느낄수 있게 한다. 가사에서 사상이 정서를 통하여 표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비반복적인 생활정서적체험, 구체적으로 독특한 생활의 세부들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시인들이 생활적인 가사를 창작할 때 가사의 상을 포착하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도 바로 그 생활의 세부인것이다.

가사에 시인에 의하여 정서화된 생활의 세부들이 없으면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시구들밖에 나울것이 없다. 정서화된 생활의 세부가 없으면 벌써 그 가사는 사상미학적, 정서적감화력을 잃게 되므로 가사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자연적세부들에 새로운 사상정서적의미를 부여하고 느끼는 비반복적인 그러한 정서적체험속에서 시인들의 사색과 탐구의 흔적을 보게 된다.

《조선문학》 2014.5호에 실린 가사 《내 삶을 빛내주네》(리동일)가 이러한 요구를 비교적 실현하였다고 할수 있다.

떠나온 고향집의 하얀 담벽에
소중히 걸려있을 나의 입대증
조국보위 그 영예를 안기여주며
내 마음에 정다웁게 어리어오네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초소의 이 아들이 그리울 때면
부모님 바라보실 나의 입대증
고향앞에 뿔뿔하게 살아가라고
나를 불러 위훈으로 떠밀어주네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애국의 첫자리에 병사를 세운
그 믿음 어려있는 나의 입대증

원수님결사옹위증표가 되어
한생토록 나의 삶과 함께 있으리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구체적이며 생동한 세부형상은 시인의 생활에 대한 시적체험, 정서적체험으로 산생되게 되며 그를 위해서 시인은 생활속에서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시적세부들을 발견하여야 하는것이다.

가사를 생활정서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시인들은 인간생활과 자연의 대상속에서 생활정서를 강렬하게 불러내고 그 정서적의미와 폭이 여운있게 안겨오는 정서적인 세부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는데 창작적사색을 집중시켜야 한다.

정서적인 표상을 강하게 주는 생활세부들은 우리의 투쟁과 생활속에 무진장하지만 그것이 형상으로 구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시인들의 사색과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시고 명가사로 빛내여주신 《조국찬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내 심장의 목소리》와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다.

모든 시인들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가사, 정서가 풍부하고 생활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11호 (루계 제805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11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11월 5일

ㄱ-461100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